

日本の中國 天台教學 研究史

日 藏(喜良淑)

〈目 次〉

- | | |
|--------------------|------------------------|
| 1. 머리말 | 8. 일본의 중국천태교학연구사 |
| 2. 천태교학 연구의 역사와 배경 | 9. 최근 일본의 중국천태교학의 연구동향 |
| 3. 천태지의의 저작 | 10. 천태교학 연구의 과제와 전망 |
| 4. 천태교학의 조직 | 11. 연구의 참고서 |
| 5. 천태교학의 특색 | 12. 맺는 말 |
| 6. 소의경론 및 장소 | 부 록 (연구자료편) |
| 7. 천태지의의 사상 | |

1. 머 리 말

천태학은 천태대사 지의(智顗, AD.538~597)에 의하여 조직 대성된 교학이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수(隋), 당(唐)시대로 부터 송(宋), 원(元), 명(明)시대에 걸쳐서 중국 불교를 대표할 만큼 권위를 가지고 발달한 교학이다. 지의 이후, 천태학을 계승해 온 사람들 중, 가장 주목 되는 사람은, 2조의 관정(灌頂, 561~632), 6조의 담연(湛然, 711~782), 그리고 사명지례(四明知禮, 960~1028)이다.

일본에 있어서도 전교대사 최징(傳教大師 最澄, 사이초, 767~822)에 의해 히에잔(比叡山)에서 천태종이 열린 후 일본천태종으로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특히 천태교학은 일본불교의 근간이 되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종파불교의 뿌리가 히에잔으로부터 시작하므로) 또한 일본에서 발전된 천태교학은 중국천태와도 그 형태를 달리하기 때문에, 천태교학연구는 중국천태, 일본천태로 나누고 있다. 여기에서는 중국천태학연구사의 방향으로 이끌고자 한다.

우선 천태교학의 연구가 일반의 불교를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지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불교의 경론(經論)이 다종다양하고 경론이 설하고 있는 사상은 지극히 복잡 해서 초학자로서는 아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천태교학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정리된 이해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같은 불교의 이름하에 있어서도 어느 것이 바른 교설이며, 또는 모순이나 대립의 관계가 있는 교설을, 어떻게 이해 해야만 좋을까, 라고 하는 문제점들이 생긴다. 그러나 천태학을 연구하는 것에 의해서 복잡한 불교사상의 통일적인 이해 방법을 어느 정도 배울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실로 천태교학이 불교내외의 사상을 철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집대성하고, 거기에 웅대한 구상력과 투철한 논리를 구사해서 대소승의 불교 전체의 교리(敎相)와 실천(觀心)을 일목요연하게 체계화 시켰기 때문인 것이다. 그리고 시대를 넘어선 현대의 불교학연구에 있어서도, 천태교학이 필요하다고 생각 되어 지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천태교학 연구의 방법론에 있어서, 지의의 저작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처음 연구를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어느 것부터 읽기 시작 하며, 어디서부터 연구의 손을 뻗어야만 좋을지 그 방법을 빨리 찾아 내기가 어렵다고 하는 사실이다.

그래서 천태교학을 연구 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현재 일본에서 행하고있는 중국천태교학사(中國天台敎學研究史)를 소개함으로써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바람에서 이책의 편집에 참석 했음을 밝힌다.

이 책의 주제가 비브리아그래피에 있지만, 우선 천태교학을 처음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을 위해 먼저 천태대사 지의에 이르기 까지의 상승계통을 언급하고, 다음은, 천태지의의 저작, 천태교학의 조직, 천태교학의 특색, 천태가 의지하고 있는 경론, 그리고 천태지의의 사상등을 간단히 소개 하

여, 도대체 천태교학이 무엇인가를 조금 안 연후에, 일본의 중국 천태교학 연구사, 천태교학의 연구동향, 천태교학 연구의 과제와 전망의 순으로 본논문을 엮어 나가고자 한다.

2. 천태교학 연구의 역사와 배경

2.1. 천태에 이르는 계통의 순서(立祖相承論)

천태교학을 연구함에 있어서, 소위 천태지의가 이미 증득한 법문도 반드시 그 이전의 교학과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서 오는 사상의 원류가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 볼 필요가 있다. 즉 천태대사의 제자인 관정¹⁾(561~632)이 쓴 마하지관(摩訶止觀)의 서문 속에, 천태학의 계통에 대해서 두가지의 전통 상승의 순서가 제시 되어 있다. 즉 금구상승(金口相承)과 금사상승(今師相承)이다. 금구상승은, 석존(釋尊)이 법을 마하가섭(摩訶迦葉)에게 전한 이래, 그 뒤를 이어(師資相承)최후 제이십삼조 사자비구(師子比丘)에 이르는 계통을 보인 것이다. 이것은 지의의 천태교학이, 멀리 석존의 직접적인 설법에 근원을 두고, 특히 제33조 용수의 사상에 근거를 둔 것을 표현한 것이다.

다음은 금사상승(今師相承)으로서, 금사라고 하는것은 천태지의의 경칭이다. 제6조 형계담연(荊溪湛然.711~782)의 해석에 의하면, 금구상승은 앞으로 부터 뒤로 향하고, 금사상승은 뒤로부터 앞으로 향하는 것이라고 한다. 즉 소위 석존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법차제(傳法次第)를 순관(順觀)하는 것은 금구상승이며, 교조 천태를 중심해서 그계승을 역관(逆觀) 하는

1) 灌頂(561-632) : 天台宗 第四祖. 隋代 臨海縣 章安의 사람으로서, 諱는 灌頂, 고향의 지명에 의해서 장안대사라 한다. 二十五세때, 智者大師(지의)를 배알하고, 친근의 시자로서 모시기 약十三년 동안, 文句·玄義·止觀의 삼대부를 비롯하여, 들어 왔던 강설을 편찬한 것이 백여권에 달한다. 師의 入寂後 天台山國清寺에서 강설하고 있을 때, 隋末의 병란을 만나, 은거하며 오직 저술에만 전념했다. 唐 貞觀六年(632) 八月, 國清寺에서 72세로 入寂. 저술로서는, 涅槃玄義·涅槃經疏·觀心論·國清百錄·智者大師別傳 등 八部四十九卷이 있다.

것은 금사상승의 뜻이다. 이 계통은 용수로 부터 이하 천태지의에 이르는 4조의 전승을 말해주는 것으로, 용수(龍樹)-혜문(慧文)-혜사(慧思)-지의(智顗)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지의로 부터 시작되어 진다. 이 금구상승과 금사상승은, 당시 지론종(地論宗)이나 삼론종(三論宗)의 홍용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천태교학이 용수의 중관파의 사상에 속하는 것을 표시 하는 것에 의해서, 천태교학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의도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설도 있다²⁾. 그 외에도 일본 천태종가에서 말하는 직수상승(直授相承), 역주상승(譯主相承), 구사상승(九師相承)등이 있다. 이것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금구상승은 제이 금사상승을 세우기위한 전제로서, 천태교의의 원류는 용수에서 시작됨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금사상승은 천태종 입조의 중심점을 이루는 정통교조로서 혜문, 혜사, 천태의 상승을 보인 것이며, 직수상승에 있어서는 일본 천태종조 최정의 뜻은 구원본지의 석가모니세존으로부터의 직계를 보이기 위한것이다. 다음 역주상승은 지나의 천태계의 시발은 나집(羅什)에 있는 것을 밝힌 것이며, 구사상승은 남악, 천태의 선가(禪家)의 종합적사상을 밝히는데 각각의 그 특색을 가진다. 다시 이것을 환연하면, 용수를 조사로해서 일어나, 중엽 나집삼장을 통해 그의 법문은 인도로부터 지나에 전역 되었다. 그리하여 드디어 천태종의 성립과정을 밝게 된 것이다.³⁾ 입조상승론은 천태사상의 원류를 연구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작업이며, 시마지 다이도우(島地大等)의 『天台教學史』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摩訶止觀』一권 上에 「南岳事文禪師」라고 되어 있고, 또한 「文師用心一依釋論」이라고 하는 문장이 있다. 석론(釋論)이라고 하는 것은 『大智度論』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사상승(今師相承)은 천태교학연구에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다. 남악과천태(南岳·天台)가 『大智度論』을 중시한 것은 그의 사상및 저작에 의해서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大智度論』의 연구는 천태교학의 원류를 규명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다.

2) 安藤俊雄 『天台學』(根本思想とその展開) pp.8~14 참조.

3) 島地大等 『天台教學史』(昭和 61년 3월 발행, 隆文館) pp.215~222 참조.

2.1.1. 용수의 교학

용수의 교학은, 구마라집(鳩摩羅什)의 번역을 통해서 중국에 전해져, 그 전승(傳承)은 두종류의 조류가 되어서 전개 되었다. 그 제1의 조류는, 삼론종(三論宗) 계통으로 받아 들여져, 반야개공(般若皆空)의 소극적인 실상론(實相論)이 중심을 이루 었다. 여기에 대하여 제2의 조류는, 북제의 혜문(北齊慧文), 북위의 남악혜사(南岳慧思)로 이어져 천태대사 지의에 의하여, 대성되어 중도실상(中道實相)의 적극적 실상론(實相論)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⁴⁾ 즉 이 양 교학 이해의 골자를 이루는 것이 제법실상(諸法實相)이라고 하는 용어의 해석이다. 이 제법실상론의 근원은, 중론(中論)과 지도론(智度論)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구마라집에 의해 번역된 『智度論』의 범문(梵文) 원전은 지금까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나집역 『中論』이나 『法華經』의 범본에 의지하여, 나집의 제법실상에 대한 해석의 의미를 견출해 낼 수 있는 것이다.⁵⁾

용수의 저작은, 대개 천부에 달한다고 하지만 대체로 천태교학과 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대지도론백권(大智度論百卷), 중관론4권(中觀論四卷), 십주비바사론17권(十住毘婆沙論十七卷), 십이문론1권(十二門論一卷)의 4부로서, 모두 구마라집에 의하여 한역 되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중관론과 지도론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중관론과 지도론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먼저 제 학자들의 용수교학에 대한 골자를 읽어 둘 필요가 있다. 때문에 여기에서는 사토 데즈에이(佐藤哲英)博士의 『續·天台大師の研究』에서 천태교학과 관계가 있는 부분이 잘 정리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4) 『中論』의 본願에서는, 觀法品에 諸法實相의 용어가 四回 정도 나타나고 있다. 즉 諸法實相이라고 하는 것은, 言亡慮絶, 心行處滅의 경지로서 四句分別을 뛰어넘은 空 不可得의 경지를 가르키고 있다. 여기에 대하여 智度論에도 中論과 같이 諸法實相이 空不可得의 의미로 쓰여 지고 있는 곳이 지극히 많다.

따라서 중국에 있어서 삼론교계는 諸法實相을 空이라고 이해 했다. 그런데 지도론에 있어서 諸法實相의 意義를 하나 하나 검토하면 「諸法實相是中道」(99권), 또는 「諸法實相是佛」이라고 하여 분명히 적극적인 中道實相의 사상으로 나아 가고 있다. (佐藤哲英 『續·天台大師の研究』 p.53 참조)

5) 佐藤哲英 『續·天台大師の研究』(pp.54~71 鳩摩羅什における諸法實相).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중론(中觀論 또는 中論, 나가르주나 150-250)

일체의 대립과 집착을 여이는 것을 대승불교에서는 공(空)이라고 표현하며, 이 공의 철학을 자세히 설하고 있는 곳은 용수의 저작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중론에 있어서는 「不生亦不滅, 不常亦不斷, 不一亦不異, 不來亦不去」라는 팔불중도(八不中道)를 설하고 있다. 즉 용수의 공(空)은 有에 대한 無가 아닌 有無를 지양 통일 시킨 것을 공이라고 말한 것이기 때문에, 온갖 분별을 여인 경지이다. 따라서 온갖 집착성을 生.滅.斷.常.一.異.去.來의 팔부분으로 정리하여 이 팔부분을 각각 부정해 가는것이 팔불중도(八不中道)의 정관이라고 했다. 원시불교에서 불타는 십이인연(十二因緣)을 어떻게 관하며, 또한 무엇때문에 사제(四諦), 팔정도(八正道)를 설한 것일까, 그것은 모든 집착을 여인 비고비락(非苦非樂)의 중도의 이치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初轉法輪と中道思想』 p.12) 이렇게 불타의 진의를 이해한 것이 용수의 팔불중도(八不中道)의 의미이다. 따라서 용수에 있어서는 파사(破邪)의 팔불(八不) 그대로가 현정(顯正)의 중도이며, 이 파사즉현정(破邪即顯正)이야말로 일대불교의 진생명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며, 또한 용수의 예리한 비판 아래 불교는 신생명을 개현하게 되고, 대승의 특색을 발휘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중론의 팔불중도설은 중국불교로 전개 되자, 천태의 즉공즉가즉중(即空即假即中)의 삼제중도설(三諦中道說)로 결실을 보게 된다. 즉 불타석존의 초전법륜에서 설하신 중도사상 이야 말로 원시불교에 있어서도, 부파불교에 있어서도, 대승불교에 있어서도, 이러한 중도사상이 근본이념이 되어 전개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p.20) 즉 중론에 있어서의 공(空)의 뜻은 여러가지의 용례가 보이지만, 실제의 경지는 유(有)라고도, 공(空)이라고도, 역유역공(亦有亦空)이라고도, 비유비공(非有非空)이라고도,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절대(絕對)의 경지(境地)를 제법실상(諸法實相)으로 표현 한 것이 용수(龍樹)였다. 『중론』에서 말하는 제법실상(諸法實相)은, 아(我)와 비아(非我), 공(空)과 불공(不空), 일과이(一異), 유변과무변(有邊과無邊), 이라고 하는 온갖 대립을 초월한 경지이

고, 『法華經』방편품의 표현을 빌린다면 「唯佛與佛乃能究盡」의 경지이다.⁶⁾ 따라서 우리들도 이러한 경지를 체험하여 알게 된다면, 지금까지의 허망의 세계라고 버려져 왔던 현상계(現象界) 그대로가 실상(實相)의 경지(境地)로 통일 되어 간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中論』 「觀涅槃品第十九」에, 現象(世間)과 實在(涅槃)의 관계를 설하고 있다. 즉 세간과 열반의 관계가 둘이면서 둘이 아닌(二而不二)것을 상세히 논증(論證)해서 생사(生死)와 열반(涅槃)을 상즉불이(相即不二)라고 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사상은, 이윽고 천태에 이르러서는, 사바 즉 적광토(娑婆即寂光土)라고 하는 불토관(佛土觀)으로까지 이어진다. 따라서, 제법실상(諸法即實相), 현상 즉 실재(現象即實在)의 사상은, 중론에서 그 근원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천태종의 금사상승(今師相承)의 제2조인 혜문(慧文)은 『中論』의 삼제계(三諦偈)와 『대지도론』 제27권의 「三智實在—心中得」의 문에 의해서, 삼제삼관(三諦三觀)의 법문을 용수(龍樹)로 부터 전수라고 전하고 있다. 따라서 천태종에서는 이 삼제계(三諦偈)를 특히 중시하고, 그 계문「因緣所生法, 我說即是空, 亦爲是假名, 亦是中道義」⁷⁾을 채택하고 있다. 즉 천태종에서는 삼제원융(三諦圓融)의 교리(教理)나, 일심삼관(一心三觀)의 관법(觀法)의 기초가 되는 공·가·중(空·假·中)의 문자가 본계(本偈)에 나타 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천태교학의 기본이 여기에 있다고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中論』에서의 삼제계의 위치를 살펴보면, 불타석존(佛陀釋尊)의 근본불교(根本佛教)는, 연기(緣起) 사상이 근저를 이루고 있다고 일컬어 지고 있다. 그런데 이 연기를 인연생기(因緣生起)의 뜻으로 해석하여, 시간적으로 삼세양중(三世兩重)의 십이인연(十二因緣)을 설하고 있는것이 소위 소승불교의 연기설이라고 하는바, 반면 『中論』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것을 공간적(空間的)으로 보아,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물은 다른 모든 사물과 서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사물상호(事物相互)의 상의관계(相依關係)를 논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상론(實相論)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원

6) 大正藏 九卷·五下

7) 『中論』의 「觀四諦品」, 第十八偈는 古來天台宗에서 「三諦偈」라고 일컬어진다. (佐藤哲英 『續·天台大師の研究』 p.42)

시불교의 무아사상(無我思想)은, 상일주제(常一主宰)하고 있는 실체아(實體我)를 부정하는 입장으로, 모든 사물은 서로 상관관계로 이어져있기 때문에 따로이 혼자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연기의 사상과 그 의미가 동일한 것이었다. 따라서 원시불교(原始佛教)의 무아사상(無我思想)이 대승불교에 이르러서, 아법이공(我法二空)의 주장으로 전개한 것처럼, 상의상자(相資相依)의 연기설도 당연히 모든 사물은 무자성개공(無自性皆空)으로 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원시불교(原始佛教)로부터 대승불교(大乘佛教)에의 사상전개를 보인 것이 「因緣所生法, 我說即是空」의 전이구(前二句)이다.

그런데 연기법(緣起法)이 공이라고 하는 공은, 필경불가득(畢竟不可得)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실유(實有)에 대한 부정(否定)이기 때문에, 실공(實空)이라고 고집하기 쉽다.

여기에 대하여 「我說即是空」이라고 해도, 원래 공이라고 하는 것은 방편가설(方便假說)의 수단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제삼구에는 「亦爲是假名」이라 한 것이다. 즉 실유(實有)를 부정하는 非有(空)와 마찬가지로, 실공(實空)을 부정하는 非空을 보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중의 부정으로, 유소득(有所得)의 미정(迷情)을 다 떨쳐 버리게 된다면, 중도실상(中道實相)의 경지(境地)가 저절로 나타 나서 지금까지 부정되었던 제법(諸法)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것을 『般若經』에서는 「假名을壞하지 않고 제법을 건립 한다」라고도, 「眞際를 움직이지 않고 實相을 편다」라고 말하지만(p.43), 『中論』에서는 제삼구에 「亦是中道義」라고 설하고 있는 것이다.⁸⁾

이와같이 천태교학(天台敎學)의 삼제계(三諦偈)의 원류사상을, 『中論』의 「觀四諦品」의 18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을 『續·天台大師の研究』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② 대지도론(大智度論)

용수의 『대지도론』 백권은 『마하반야바라밀경』(摩訶般若波羅蜜經) 구십

품(九十品)의 주석서이다.

그리고 대품반야(大品般若)의 경문(經文)을 해석함에 있어서 불교상(佛教上)의 모든 명목(名目)이나 술어를 해석하고, 또한 소승불교(小乘佛教)의 모든사상을 비판함과 동시에, 대승불교 특유의 반야개공(般若皆空)의 사상을 강조하고, 스스로 웅대한 대소승의 제경론을 인용하여 그 사상을 소개하는 등, 일종의 불교백과사전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 조직은, 제일 연기의편(緣起義篇), 제이 석초품편(釋初品篇), 제삼 석반야편(釋般若篇), 제사 석방편편(釋方便篇)의 4편으로 보고 있다.

제일 연기의편(緣起義篇)은, 제1권의 전반으로서, 본론을 저술하기 위한 인유인연(因由因緣)을 술한 일단 이다. 반야경(般若經)의 진수(眞髓)가 제법실상(諸法實相)인 것을 보이고 있다.(國譯一切經 論部, 1, 23)

제이 석초품편(釋初品篇)은 제1권 후반으로부터 제34권까지로, 경의 초품에있어서, 문문구구를 상세하게 해석하면서, 아법이공(我法二空)의 사상을 강조한 부분으로, 본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제삼 석반야편(釋般若篇)은, 『大品般若』의 제2품으로부터 측루품(瞿曇品)까지의 반야를 칭송하는 부분의 해석으로, 35권으로 부터 제79권까지 이다.

제사 석방편편(釋方便篇)은, 대품반야(大品般若)의 무진방편품(無盡方便品) 제67로부터 제90품까지의 방편을 칭송하는 부분의 해석으로, 제80권부터 100권까지 이다.

즉 『대지도론』은 제법개공(諸法皆空)의 사상상에서 만유를 안립하여, 생사(生死)를 여이고 열반(涅槃)으로 나아감을 보인 것이다. 방법의 대강요령(大綱要領)은 소위 6바라밀의 수행에 있다고 하지만, 특히 그 속에서도 반야바라밀(般若波羅蜜)을 가지고 중요부분으로 하고 있다.

지도론의 제백권에(國譯一切經論部, 4·779) 용수(龍樹)는, 대승불교(大乘佛教)의 보살의 실천도를 반야도(般若道)와 방편도(方便道)로 나누고 있다. 여기에서 반야바라밀(般若波羅蜜)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제법(一切諸法)의 실상(實相)이라고 하여, 반야와 실상을 동의어로 보고 있다.(국역일체경은부, 2, 713) 따라서 능관(能觀)의 반야와 소관(所觀)의 실상과는 능소불이(能所不二)이기 때문에 「法이라는것은 즉 반야바라밀(般若波羅蜜)이며」⁹⁾

8) 佐藤哲英 『續·天台大師の研究』(pp.42~43)

반야바라밀은 삼장(三藏)의 근본(根本)이 된다.¹⁰⁾ 「般若는佛道の 根本이며」¹¹⁾ 「般若는諸佛의 師이다」¹²⁾ 라고 하여, 진공(眞空)을 관하는 도가 반야도라고 하고 있다. 즉 반야바라밀은 이변(常滅)을 떠나서 중도(中道)를 설하는 것이다. 공이라고 말하지만 또한 공(空)에도 착(執着)하지 않기 때문에 죄와복을 설하고, 죄와복을 설하지만 항상 사견(邪見)을 생하지 않는다. 즉 반야(般若)와 실상(實相)을 능소불이(能所不二)로 하고, 그위에 이것을 중도(中道)라고 한것에 용수 독자의 견해를 볼수가 있는 것이다.¹³⁾

다음 방편에 대해서 용수는, 두가지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즉 반야에 대한 방편, 진실지에 대한 방편지(權智)의 의미이다. 제법실상(諸法實相) 즉 진공(眞空)의 리(理)에 달하려고 하는 향상적일로(向上一路)와, 일체중생을 구제하려고 하는 향하적일로(向下一路)가 있다고 하여, 이것을 반야도(般若道)와 방편도(方便道)라고 부르고 있다. 제법실상을 체득하려고 하는 보살은, 일체중생구제(一切衆生救濟)의 대서원(大誓願)을 일으켜서, 자비의 활동을 전개 한다. 이때의 방편은 보살의 자비이고, 중생에게 복덕(福德)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방편은 곧 지혜이며 방편은 반야바라밀(般若波羅蜜)이다.(第85卷) 그리고 반야와 방편은 본래 하나이다. 라고 하고 있다.(般若에 대한 方便)¹⁴⁾

다음은 방편(方便)을 진실지(眞實智)에 대한 권지(權智)라고 해석하는 면에서는, 제법실상(諸法實相)을 수행(體認)하는 보살은, 실상(實相)을 단지 자각내용(自覺內容)으로서 가짐에 그치지 않고, 이것을 어떤 형태로 현현(顯現)시켜 여기에 실상은 권가(權假)의 형태를 취하여 상대계(相對界)로 현현(顯現)한다. 라고 하는 의미이다. 즉 제법은 필경공(畢竟空)이라고 하지만, 중생(衆生)이 깊이 집착하여 알지 못한다. 이런 상태에 만약 방편력(方便力)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즉 제도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의미이다.¹⁵⁾

9) 大智度論 70권 (大正藏 25, 550 B)
10) 大智度論 68권 (大正藏 25권, 536 A)
11) 大智度論 56권 (大正藏 25, 459 B)
12) 大智度論 100권 (大正藏 25, 755 A)
13) 國譯一切經論部 2, (P 723)
14) 智度論백권 (大正藏 25 754 C)

그런데 보살의 구체적 활동은 중생의 구제이지만 중생의구제는 비심(悲心)에서 나타난다. 구체해야만 하는 중생을, 중생으로서 인식하는 것은 공심(空心)이다. 따라서 반야의 공심(空心)이 없으면 중생의 구제는 불가능하고, 여기에 비(悲)와 지(智)가 서로 어우러져 보살도(菩薩道)의 구체상(具體相)이 현현(顯現)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대지도론』 11권에서 18권까지는 육바라밀에 대하여 상설하고 있다. 즉 제15권에는, 육바라밀의 전5(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를 복덕문(福德門), 제육의 반야바라밀(般若波羅蜜)은 지혜문(智慧門)이라고 하고 있다.¹⁶⁾ 이와같이 육바라밀을 양문으로 나누고 있지만 보살도(菩薩道)의 구경목적(究竟目的)은, 일체중생을 구제하면서 제법실상을 관하여 일체종지(一切種智)를 얻어 불도(佛陀의 正覺)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즉 용수는 대지도론에서 능관(能觀)의 반야(般若)에 대한 소관(所觀)의 경(境)을 제법실상(諸法實相)으로 보고 있다. 대지도론에 있어서, 제법실상의 용어는 수처에 보이지만, 실상의 경지(境地)는 절대긍정(絕對肯定)의 세계를 가르치는 것이고, 그 경지(境地) 또한 중도(中道)이며, 佛이라고 하는 적극적인 견해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¹⁷⁾ 그리고 용수는, 如·法性·實際의 세종류를 들어서 제법실상의 이명(異名)으로서 대지도론 32권에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¹⁸⁾ 즉 이 삼명(여, 법성, 실제)의 해석을 통해서 용수의 제법실상에 대한 견해를 본다면 두가지로 나눌수가 있다. 제일 견해는 제법실상의 경지(境地)는, 언어도단(言語道斷)심행처멸(心行處滅)의 경지로서 여(如), 법성(法性), 진제(眞際)라 한다 해도, 필경불가득(畢竟不可得)의 경지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제이의 견해는, 제법실상을 직관하는 그 관력(觀力)에 의해서 여, 법성, 실제의 이명(異名)을 생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 관력의 힘이 나아감에 따라서 그 명칭도 여(如)로 부터 법성으로, 법성(法性)으로 부터 실제(實際)에로 변해 간다고 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용수의 제법실상의 경지는, 일면에 있어서는 활동(活動)의 세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15) 大智度論 82권 (大正藏 25, 636 C)
16) 大智度論 15권 (大正藏 25, 172 B)
17) 大智度論 99권 (大正藏 25, 747 A)
18) 大智度論 32권 (大正藏 25, 299 A)

중국의 천태교학(天台敎學)이 이것을 삼제원융(三諦圓融)의 중도실상(中道實相)이라고 말함은, 이 또한 용수교학의 전개(展開)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¹⁹⁾

2.1.2. 혜 문(慧文)

금사상승(今師相承)의 제2조는 혜문(慧文)으로서, 남악혜사(南岳慧思)의 스승이다. 그러나 혜문에 관한 기록은 거의 찾아 보기 힘들며, 『摩訶止觀』 및 『唐高僧傳』에 다소 보일 뿐이다. 『摩訶止觀』에 「文師用心一依釋論」이라고 하는 기록에 의해, 혜문이 『大智度論』을 소의(所依)로 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佐藤哲英博士에 의하면 『大智度論』의 「三智實在一心中得」의 문을 직접 가르킨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북(河北)의 땅에서 유행한 사론파(四論派)의 영향을 받아 『大智度論』을 중시하는 학풍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는가, 라고 하는 설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또한 『唐高僧傳』에서는, 혜사(慧思)가 그에게 사사(師事)해서 법화삼매(法華三昧)를 성취했다고 할 뿐이다. 대지도론이라고 하면, 대품반야경(大品般若經)을 해석한 논이다. 그러나 이 논(論)에서는, 대품반야경(大品般若經) 이외에 대소승(大小乘)의 경론(經論)을 인용하고 있고, 특히 법화경(法華經)에는 자주 설하고 있다. 또한 용수의 사상에 적극적인 실상론(實相論)이나 또는 삼지일심(三智一心論)을, 혜문(慧文)이 중론(中論)의 사제계(四諦偈)와 결부 시켜서 일심삼관(一心三觀)의 법문을 창설한 것은 아닐까, 또는 법화삼매(法華三昧)를 제창한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설도 있지만, 이것은 어디 까지나 가설로서 단정할 수 는 없는 것이다.²⁰⁾

2.1.3. 남악혜사(南岳慧思)

다음 금사상승(今師相承) 제3조는, 남악혜사(南岳慧思, AD.515-577)이다. 그는 지의의 스승으로서, 천태교학(天台敎學)의 성립에 중대한 영향을

19) 佐藤哲英『續·天台大師の研究』(昭和 56年 11月, 百華苑 發行) pp.35~53
島地大等『天台敎學史』(昭和 61年 3月, 隆文館 發行) pp.222~233 참조.

20) 島地大等『天台敎學史』(p.248)

끼친 인물이다. 혜사(慧思)의 활약기는 북위(北魏)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동위·북제(東魏·北齊)의 시대로, 중국 역사상 제일 혼란한 남북조(南北朝) 시대이다. 따라서 항쟁과 혼란속에 살아간 남악혜사(南岳慧思)에 관한 연구는, 현시점에서 볼때 재조명 될만한 의미 깊은 연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천태교학의 중심교의(中心敎義)에 이르는, 형성과정(形成過程)의 연구에 있어서는, 빠뜨릴 수 없는 연구분야이다.

먼저 혜사(慧思)의 연구에 있어서, 이미 그 업적을 학계에서 인정 받고 있는 佐藤哲英『續·天台大師の研究』를 참조하면서, 혜사연구에 대한 방향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혜사가 태어난 남북조(南北朝) 후기의 정치사의 동향(動向)과 불교학풍(佛敎學風)을 연구함에 있어서, 혜사의 불교사상을 바르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이다. 이 연구에 있어서는, 横超慧日編『北魏佛敎の研究』, 塚本善隆著『中國佛敎通史』, 佐藤成順『中國佛敎思想史の研究』, 鎌田茂雄『中國佛敎史』4·5권 등이 있다.

둘째는, 혜사(慧思)의 전기(傳記)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들 수 있다. 즉 전기를 정확하게 파악함에 의해서 혜사의 불교사상의 특색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續高僧傳』, 『佛祖統紀』, 南岳慧思著『入誓願文』등이 있다.

셋째는, 저작에 관한 문제이다. 저작의 성립차제, 성립 연대를 바르게 파악함에 있어서 혜사의 사상교학을 바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혜사의 저작에 관해서는, 龍谷대학의 佐藤哲英박사에 의하여, 이미 그 성과는 학계에 인정을 받고 있으나, 진찬, 위찬(眞撰, 僞撰)의 문제가 아직도 남아 있는 실정이다.

넷째, 혜사와 지의와의 사상관련의 문제를 들 수 있다. 혜문(慧文)으로부터 혜사까지의 전승이, 법화삼매(法華三昧)라고 하는 것은 『續高僧傳』에 기록 되어져 있는 것이고, 혜사로 부터 지의에 이르는 전승 또한 법화삼매라고 하는 것은 관정(灌頂)의 『天台大師別傳』에 의하여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천태의 화법사교의(化法四敎判)의 藏·通·圓의 三敎에 대해서는, 남악혜사의 『法華經安樂行義』²¹⁾에 그 선구사상이 보이고 있다. 그리고 보살의 수행차제도(修行次第道)를 보인 별교(別敎)의 사상은, 중국에서 일찌기 산

질된 혜사의 저작『四十二字門』이 자각대사(慈覺大師)²²⁾에 의해 일본에 전하여져, 寶地房證眞²³⁾『三大部私記』에 자주 인용되고 있는 점과, 그리고 그의 저작『四十二字門略抄』의 발견에 의해, 남악혜사의 보살행위론(菩薩行爲論)이 파악되었다. 따라서 천태대사의 행위론의 영향을 알 수 있게 된것은, 佐藤哲英博士의 학문의 성과로서 실증되었다²⁴⁾.

다섯째, 혜사의 불교관 내지 불교사상의 특색으로서, 법화경의 돈각사상(頓覺思想)연구를 들 수 있다. 이 문제는 혜사의 저작인『法華經安樂行義』에 잘 나타나 있다. 혜사는 법화경을 가지고 주로 보살의 실천행을 구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전이라 생각하여, 특히 安樂行品을 중시하고 법화경 안락행의(法華經安樂行義)²⁵⁾를 설한 것이다.

여섯째, 혜사의 신선사상(神仙思想)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혜사의 신선사상에 대한 것은 그의 저서『入誓願文』²⁶⁾에 잘 나타나 있다. 혜사의 만년은, 영험의 행자라고 알려져 있다. 혜사가 어떤 목적에 의하여 신통력을 원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연구도 혜사의 개성을 잘 알 수 있는 흥미 있는 연구분야 이다²⁷⁾.

상기(上記)와 같이 남악혜사에 대한 연구는 천태교학의 연구에도, 반드시 필요한 분야이다. 그러나 혜사에 관한 자료는, 혼란한 남북조시대(南北朝時代)이기 때문에 거의 산실되고, 현존하는 혜사의 저서에 의존하고 있다. 혜사의 현존 저서는,

『法華經安樂行義』一卷・『諸法無諍三昧法門』二卷・『隨自意三昧』一卷・『入誓願文』一卷・『受菩薩戒儀』一卷・『大乘止觀法門』등이 있다.

21) 大正藏 46권 (諸宗部 3, p.697)

22) 자각대사(慈覺大師) 延曆寺 第三代 座主. 圓仁(엔닌)의 謚號.

23) 寶地房證眞: 平安後期 鎌倉 초기의 천태종의 학승으로서, 생몰연대는 不詳이다. 휘는 證進이며, 師인 隆慧·永弁에게 惠檀二流의 천태교학을 받아, 寶處院에서 大藏經의 열람에 몰두하여 源平의 爭亂마저 몰랐다고 한다. 東塔 華王院에 강석을 시설하고, 寶地房에서 저술에 전념. 1186년 山城 大原 勝林院에서, 源空의 淨土教義를 듣고, 圓頓戒를 받았다고 한다. 1204년 天台座主 慈圓에게 나아가, 安居를 復興 했다. 저서로서는, 三大部私記三十권, 涅槃論疏義鈔 4권, 智度論私記 2권, 金毘論私記 1권 등, 다수가 있다.

24) 佐藤哲英著『續·天台大師の研究』(pp.140~240)

25) 大正藏 46권 (諸宗部 3, p.697)

26) 大正藏 46권 (諸宗部 3, p.786)

27) 佐藤哲英著『續·天台大師の研究』p.140~145.

이 중에서도 『受菩薩戒儀』²⁸⁾와 『大乘止觀法門』²⁹⁾은 진찬 위찬(眞撰 僞撰)의 문제가 남아 있다. 혜사는 般若·法華 양 경을 같이 존중하여, 보통 반야경(般若經)을 불교의 이론부분, 법화경(法華經)을 실천법문을 대표하는 구경(究竟)의 경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혜사의 법화사상이 가장 체계 있게 실하여져 있는 것은, 『法華經安樂行義』이다. 이것은 무상행(無相行)인 4종(四種)의 안락행(安樂行)을 보살행의 규범(規範)으로서 실시한 것을 주제로 하고 있다. 즉 이것은 교관이문(教觀二門)의 법화지상주의를 완성한 천태교학의 전 단계로서(前階)로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다음 『諸法無諍三昧法門』에서 「無諍」이라고 하는 것은 공(空)의 의미로서, 본서(本書)는 諸法皆空三昧의 法門이라고 하는 의미이다. 따라서 본서는 반야개공 사상의 실천을 강조한 것이지만, 반야개공의 일변도가 아니고, 법화사상, 화엄사상의 혼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서의 하권에는 「4념처관(四念處觀)」이 구체적으로 실해져 있다. 즉 신념처관(身念處觀), 수념처관(受念處觀), 심념처관(心念處觀), 법념처관(法念處觀)의 4종류의 관법을, 보살의 실천수행방법(實踐修行方法)으로서 제시한 것이다.

『隨自意三昧』³⁰⁾는, 行·住·坐·眠·食·語의 6위의(六威儀)에 대해서, 보살의 좌선수행상의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 하고 있다. 이상으로 『隨自意三昧』, 『諸法無諍三昧法門』, 『法華經安樂行義』는, 혜사 저작의 삼대부라고 일컬어 진다. 혜사의 저작을 통해서 그의 학문의 태도를 본다면, 재래의 학자들이 행한 주석학적(註釋學的) 연구가 아니고, 법화경의 교상과 관심을 솔직 간명하게 실시한 것이다. 따라서 천태지주의 소위 법화경의 현의(玄義)및 지관(止觀)을 명확하게 체계 지운 그 원류를, 남악혜사의 교학에서 찾아 볼 수 있기 때문 이다. 그러나 혜사는 완전한 법화 지상주의

28) 『受菩薩戒儀』에 대해서는 『大唐內典錄』이외에 혜사의 저작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傳敎大師의 『大州錄』에는 「受菩薩戒文 一卷 七紙」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中唐時代에는 이미 본서가 존재하고 최경에 의해서 일본국으로 傳來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본서는 『大日本續藏經』 제 2편 제 10 套의 戒律宗 著述部の 처음에 수록 되어 있다. 首題는 「受菩薩戒儀」 撰號는 「南岳 沙門 釋慧思撰」이라고 되어 있다.

29) 『大乘止觀法門』(大正藏 46권 諸宗部 3, p.641)

30) 『隨自意三昧』(日 續藏經 2·3·4)

를 확립함에는 이르지 못하고, 다만 성불을 위한 실천 수행 방법을 설하는 점에서, 법화경이 최고 구경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교·관 2문의 법화지상주의를 완성한 천태교학의 짝이, 이미 남악혜사의 사상중에 배태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천태사상의 형성사상(形成史上)에서 볼때, 남악혜사의 연구는 중요한 연구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남악혜사에 관한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다.

- 1) 島地大等『天台教學史』 (昭和 61·3 第1版 東京·隆文館)
- 2) 鹽田義遠『法華教學史の研究』 (昭和 53·1, 東京 誠進社)
- 3) 安藤俊雄『天台學』 (1968 6月, 1982 8月 第6刷, 京都 平樂寺書店)
- 4) 玉城康四郎『心把握の展開』 (昭和 36 3月, 平成元年 2月 第3刷, 東京·山喜房佛書林)
- 5) 佐藤哲英『續·天台大師の研究』 (昭和 56年 11月, 京都·百華苑)
- 6) 多田厚隆先生頌壽記念『天台教學の研究』 (平成 2年 3月, 東京·山喜房佛書林)

3. 天台智顗의 저작

3.1. 佐藤哲英『天台大師の研究』에서의 천태의 저작.

지의의 저작에 관해서는, 성립사적인 측면에서의 연구로 학계에 이미 그 성과를 인정 받고 있는 佐藤哲英博士의 『天台大師の研究』에서 자세히 설명하고있다.

박사의 『天台大師の研究』는 같은 『叡山淨土教の研究』와함께 학구생활 오십년간의 결산이라고 까지 하고있을 정도의 책이다.(저자의 서문에서) 이 『天台大師の研究』는 천태대사의 전 저작을

- 제1절 친찬(親撰)·진설(眞說)·가탁(假托)의 세분류
- 제2절 수대(隋代)의 문헌(文獻)에 보이는 저작
- 제3절 초당(初唐)의 문헌에 보이는 저작
- 제4절 중당(中唐)의 문헌에 보이는 저작
- 제5절 장래목록(將來目錄)에 보이는 저작
- 제6절 송대(宋代)의 문헌에 보이는 저작
- 제7절 지의저작의 분류와 궐본서목(闕本書目)

등으로 나누어 지의의 저작을 개관(概觀)하고 있다. 그리고 문헌학적인 연구 방법으로, 하나하나의 저작에 관한 기초적 연구로서 천태대사의 생애를 전후 2기로 나누어 이들의 저작을 전기시대와 후기시대로 배열한 것이다. 그런데 박사는 이 연구성과를 통해서 종전의 학설과는 달리, 천태대사의 강설이 현행본이 되기까지는 문인인 관정(灌頂)이 강의를 듣고, 정리, 기록 그리고 고쳐만든(聽記·整理·修治)것이기 때문에 문인 관정(灌頂)의 사견(私見)이 첨부 되어 있음을 입증했다. 문제는 천태대사가 전기(前期)보다 후기(後期)의 훌륭한 사상 진전이 있음을 인정하여 스승(師匠)과 제자의 사상 차이에서 오는 문제를 제기 시킨 것이다. 즉 『摩訶止觀』의 一念三千說과 『觀音玄義』의 성악설(性惡說)을 천태 문하인 관정에 의하여 발휘된 학설이라고 종래의 없었던 학설을 제시하여 학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던 문제작 이기도 하다. 『觀音玄義』가 지의의 저작이 아니고 관정의 찬술이라고 하는데서 문제의 발단은 시작된다. 佐藤박사가 엄밀주도한 원전비평과 절대 노력의 기울여서 지의의 저작과 관정의 저작을 구별한것은 천태학 연구에 있어서 큰 수확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의사상과 관정의 사상 에서 오는 문제가 또한 당연히 대두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종래의 천태교학 연구자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일이었던 것이다. 그러면 佐藤哲英박사의 『天台大師の研究』의 저작에 관한부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1편은 천태지의의 생애와 저작이다.

이것은 천태지의가 어떠한 시대에 태어나 어떠한 생애를 보내고 어느 정도의 저작을 남기고 있는가를 개관(概觀)한 것이다.(pp.1~88)

제2편은 전기시대의 저작연구이다.

次第禪門·法華三昧懺儀·六妙法門·覺意三昧·方等三昧行法·小止觀·法界次第初門·禪門口訣등의 研究이다. (pp.91~99)

제3편은 천태삼대부(天台三大部)의 연구로서 法華玄義·法華文句·摩訶止觀에 관한 연구이다. 삼대부(三大部)는 천태학 연구의 가장 중요한 문헌으로서, 현행의 삼대부의 성립과정을 규명하여, 문인 관정의 첨삭(添削)이 있었음을 밝히고, 마하지관의 사종삼매(四種三昧)의 행법준비와 일념삼천설(一念三千說)의 완성을 오히려 관정의 공적에 돌리고 있다. (pp.291~338)

제4편은 경소(經疏)의 연구로서 維摩經疏·金剛明經疏·觀音經疏·請觀音經疏·仁王經疏에 관한 연구이다. 지의 만년시대의 찬술인 『維摩經疏』는 삼대부에 지지 않는 자료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觀音經疏』와 『請觀音經疏』는 지의의 다른 저서(他著)에서는 볼 수 없는 성악법문(性惡法門)이 실려 있는 곳으로서, 이 양소(兩疏)는 지의의 찬술이 아니고 관정의 찬술임을 입증했다. (pp.401~553)

제5편은 정토 관계 저작의 연구이다. 여기에서는 觀經疏·阿彌陀經義記·淨土十疑論·五方便念佛門등이다. 이러한 저작은 진위(眞僞)문제로 학계를 뒤흔든 문제로서 이 또한 관정(灌頂)이후 담연(湛然)에 이르기까지의 성립으로 보아 지의의 진찬이 아니라고 단정한 것이다. (pp.644~657)

다음 친찬·진설·가탁서를 살펴보자.

㉠ 親撰… 지의의 저작으로서 현존 하는 것은, 총46부 188권이며, 결본(缺本)도 28부에 달한다. 그중에서도 지의의 친찬(지의가 직접 필을 들고 찬술했다고 하는것)에 속하는 것은, 지의 만년시대에 晉王廣의 의뢰(依囑)를 받아 찬술한 『淨名玄義』十卷이 유명하다. 그외에 준식(遵式)의 『天台教觀目錄』에 의하면 法界次第, 法華三昧懺儀, 方等懺法, 覺意三昧의 4부를 친찬으로 보고 있다.

㉡ 眞說… 지의 자신이 강(講)한 것을 문인이 필록 한 것이다. 지의의 최만년의 저작인 淨名經疏三十一卷, 觀心論一卷, 次第禪門은 여기에 속한다.

㉢ 假托書… 지의의 저작에 준(擬)하면서 실은 후인의 필인것을 말 한다. 여기에는 위작과 또는 지의의 저작에 후인의 저작이 혼입된 것이다.

이것을 佐藤哲英박사는 觀音玄義및 義疏, 請觀音經疏, 四念處등을 관정(灌頂)의 저작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3.2. 島地大等の『天台教學史』³¹⁾에 보이는 지의의 저작.

천태교학사에서는 천태지의의 저술로서 전해 지고 있는 것을 대략 57부 170여권으로 보고, 그 중에서도 고래(古來) 진위론(眞僞論)이 남아 있지만, 간략히 세종류를 가지고 대별 하고 있다. 즉 주석류(註釋類), 관심문(觀心門)에 속하는 저술(著述), 특수(特許)의 저작등으로 나누고 있다.

3.2.1. 주석류(註釋類)

주석류(註釋類)라고 하는것은, 반야(般若) 사상에 속하는 것이다. 즉 제법실상론적(諸法實相論的) 견해에 입각한 라집계(羅什系)의 모든 대승경(諸大乘經)을 주석한 것을 말한다.

- ① 法華經의 註解
- ② 別行經의 註解
- ③ 金光明經의 註解
- ④ 金剛般若經의 註解
- ⑤ 仁王般若經의 註解
- ⑥ 維摩經의 註解
- ⑦ 彌勒經의 註解
- ⑧ 梵網菩薩戒經의 註解
- ⑨ 觀無量壽經의 註解
- ⑩ 阿彌陀經의 註解

이들의 주해(註解)는 대개 현의(玄義)와 문구(文句)가 있다. 현의는 오중(五重)으로서 총석(總釋)하고, 문구는 전자의 뜻에 의해서 문문구구(文文句句)를 상세히 해석한 것이다. 그중에서도 인연(因緣)·약교(約敎)·본적(本

31) 島地大等『天台教學史』(現代佛教名著全集 普及版, 昭和61年3月, 隆文館)

迹)·관심(觀心)의 四釋의 문구(文句) 해석은, 해석 방법으로서 최상승법임을 강조 하고 있다.

3.2.2. 관심문(觀心門)에 속하는 저술

- ① 摩訶止觀十卷
- ② 次第禪門十卷
- ③ 六妙門一卷
- ④ 小止觀一卷

관심문에 속하는 저술은 천태지자의 선법(禪法)을 밝히는 것에 속한다. 특히 『摩訶止觀』 일부는 천태지자 만년의 저술에 속하고, 지의 독특한 선법을 개설한 것이다. 그 다음의 관심문에 속하는 삼십여부의 저작은 다 이 『摩訶止觀』의 부분적 설명 일뿐이다. 다만 동일한 관심문(觀心門)의 『次第禪門』은, 남악혜사(南岳慧思)의 사상을 대부분 그대로 이어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2.3. 특수(特許)의 저작

소위 특수(特許)의 저작 가운데 특히 주목해야만 하는 것은,

- ① 法界次第初門三卷
- ② 淨土十疑論一卷

등이 있다. 다만 전자(前者)는 초학(初學)으로 하여금 법상(法相)을 알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것이지만, 그다지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후자는 지금까지 진위(眞僞)미결의 상태 이지만 정토가(淨土家)의 학자들은 이것을 진찬(眞撰)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상으로 천태지자의 저작중 거의 대부분은 존자장안(尊者章安)의 필록으로서 천태지자의 친찬서(親撰書)는 보통 다음과 같다.

- ① 方等三昧一卷

- ② 法界次第初門三卷
- ③ 法華三昧一卷
- ④ 小止觀一卷
- ⑤ 覺意三昧一卷

천태지자의 저작은 지극히 많이 있지만, 천태교학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중에서도 특히 필독서는 삼대, 오소부이며, 나머지 제서(諸書)는 다만 그 사상의 일단(一端)을 참고 할뿐 이라고 하고 있다.³²⁾

4. 천태교학의 조직

천태교학은 법화경을 근거에 두고, 교관이문(敎觀二門)으로 조직된 교학이다. 즉 『法華經』의 이론 부분을 보인 교상문(敎相門)과, 『法華經』의 실천부분을 설하는 관심문(觀心門)이 그것이다.

천태지자의 대표 저작 이라고 일컬어지는 천태 삼대부중, 『法華玄義』와 『法華文句』는, 교상문을 조직 한 것이고, 『摩訶止觀』은 법화경의 실천행규를 설하는 관심문으로 나누어 져 있다. 『法華玄義』와 『法華文句』의 교상문에 있어서도 실은 관심을 설하고 있고, 반대로 『摩訶止觀』에 있어서도 교상을 설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교설이 교상이며, 또한 어느 것이 관심의 부분인가를 분별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法華玄義』나 『法華文句』에서 설하고 있는 관심은, 행(行)을 전문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서에서는 법화경의 교상을 설하는 것이 주 목적 이다. (敎正觀傍) 여기에 대하여 『摩訶止觀』은, 오로지 법화경의 관심의 행규를 설하는 것이 주목적이며, 교상을 보이는 것이 원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摩訶止觀』을 관정교방(觀正敎傍)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천태교학의 근본체계는 교상과 관심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양자가 여일래야 여일수 없는(密接不離)관계 로서, 천태교학이 교관쌍미라고

32) 島地大等 『天台敎學史』(pp.262~263)을 정리 한것임.

일컬어 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4.1. 교상(敎相)

천태지의의 교상(敎相)상의 교의는, 석가일대의 설법을 각각 그 개성에 응해서 위치를 지워, 그들의 전체를 법화경을 핵으로 하여 관계를 지워 이해해 나가는 교판사상이라 할 수 있다. 소위 장·통·별·원(藏·通·別·圓)의 四敎에 의해서 대소권실(大小權實)의 제경(諸經)을 분류 비판하고, 돈·점·비밀·부정(頓·漸·秘密·不定)의 사교(四敎)에 의해서는, 불(佛)이 중생을 교화 제도(化導)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지명(指明)한 것이다.

이러한 천태교판의 진의(眞義)를 알기 위해서는 『法華玄義』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法華玄義』에는, 소위 삼종교상(三敎相)을 밝히며, 불 일대의 교법의 심천(深淺)을 판단하는 기준을 삼종교상으로써 정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천태지의의 교판의 중추는, 오히려 삼종교상(三敎相)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천태의 교판은, 오시팔교(五時八敎)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여래 일대의 경교(經敎)를 판석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있겠지만, 아직 법화경으로 부터 일체경을 판단하는 내용의 전부는 아니다. 법화경에 근거를 둔 판교의 의미는 삼종의 교상즉, 근성(根性)의 융불융(融不融)³³⁾, 화도(化導)의 시종불시종(始終不始終)³⁴⁾, 사제(師弟)의 원근불원근(遠近不遠近)³⁵⁾의 삼종으로 오시팔교(五時八敎)의 교판은 교상 제일의 「根性의融

33) 根性의 融不融이라고 하는 것은, 法華經 以前の 經敎는 菩薩은 불의 깨달음의 내용인 圓敎의 理에 融即하지만, 二乘(성문, 연각)에 있어서는 根이 아직 未熟하기 때문에 融即할 수 가 없다. 法華經에 와서 一切의 根性이, 다 一圓敎의 理에 응속해서 不融의 機가 없음에 이르러, 如來出世의 本懷를 이루는 것이다. (河村孝照『天台學辭典』 p.106~107)

34) 化導의 始終不始終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중생이 다 일대 원교의 理에 응속할 때, 다만 一大事因緣의 경은, 지금 석존이 처음으로 설한것이 아니고, 이미 오랜 옛날 삼천진겁의, 大通智勝佛 당시 法華 覆講을 비롯하여 중생을 성불시킨 인연을 설하는 化城喻의 說相을 말한다. (河村孝照『天台學辭典』 pp. 107).

35) 師弟의 遠近 不遠近은 壽量品에 久遠의 本師를 드러내고, 湧出品에 久遠의 弟子 菩薩 입을 나타 내어, 그 사제가 소속하는 국토를 보여, 十方의 정토는 이 본국토의 影迹,

不融」상의 판교이다. 천태는 이 제삼의 교상은 타경(他經)에서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는것이라 하여, 이것을 「諸經永異」라고도 「一向異」라고도 말하고 있다. 이와같이 불(佛)일대의 교법의 심천(深淺)을 판단하는 기준(標準)을, 천태는 삼종교상으로써 세우고 있다.

4.2. 관심(觀心)

다음 관심문(실천면)에 있어서, 『摩訶止觀』이 교시하는 종교적 실천의 기본은, 止觀이라고 불리워 지는 실천 체계이다.³⁶⁾ 즉 선정의 행으로서 지관의 법을 정리해서, 그 행법을 중심에 두고 정비한 행의 체계가 구상된 것이다. 그 체계의 기본 구조를 보면,

먼저 보리(菩提)를 구하려고 하는 견고한 의지의 발기 즉 발보리심인 것이다. 계속해서 예비적 행의 준수 즉 보리심의 확립만이 정수행(正修行)의 수습(修習)을 준비하는 조건만은 아니기 때문에 보리심을 확립하여 일상 생활의 전체에 반영 시키는 생활 태도의 규정으로서 이십오방편(二十五方便)³⁷⁾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단계까지 도달하게 되면, 깨

그리고 十方三世의 불 보살은 이 본불의 影迹인 것을 설한 것이다. (河村孝照『天台學辭典』 p.107)

36) 止觀: 「止」라고 하는 것은 산스크리트어의 譯語이고, 그 原意는 「조용해지다」, 「가라앉다」, 「마음의평정한상태」등으로 마음을 평정한 상태로 확립 시키는 행법이라고 할 수 있다. 觀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인식」, 「대상을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는 태도」로 세상의 진실 그 자체를 꿰뚫어 보아 得知 시키는 행이다. (『摩訶止觀』 佛典講座25(大藏出版) pp.14~15참조)

37) 이십오방편(二十五方便) 천태의 불도수행에는 방편행과 정수행이 있다. 장·통·별·원에 방편(方便)·정수(正修)의 이행(二行)이 있고, 방편은 바로 수행에 들어가기 전의 수단이며, 정수(正修)는 바른 교(敎)에 의해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방편에 이십오종류가 있고 정수에는 십승관법(十乘觀法)이 있다. 이 이십오방편은 止觀의 第六方便章에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것을 약설하면

- (1) 구오연(具五緣) — 도업자조(道業資助)의 연(緣)을 구비하는데 수법(受法)의 기초가 되는 것. 즉 지계청정(持戒淸淨), 의식구족(衣食具足), 한거정처(閑居靜處), 식제연무(息諸緣務), 근선지식(近善知識).
- (2) 가오욕(訶五欲) — 여기서부터는 도업(道業)의 장애를 막는 것으로, 우선 五塵의 경계(境)에 마음을 빼앗겨 樂欲을 생하여 여기에 집착하기 때문에 이것을 경책하여 착(著)을 여이는 수행이다. 가색(訶色), 가성(訶聲), 가향(訶香), 가미(訶

달음의 완성에 도달하기 위한 정수행의 수습(修習)이라고 하는 단계에 접어 들게 된다. 마음을 한곳에 집중시켜 그 유동을 조절하여, 평정한 마음이 확립 되면서(止),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실천적 태도(觀)의 행으로서 전개 하지만, 이러한 견해를, 예를 들면 관찰되어 지는 것으로서의 「제법」(所觀之境)과, 그것을 관찰 하고 포착 하는 것으로서의 지관법(能觀法)과의 관계라고 하는 관점, 즉 능관의 법으로서 지관행에 대해서 보았을때, 소관의 법으로서의 제법에 어떻게 관계하고 그것을 어떠한 태도로서 관찰 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수습 방법의 문제가 제기 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 하여, 『摩訶止觀』에서 지관의 수습 방법 으로서 「十觀, 十境」의 교설로서 교시하고 있다.

천태교학의 구극(究極)의 과제(課題)인 「諸法實相」의 구진(究盡)을 추진해 나갈때, 관찰의 대상으로서의 「제법」을, 다만 제법으로 서만 요해 한다면, 너무나 막연하여 포착할 수 가 없다.

지의는 이러한 것을 십종으로 나누고 정리 하여, 행(行)의 수습(修習)에 확실한 방향성을 주고 있다. 즉 소관(所觀)의 경계(境界)로서 十境은, 陰入界境, 煩惱境, 病患境, 業相境, 魔事境, 禪定境, 諸見境, 增上慢境, 菩薩境을 말한다. 이 가운데 서도 특히 「陰入界境」을 중시 하고 있는데, 이 陰入界 속에서도 식음(識陰)을 소관(所觀)의 경계로서 선택하고 있다. 식음(識陰), 즉 心은 지의에 있어서 일체제법(一切諸法)과 같이 해석 하고 있어서, 마음을 관하는 것과, 일체 제법을 관하는 것이 내용적으로 같은 것으로 보아, 지관행의 소관(所觀)의 경을 음입계(陰入界)로서 표시하여, 지관의 행을 관심에 그 기본을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止)수행의 기본으로서의 「觀心」 행은, 어떠한 방법에 따라 수행해야만 할까. 라고 하는 수습(修習) 방법의 문제로서, 사종삼매의 수행규정을 제시하고 있다.³⁸⁾

昧), 가촉(訶觸)등이다.

- (3) 기오개(棄五蓋) — 내심에 전연하여 바른 定慧를 뒤덮어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음의 작용을 버리는것. 즉 탐욕(貪欲), 진에, 수면, 도회(掉悔), 의(疑)등이 있다.
- (4) 조오사(調五事) — 신심(身心)을 적당하게 조정하여 덕을 갈고 닦는 수행. 調心, 調身, 調息, 調眠, 調食의 수행이 있다.
- (5) 행오법(行五法) — 마음을 태만하지 않도록 책진해서 바른 상태에 있게 하는 수행.

사종삼매(四種三昧)³⁹⁾라고 하는 것은, 상좌삼매(常坐三昧), 상행삼매(常行三昧), 반행반좌삼매(半行半坐三昧), 비행비좌삼매(非行非坐三昧)의 사종(四種)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관수증(止觀修證)의 실제(實際)인 것이다.

수행 방법은 많이 있겠지만, 대개 이 사종삼매의 수행에 의해서 구극의 깨달음에 달할 수 있다는 행법을 보인 것이다.

즉 천태교학의 관심의 부분은, 사종삼매, 십승(十乘), 십경(十境), 이십오방편의 체계로서, 지의 만년의 저술 『摩訶止觀』에 실하고 있는데, 이것은 천태교학의 특수한 실천체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과 같이 천태지관을 다시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천태지관은, 소위 삼종지관과 사종삼매를 가지고 그 조직의 종횡(縱橫)의 대강(大綱)으로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삼종지관(三種止觀)이라고 하는 것은, 원돈지관(圓頓止觀), 점차지관(漸次止觀), 부정지관(不定止觀)으로,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수행, 즉 말하자면 내면적으로 증오(證悟)로 나아가는 방법, 형태상으로 부터 분류하고, 또한 종합한 조직이다. 여기에 대하여 사종삼매는 외면적으로 불도수증의 실제적인 행의양식(行儀樣式)상으로부터 분류하고 또한 종합한 조직이다. 삼종지관중의 원돈지관(圓頓止觀)을 상설 한 것이 마하지관(摩訶止觀) 十권이고, 점차지관(漸次止觀)을 상설한것이 선문수증(禪門修證) 十권이며, 부정지관(不定止觀)을 약설 한 것이 육묘법문(六妙法門) 一권이다.⁴⁰⁾

38) 『摩訶止觀』(佛典講座, 25, pp.14~26참조, 東京 大藏出版)

39) 四種三昧중의 常坐三昧는, 간단히 말하면 九十日間 坐禪入定해서 餘事를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一行三昧라고도 한다. 다음 常行三昧는 步步 念念 聲聲 다만 阿彌陀佛을 창념하는 것을 말하며 般舟三昧라고도 한다. 半行半坐三昧는 七일의 方等三昧와 三七일의 法華三昧를 말한다. 함께 懺悔滅罪를 주로 하는 것으로서, 行과 坐를 겸하여 수행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非行非坐三昧는, 방법, 기간을 정하지 않고, 六塵·六識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念에 대해서, 四句를 가지고 이것을 관하고, 一心三觀에 달함을 말한다.(宇井伯壽監修『佛教辭典』pp.402)

40) 關口眞大『天台止觀の研究』pp.3~4.

安藤俊雄『天台學』(根本思想とその展開) pp.173~293.

5. 지의 교학의 특색

천태교학의 성립사적인 측면에서 이미 그 성과를 인정 받고있는 佐藤哲英博士가 천태의 전기시대에 있어서 지의교학의 특색을 정리 하고 있다. 즉 지의의 사상형성기(思想形成期)인 전기시대의 저작, 『차제선문(次第禪門)』, 『법화삼매참의(法華三昧懺儀)』, 『육묘법문(六妙法門)』, 『각의삼매(覺意三昧)』, 『방등삼매행법(方等三昧行法)』, 『소지관(小止觀)』, 『법계차제초문(法界次第初門)』, 『선문구결(禪門口訣)』 등 팔부(八部)를 가지고 전기시대의 저작이라고 인정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차제선문』을 전기시대의 대표작이라 하고, 그 이외는 『차제선문』의 선법에 관한 별행서이며, 요약서라고 단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기시대의 저작을 소재로하여 그 교학의 특색을 요약하고 있기 때문에, 후기시대의 교학의 특색 또한 알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전기시대의 지의의 교학은 실천문적 성격을 다분히 가지고 있다. 『차제선문』을 중심으로 하는 일련의 저작이 선법의 실천에 관한 것 뿐이고, 천태삼대부(天台三大部)를 중심으로하는 후기시대의 지의교학이 교상과 관심과의 쌍운을 설하는 것과 대비 된다.

(2) 전기시대의 지의교학이 혜사선사(慧思禪師)의 사상적 영향하에 있는 것은 말할것도 없지만, 특히 주의 할 것은 용수의 지도론을 중심으로 구성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후기시대의 교학이 『法華經』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3) 지의가 후기시대에 있어서 천태교학의 체계를 대성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기시대에 있어서 이미 실천법의 체계를 이미 수립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즉 『육묘법문』에는 십문조직(十門組織)에 의한 부정지관(不定止觀)의 체계가 설해져 있고, 『각의삼매』에도 여러가지의 선법이 통섭되어 있다.

(4) 후기시대가 되면 지의의 사상에는 비약적인 진전이 보이지만, 전기 시대에 있어서도 그 사상에 심화 발전의 흔적이 보여진다. 즉 『육묘법문』의 사종증상설(四種證相說)⁴¹⁾은 후기시대에 이르러서 조직된 장·통·별·원(藏·通·別·圓)의 화법사교(化法四教)에 있어서 수증론(修證論)의 선구를 이루는것으로 보여진다.

(5) 후기시대에 이르러서 대성된 일즉일체(一卽一切)의 원돈사상(圓頓思想)이 이미 전기시대에 확립되어 있었다는 것 이다. 즉 혜사(慧思)의 『法華經安樂行義』에는 외도(外道)와 이승(二乘), 둔근보살(鈍根菩薩)의 차제행(次第行)과, 이근보살(利根菩薩)인 법화행자(法華行者)의 불차제행(不次第行)으로 구별하고 있지만, 『육묘법문』에는 일심(一心)을 관하면, 일체심 일체법(一切心一切法)을 보고, 일중생(一衆生)을 관하면 일체불(一切佛) 및 일체중생(一切衆生)을 본다고 하는 원관(圓觀)이 설해져, 그위에 별교보살의 행인 『六妙門』이 설해져 있기 때문에 혜사(慧思) 보다도 일보 전진이 보인다고 정리하고 있다.

(6) 『영락경(瓔珞經)』의 관심은 혜사(慧思)의 교학에도 보이지만, 지의는 그 보살행위설(菩薩行爲說)을 전기시대에 도입 하고 있다. 즉 『육묘법문』에서는 상사증상(相似證相)을 육근청정(六根淸淨), 진실증상(眞實證相)을 십주(十住)·십행(十行)·십회향(十廻向)·십지(十地)·등각(等覺)·묘각(妙覺)으로 배열하면서 십신(十信)을 행위(行爲)로 보고 있지 않지만, 『각의삼매(覺意三昧)』에 이르면 십신(十信)을 외범철륜위(外凡鐵輪位), 초발심주(初發心住)를 내범동륜위(內凡銅輪位)로 하고 있다.

다만 오품제자위(五品弟子位)를 외범(外凡), 육근청정위(六根淸淨位)를 내범(內凡)으로 하고, 초발심주 이상을 성위(聖位)로 하는 원교행위론(圓教行爲論)은 지금까지 어느책에도 볼 수 없다. 『영락경』의 삼관설(三觀說)은 전기시대에 이미 관심이 보이고 있으나 삼제설은 보이지 않는다.

(7) 『영락경』을 근거로한 원교행위론(圓教行爲論) 이외에, 후기시대가

41) 『六妙法門』의 십문조직(十門組織)은, 『次第禪門』 권 7의 六妙門에 있어서 삼단조직(三段組織)의 확충이지만, 『次第禪門』에 있어서는 상사증(相似證)과 진실증(眞實證)과의 二種밖에 설하지 않았던 것이, 별행본(別行本)의 육묘법문(六妙法門)에는 차제증(次第證), 호증(互證), 선전증(旋轉證), 원돈증(圓頓證)의 四種으로 나 누고 있다. 佐藤哲英 『天台大師の研究』(昭和 36·3 發行, 54·6 제2쇄 百華苑 pp.666~667)

되면 지의 독특한 육즉설(六卽說)이 완성된다. 『각의삼매』에 그 선구가가 보여진다. 즉 인문칠각(因聞七覺), 수행칠각(修行七覺), 회리칠각(會理七覺), 기방편칠각(起方便七覺), 입법문칠각(入法門七覺), 원극칠각(圓極七覺)의 육종의 칠각설을 그 증거로 들고 있다.

6. 소의(所依)의 경론 및 장소(章疏)

6.1. 소의경론(所依經論)

천태지의의 저작중에 자주 인용하고 있는 경론으로서, 지의가 소의로 하고 있는 경론을 엿볼 수가 있다. 즉 천태지의가 교관쌍미의 교의를 시설한 근거로서 제시한 것은, 일체의 불교경론은 다 소의(所依)의 성전이 된다. 그러나 특히 그중에서도 대사가 입교의 소의로 하고 있는 것은, 法華經, 涅槃經, 大品般若經, 本業璣珞經, 大智度論 등이 있다.

① 『妙法蓮華經』 八卷(鳩摩羅什譯)

法華經은 석존성도 이래 사십여년간 종종의 방편교화를 시설해서 교화 인도한 공이 점점 익어, 모든 제자가 권교(權敎-實敎로 유인하기 위해 시설한 假敎)를 여이고 실교(實敎-진실교)에 들어감에 적합한 때 임을 알고, 석존은 여기에 처음으로 출세(出世)의 본뜻을 밝힌다. 어떠한 중생도 성불할 수 있다고 하는 십계성불(十界成佛)의 뜻을 밝혔다.

그리고 제자를 함께 대승(大乘)의 보살로 유인하여 초주(初住)의 진위(無明을斷하여 中道を 깨달음)까지 인도한다. 다시 더 나아가서는 석존 자신의 본뜻(本地)을 개현(開顯)하여 오백억진점점에 이미 성불한 고불(古佛)임을 밝혀 제자로 하여금 등각위(等覺位)까지 오르게 한 것이 법화경이다. 즉 법화경에는 석존출세의 본회(本懷)를 기탄없이 나타내고 화도(化導)의 시말(始末)이 남김없이 총괄 되어 있다. 때문에 대사는 법화경을 입교의 근본소의로 한 것이다.

② 『大般涅槃經』 四十七卷(鳩摩羅什譯)

열반경은 부율현상(扶律顯常)의 설로서, 일체중생설유불성(一切衆生悉有佛性)이라하여 어떠한 사람도 불성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일체중생은 번뇌와 망업에 덮여 그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다. 때문에 계율 즉 도덕적인 규율과 대승의 관법을 수행하면, 번뇌망업은 자연이 단제되어 진다. 그리하여 본래 갖추고 있는 (本具常住) 불성이 드러나게 되어, 불타의 오계(悟界)에 도달할 수가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열반경이다. 「扶律顯常」이라고 하는 것은, 계율(戒律)을 부조(扶助)로 해서 본구상주(本具常住)의 불성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다.

③ 『本業璣珞經』 (菩薩璣珞本業經 二卷, 竺佛念三藏譯)

本業璣珞經上卷에는 중가입공관(從假入空觀)(空觀), 중공입가관(從空入假觀)(假觀), 중도제일이제관(中道第一義諦觀)(中道)의 삼관(三觀)이 설해져 있고, 천태삼관명목(天台三觀名目)의 출처이다. 그런데 이 삼관은 차제의 삼관이라하여 처음에 공관(空觀), 다음에 가관(假觀), 후에 중관(中觀)과 같이 삼관차제로 닦는 것이기 때문에 차제격력(次第隔歷)의 방편을 띠하고 있는 권교(權敎)의 관법이다. 이경의 하권에는 삼관법계제불자성청정(三觀法界諸佛自性清淨)이라고 설하여 일심삼관 일심(一心)의 일념속에 공가중(空假中)삼관을 원만하게 닦는 원융(圓融)의 일심삼관(一心三觀)이 설해져 있다. 천태대사는 이 하권의 경설에 의지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④ 『大品般若經』 (四十七卷 鳩摩羅什譯)

반야경의 소설(所說)은 법개회(法開會)라고 하여 소유법문(所有法門)의 융통을 설하는 것이 대단히 상세하고 면밀하다. 때문에 대사(천태)는 이 반야의 경의(經意)에 의해서 영락경에서 설하는(璣珞經所說) 삼관을 융통하여 일심삼관(一心三觀)의 관법을 건립한 것이다. 즉 대사가 삼관(三觀)을 일심(一心)으로 융통한 것은 대품반야경의 설에 의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즉 삼관(三觀)의 명상(名相)은 영락경, 일심(一心)에 융통하는 것은 대품반야의 경에 의지한 것이다.

⑤ 大智度論 百卷 (鳩摩羅什三藏譯)

대지도론은 불멸후 칠백년대의 것으로 대승법문을 중흥한 용수보살이 대품반야경을 해석한 논이다. 천태의 교법은 이 용수보살의 법문을 계승한 것이기 때문에 천태교학의 교의의 지남은 이 논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교관이문(敎觀二門)의 소의(所依)라고 하는것은 천태입교(天台立敎)의 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福田堯穎師는 六祖 荊溪大師의 해석을 이끌어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⁴²⁾ 즉 『止觀義例』⁴³⁾, 『法華玄義釋籤』⁴⁴⁾, 『金鉤論』⁴⁵⁾ 등이다.

6.2. 소의(所依) 장소(章疏)

고래로부터 천태교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의지해야할 서적은 소위 삼대 오소부(三大 五小部)라고 칭하고 있다.

삼대부

- ① 『法華玄義』 十卷(법화경의 제목을 해석한 것)
- ② 『法華文句』 十卷(법화경의 문문구구를 해석한 것)
- ③ 『摩訶止觀』 十卷(법화경의 관심수행법을 설한 것)

오소부

- ① 『觀世音菩薩普門品玄義』 二卷(관세음보살보문품의 제호를 해석한 것)
- ② 『觀世音菩薩普門品義疏』 二卷(관세음보살보문품의 문문구구를 해석한 것)
- ③ 『金光明經玄義』 一卷(금광명경의 제목을 해석한 것)

42) 福田堯穎 『天台學概論』(昭和二十九年 八月, 中山書房佛書林)(pp.9~13)

43) 湛然述 『止觀義例』 二卷(大正藏 46卷 p.1913)
天台大師의 『摩訶止觀』의 要義를 7과로 大科하여 天台觀門의 大意를 서술한 것이다.

44) 唐의 湛然述 『法華玄義釋籤』 二十卷(大正藏 33卷 p.1717)
法華玄義를 해석한 것으로서, 천태교의의 진수를 잘 드러낸 것이다.

45) 唐의 荊溪湛然述 『金鉤論』 一卷(大正藏 46권 1932)
문답체로서 천태에서 말하는 實相論의 입장으로 부터 초목비정성불(草木非情成佛)의 이치를 설한것. 후의 趙宋天台의 諸問題는 본서에 윤원한다.

④ 『金光明經文句』 三卷(금광명경의 문문구구를 해석한 것)

⑤ 『觀無量壽佛經疏』 一卷(관무량수불경의 제호및 경문을 해석한 것)

이상의 팔부는 다 천태대사의 친설을 문하의 장안대사가 필록한 것이다. 삼대부에 대해서는 육조(六祖)인 형계담연(荊溪湛然)의 주(註)가 있고, 오소부(五小部)에 대해서는 사명지례(四明知禮)의 주(註)가 대표적이다. 덧붙여서 그 외에 진왕의 청에 응해서 만들어 졌다는 『維摩經玄義』 및 소(疏)가 있다. 그중에 별행으로 전해지는 사교의(四敎義, 大部四敎義) 6권(六卷)은 천태교상연구에 중요한 책이다.⁴⁶⁾

7. 천태지의의 사상

천태지의의 교학사상은, 구성면에서도 또한 내용면에 있어서도, 장대(壯大)하고 중후(重厚)한 그의 저작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의의 저작으로서 현존하고 있는 것은, 총46부, 188권으로, 제종의 목록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결본(缺本)으로 되어 있는 것도 28부에 달한다. 그러나 지의사상의 핵심부분이 표시 되어 있는 저술은, 소위 「天台三大部」라고 불리워지며, 그 중에서도 『法華玄義』와 『摩訶止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천태지의의 저술을 성립사적인 측면에서 연구한 결과(佐藤哲英著 『天台大師의 研究』) 천태삼대부는, 지의가 직접 필을 들고 쓴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인 장안관정(章安灌頂)이 듣고, 기록(聽記筆錄)하여 서책이 되기까지는 수차례의 수치(修治) 첨삭(添削)을 거쳐 완성한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삼대부는, 지의와 장안(章安)과의 사상의 혼연일체로서, 순수한 지의의 사상이라고 단언할 수 없는 단계에 까지 와 있다.⁴⁷⁾ 그리고 삼대부의 연구에 있어서, 육조형계담연의 주석서에 의존해 온 것이 지금까지의 학문 연구의 전통이 되어 왔다. 이것 또한 담연의 독특한 견해에 의해, 지의

46) 福田堯穎 『天台學概論』(中山書房佛書林 昭和29년 8월 초판발행, 平成2년 4월교정 9쇄 발행: pp.9~13까지를 정리한 것임)

47) 佐藤哲英 『天台大師의 研究』(pp.667~671) 천태삼대부의 강설과 그 성립과정을 참조.

의 진의를 상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주의 깊게 연구해 나간다면, 천태지의의 교의를 파악 할 수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7.1. 개성적측면

우선 천태지의 사상의 개성적 측면은, 종종 의견으로 부터 석존 일대에 설하신 교상(敎相)의 전후(前後), 심천(深淺), 우열(優劣)등을 정하고, 이들 제경 전체를 유기적(有機的-하나의 중추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하여 전체가 관련있는 작용을 하는 모양)으로 관계 지워서 이해 해 가는 소위 교판사상(敎判思想)을 안출해 낸 점을 들 수 있다. 다음은, 장대하고 그위에 정연하게 체계화 된 종합적인 행의 체계, 즉 지관의 체계를 구상한 점이다. 즉 전자의 교판이라고 하는 것은 교상판석(敎相判釋)으로, 지의는 교판 체계를 조직하는 것에 의해서, 당시 북지(北地) 지론계(地論系)의 화엄지상주의(華嚴至上說) 및 남지(南地) 열반계(涅槃系)의 열반지상주의설(涅槃至上說)을 물리 치고, 새로운 법화지상설(法華至上說)을 학문적으로 기초 지운 것이다. 이 교판사상은 남악혜사(南岳慧思)의 교학에서 배태하여 천태에 이르러 완성된 것으로 보고있다.⁴⁸⁾

후자의 행의 체계는, 지의의 특징적인 면을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지의의 저술 어디를 보아도 행, 즉 종교적 실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곳은 없다. 행의 수습을 거쳐 비로소 불도의 완성, 결국 깨달음의 성취도 가능하다고 하는 지의의 사상이 그의 입장의 근거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다.⁴⁹⁾ 지의에 있어서 행의 구축은, 원돈(圓頓)·점차(漸次)·부정(不定)의 삼종지관(三種止觀)의 구상이다.

48) 安藤俊雄 『天台學』(根本思想とその展開)(pp.54~60) 참조.

49) 平川 彰 編 『佛敎研究入門』新田雅章 「天台宗」(pp.223~224).

7.2. 사상의 골격

지의 사상의 골격을 이루는 것은 천태삼대부에 보이는 점을 가지고 논할 수 있다. 즉

- (1) 만인의 성불을 가르치는 일승개회사상(一乘·開會思想).
- (2) 깨달음의 근거로서 실상(實相)의 가르침.
- (3) 관심의 결과로서 득지 되어지는 실상(實相)의 경계(境界)를 나타내는 가르침.
- (4) 대승불교의 사상적 전개이다.

(1) 일승개회사상은(一乘·開會思想)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일체중생의 구조와, 중생을 인도하는 제경(諸經)의 성격, 그위에 깨달음의 길을 여는 구극의 경으로서 법화경의 특징을 나타내는 사상이다. 즉 이러한 교설은, 천태의 중생관, 경을보는 방법, 그위에 실천론이 성립하는 사상적 배경등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알 수 있다.

(2) 깨달음의 근거로서 실상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진실의 모습(諸法實相)을 이론적으로 가능한한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妙法蓮華經』을 차용한 범주라고 생각 되어진다. 십여시(十如是)를 가지고 제법의 그 자체에 관한 지의의 설명은 이론적으로도 지극히 교묘함을 더한다. 즉 제법이 결국은 공·가·중(空·假·中) 삼제에 의해서 표시 된다고 하는 교시이다. 십여시의 교설은, 「실상론」의 핵심으로 이끄는 중요한 가르침이다.

(3) 교상문(敎相門)에 속하는 교설이 밝히는 원교(圓敎)의 경위(境位)도, 실은 관심을 통해서 이해되어 진다고 하는 것이, 지의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즉 관심의 결과, 득지되어 지는 실상의 경계를 나타내는 가르침으로서 十二因緣, 四諦, 三諦, 二諦, 一諦, 無諦, 그리고 일념삼천설(一念三千說)등이 설시 되어 있다.⁵⁰⁾

50) 『法華玄義』 二下, (大正藏 33, pp.698~707 a).
『國譯一切經』經疏部 一, 境妙 (二下, pp.72~98)

(4) 이 실상의 경계를 이론적으로 깊이 연구한 용수의 사상으로 개발되어 체계화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의의 사상은 대승불교의 사상적 전개중심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위치를 세운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⁵¹⁾

佐藤哲英박사는⁵²⁾ 천태지의의 사상적 생애를 이기(二期)로 크게 나누고 있다. 즉 화봉정상(華頂峯上)⁵³⁾의 두타(頭陀)를 분수령(分水嶺)으로 해서 전기시대와 후기시대의 이기로 나누고있다.

즉 전기시대에 있어서 지의의 사상은, 광주대소산(光州 大蘇山)의 혜사(慧思)의 문하에서 법화삼매(法華三昧)를 깨달은(發得)뒤, 대소개오(大蘇開悟)로 인도되어 금릉(金陵) 8년간의 와관사(瓦官寺) 시대에 형성된 것이다. 이시대에 있어서 지의는 혜사선사(慧思禪師)의 사상적 영향하에 실천 불교의 경향이 강했지만, 전기시대의 대표적 저작인 차례선문(次第禪門)을 보면, 용수의 『智度論』에 근거를 둔 혜사의 사상을 받아 드리면서 선바라밀(禪波羅蜜)을 중심으로 지의 독자의 실천 불교의 체계를 이미 형성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후기시대에 있어서는, 화봉정상의 두타에서 얻은 일실제의 체험이야말로 지의의 사상을 비약적으로 진전시켜 삼대부 강설시대에 들어가는 사교오시(四教五時), 삼제삼관(三諦三觀), 십승관법(十乘觀法)등의 각종의 교의가 나오고, 만년시대(晩年時代)의 유마경소(維摩經疏)에 보이는 것과 같은 천태교학의 일대체계가 확립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즉 후기시대의 『摩訶止觀』에 이르게 되면 「止觀」의 일어(一語)에 전 불도를 통섭하고 있는 것이다.

51) 平川 彰編 『佛教研究入門』 新田雅章 「天台宗」(pp.223~229)까지 정리한 것임. (1984년 6월, 初版 第一刷 發行, 東京 大藏出版)

52) 佐藤哲英 『天台大師の研究』(pp.49~50).

53) 佐藤哲英 『天台大師の研究』 pp.44~45에 의하면, 灌頂은 『國清百錄』의 序에 「禪師, 陳나라 大建 七年 歲次 乙未에 처음으로 天台에 傭다.」(大正藏, 46, 793a)라고 기록하고, 別傳, 唐傳에도 지의가 天台山에 들어 간 것은 陳朝가 일찌해서 大建 七年 九월, 38세로 되어있다. 天台山은 浙江省에 있는 명산이다. 지의가 천태산에 들어가 최초로 초암을 얻은 銀地북쪽에는 華頂峯이라고 부르는 별봉이 있다. 지의는 어느날 대중을 버리고 단신 이 화정봉에 올라 두타행을 수행했다고 하고있다. 이 화정봉상의 두타행야말로 지의의 사상을 전후 양기로 나누는것이라고 하고 있다. 즉 大蘇山의 개오(南岳 慧思의 門下)가 空證이었음에 비하여, 華頂峯上의 證悟가 法華 圓頓의 一實中道の 체험이었다고 하고 있다.

이와같이 전기시대의 선(禪)으로 부터 후기시대의 지관으로 이행해 나가는 지의사상의 진전을 대소(大小)의 개오(開悟)와 화정봉상의 증오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⁵⁴⁾

8. 일본의 중국천태교학연구사

천태대사의 교의를 일본에 홍포하였기 때문에 전교대사최징(傳敎大師 最澄·사이초)(767~822)을 일본천태의 종조(宗祖)라고 함은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종(宗)으로서가 아니고 단지 천태교학으로서의 일본전래는 이보다 더욱더 거슬러 올라가며, 천태종의 근본성전으로서의 『法華經』의 전래 또한 이보다 더욱더 연대를 달리한다. 그러나 일본 불교의 역사는 접어두고 천태대사 저술의 일본전래를 현재의 일본 문헌에서 찾아보면 정창원문서 750년(正倉院文書 天平勝寶2年) 『寫經目錄』에 보이는것을 가지고 최초로한다.⁵⁵⁾ 이해는 종래 「天台章疏」 일본전래의 조사라고 일컬어지는 감진(鑑眞 688~763)의 도래에 앞서 道璿을 들 수 있다.

1) 道璿(720~760)은 당나라 사람으로서, 화엄·계율을 배워, 선·천태에 통달했다. 736년(天平 8년 8월), 일본 유학승의 간청으로 다수의 화엄과 계율의 서적을 가지고 일본에 도래 했다. 그 제자 대안사(大安寺)의 行表(722~797)는, 전교대사의 득도의 스승이며 그 교학 원밀선계(圓密禪戒) 사종상승(四宗相承)이라고 일컬어지는 가운데 선을 전한 사람이다. (『內證佛法相承血脈譜』)⁵⁶⁾

2) 鑑眞(688~763)은 754년(天平勝寶6年)에 일본으로 건너왔다. 그가

54) 佐藤哲英 『天台大師の研究』 pp.49~50 참조.

55) 勝野隆信 「叡山の佛教」(pp.61~65).

(講座佛教 5 大藏出版 昭和 33年 9月 初版, 昭和 52年 7月 改訂 3版 發行)

56) 사이초(最證)저서로서 弘仁10년 (819)에 성립. 최징이 入唐하여 전수한 圓(천태교학)·密·禪·戒의 4종법문의 계보를 기록한 것이다.

가지고 온 전적(典籍)속에 摩訶止觀·法華玄義·法華文句의 三大部를 비롯하여, 천태장소(天台章疏)가 있었던 것을 『叡山大師傳』은 기록하여 전교대사가 처음으로 접한 천태장소(天台章疏)는 실로 감진(鑑眞)에 의한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전교대사이후에 있어서는 圓仁·圓珍·安然등을 들 수 있다.

3) 圓仁(엔닌, 794~864)은 평안전기(平安前期)의 천태종의 승려로서, 천태좌주(天台座主)3세, 산문파(山門派)의 조사이다. 시호는 자각대사(慈覺大師)로서 802년 下野 大慈寺 광지의 문에 들어가 히예잔(比叡山)에 올라 사이초(最澄)에게 사사(師事). 816년 동대사(東大寺)에서 수계하고 下野에서 포교에 전념. 그후 히예잔 橫川の 수능엄원에서 수행 했다. 838년 입당(入唐), 揚州開元寺의 宗叡·全雅·長安 大興善寺의 元政, 靑龍寺의 義眞들로 부터 실담(悉曇), 金胎蘇의 大法을 습학하고 오대산을 순례했다. 845년 무종(皇帝 武宗)의 불교탄압을 받아 47년귀국. 이후 최징의 유업을 계승하여 東塔에 前唐院, 橫川에 根本觀音堂을 창건하고 또한 法華 總持院을 열어 천태 밀교의 확립에 노력했다.

저서로서는 『入唐求法巡禮行記』, 『金剛頂經疏』 7卷, 『顯揚大戒論』 8卷, 『止觀私記』 10卷等 이다.⁵⁷⁾

4) 圓珍(엔진, 814-891)은 平安 前期 天台宗의 승려로서, 15세에 比叡山으로 입산, 義事에게 師事. 20세에 菩薩戒, 12년간 籠山修行. 53년 入唐하여 物外·良諍·法全등으로 부터 俱舍·因明·悉曇·顯密 二敎를 배우고 58년귀국. 藤原良房·基經들의 權門에 중용되어 당으로 부터 가지고 돌아온 경전류를 園城寺에 당원을 세워 수장하고, 同寺를 재흥하여 延曆寺의 별원으로 했다. 868년으로 부터 24년간 天台座主로서 현교의 하열함과 밀교의 수승함(顯劣密勝)을 창하여 天台密敎의 확립에 힘썼다.

저서로서는 『傳敎大師略傳』, 『法華論記』 10卷, 『大日經指歸』 1卷, 『授決集』 2卷, 『山王院在唐記』, 『行歷抄』, 『智證大師全集』 4卷등 다수이다.⁵⁸⁾

57) 『日本佛教人名辭典』 p.79 (法藏館 1992年 1月 第1版)

58) 『日本佛教人名辭典』 pp.77~78 (法藏館 1992年 1月 第1版)

5) 安然(안넨, 841~915) 平安 전기의 천태종의 학승. 圓仁의 제자로서 圓仁몰후 遍昭에게 師事하여 밀교 수법을 배움. 877년 入唐의 官符를 얻었으나 중간에 단념하고 만년 比叡山에 五大院을 세워 연구와 저작에 몰두했다. 천태밀교를 대성하고 그 학식은 戒律·悉曇에도 미치고 있었다.⁵⁹⁾

천태대사의 교학에는 물론, 밀교는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전교대사가 천태교학의 전수를 목적으로 천태산으로 직행하여, 천태대사의 범류를 받고 돌아 오는 도중에, 越州 龍興寺에서 善無畏三藏의 법손 順曉를 만나 태장계·금강계(胎金兩部)의 부법을 받아 밀교의 전적(典籍) 백이부백십오권과 진언법구를 가지고 돌아옴에서부터 천태 밀교가 시작이 된다. 전교대사 멸후 종조의 유지를 받들어 圓仁, 圓珍, 安然등은 절실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일본의 천태밀교 태밀은, 현밀일치를 내걸고 진언(眞言)의 밀교(弘法大師의 입당은 804년 遣唐使와 행을 함께하여 북방의 長安에 체재하여 당시 융성하고있던 밀교를 충분히 획득할 기회를 얻은 것이다), 동밀(東密)의 밀승현열(密勝顯劣)과 대립하고, 양자 함께 평안(平安)불교를 장식한 것이다.

그후 자각대사 원인(慈覺大師 圓仁)의 문류와, 지증대사 원진(智證大師 圓珍) 문하의 세력다툼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산문파(山門派.圓仁의 문류, 叡山), 사문파(寺門派.智證大師 圓珍의 문류)로 분열되어 드디어 사문파가 叡山에서 하산하게 된다.

즉 圓仁문도는 산상에 있는 圓珍문류의 방사를 습격하여 사십여채를 파괴 불지르고, 문도 천여사람을 叡山으로 부터 추방시키는 대 싸움이였다. 土御門天皇 元久원년 (1204年) 叡山에서는 당중(堂衆)과 학생(學生)과의 투쟁이 격렬하여 조정은 병사를 파견하여 학생을 보호하고, 급기야 近江의 守護 佐佐木 定綱이 칙명을 받아 등산하여 당중을 토벌 했다.(明月記, 天台座主記) 당중(堂衆)이라고 하는 것은 산에서 잡일을 하는 계급으로 소위 승병(僧兵)이다. 이러한 당시 천태교학 연구사에서 빠뜨릴 수 없는 인물로서 등장하는 것은 實地房證眞이다.⁶⁰⁾

59) 『日本佛教人名辭典』 p.13 (法藏館 1992年 1月 발행)

60) 勝野隆信 「叡山の佛教」 pp.61~88 (講座佛教 5 昭和33년 9월 發行 昭和52년 7월

6) 寶地房 證眞(쇼우진, 生沒年代不詳)은 그의 師 慈鎮和尚 慈圓에게 권유되어 산상의 碩才 이백칠십인을 선발하여 根本中堂에서 구십일간의 안거를 부흥해서 제 경론의 대 토의를 행하였다 고 전한다.(本朝高僧傳13) 證眞은 당대의 학장으로서 대장경을 열독하기 전후16편, 『法華三大部私記』삼십권의 저술 등에 몰두하여 源平의 대 쟁란을 알지 못했다고 전하고 있다. 東塔 華王院에서 강석을 시설하고, 그후 寶地房에서 저술에 전념. 1186년 山勝 大原 勝林院에서 源空의 정토교의를 열고 원돈계를 받았다 고 한다. 저술은 다음과 같다.

『法華三大部私記』三十卷,

『涅槃論疏義抄』四卷,

『智度論私記』二卷,

『金鉤論私記』一卷 등 다수.⁶¹⁾

일본의 근대 불교학의 성과는, 明治 이후 거의 반세기를 지나는 동안 각종의 교리사(敎理史), 교리론(敎理論)의 활발한 연구활동으로 부터 시작 된다. 그러나 반대로 천태교학의 연구는, 서구식의 학문 방법과 원전학의 해명에 의하여 새로운 과도기를 맞이 하였던 것이다. 다시 거슬러 올라가 천태교학의 흐름을 간단히 고찰해 보기로 하자.

중세 이후 침체된 일본 천태를 근세(江戸시대, 享保年間)의 시점에서, 부흥 시킨 것은, 妙立, 靈空등에 의한, 四明敎學⁶²⁾의 도입에 있다는 것을 근세 천태종사는 가르치고 있다. 중국에 있어서, 四明敎학의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의 사정에 의한 것이 지만, 중세 말까지 이미 포화

改訂3판 發行)

61) 『日本佛敎人名辭典』p.370 (法藏館 1992년 1월 第1版)

62) 四明敎學: 湛然이후 천태의 학장으로서 대두되는 인물은 四明法智知禮(960~1028)이다. 그는 宋太祖 建隆 元年 四明에서 태어나, 七세때 출가. 二十세때 寶雲 義通의 문에 들어가 天台學을 공부 했다. 咸平 二年 이후, 한 발짝도 山外를 나간 적이 없고, 오직 강학에만 힘을 기울였으며, 法華玄義를 강하기 七遍, 文句및 止觀을 八遍, 金光明玄疏 十遍, 觀音玄義, 觀無量壽經을 七遍이나 강하고, 특히 당시 論議의 중심이 되었던 諸著의 연구에 노력에 집중하여, 당시 山外派 華嚴, 禪 등의 諸宗에 대해서, 엄중한 대결과 비판을 가하여, 드디어 山家敎學을 완성한 것이다. 저서로는, 金光明經玄義拾遺記 三권, 金光明經文句記 八권, 觀無量壽經疏妙宗초 6권, 觀音玄義記 4권, 十不二門指要초 2권, 그의 答論釋義가 다소 있다. 그 중에서도 十不二門指要초는 知禮敎學을 조직적으로 전개한 명저로서 天台敎學의 필독서 이다.

점에 달한 일본천태의 입장에 있어서는, 순수한 중국천태의 입장인 사명 교학(四明敎學)을, 근세의 시점에서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즉 元祿, 享保의 시대(1680~1740) 妙立·靈空등의 中國天台에 의한 계율부흥(戒律復興)의 혁신운동과, 여기에 대한 眞流(1711~?)·敬光(1740~1795) 등의 중조예의 복고운동(전통교수)은, 함께 폐풍타파의 혁신 운동이었지만, 양자의 설은 서로 대립하여 논쟁은 격렬하게 되고 마침내는 종문 대 파란의 일막을 자아냈던 것이다. 그러나, 구래의 일본 천태교학과는 조화할 수 없었던, 사명(四明)교학이 결국 주류가 되어서 성행하게 되고, 이러한 사상교학은 지리적으로는 일본의 땅에서 행하여 진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나천태(支那天台), 사명천태(四明天台)의 지류이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잠깐 말을 바꾸어, 사명천태 도입의 원인을 중국천태와 일본 천태교학의 상위점에서 찾아 본다면, 중국천태는 개조(開祖)지의로 부터 明末 淸初 쇠망 할때 까지, 종시 일관해서 진언밀교(眞言密敎)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나, 일본천태는 전교대사(最澄)이래, 진언밀교가 지극히 중시되어, 홍법대사(弘法大師) 공해(空海)의 동밀(東密)에 대해서, 태밀(台密)이라고 하는 천태밀교를 조직하고, 때로는 천태교학의 현교(顯敎)에 대해서, 밀교(密敎)를 상위에 둘 정도 였던 것이다. 이것은 중국천태의 전통으로 보았을때, 현저한 사상상의 변화 였던 것이다. 즉 중국천태가 구심적(求心的)으로 천태교학의 특이성을 추구함에 반하여, 전교대사를 시조(始祖)로 하는 일본천태는 현밀제교(顯密諸敎)를 포용하는 방향을 전통으로 삼았던 것이다. 여기에 중국천태와 일본천태의 상위점이 있는 것이다. 즉 이러한 일본 천태의 사상 발전은, 천태교학의 특색있는 전통을 상실하게 되고, 급기야는 일본천태사상사의 위함을 초래하게 되어 버리자, 이러한 위함을 타개하기 위하여서는, 순수한 중국천태교학의 정신을 정확하게 파악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당시 중국에 있어서, 知禮(960~1028)의 학설이 천태의 정의(正義)로서 존중되고, 사명천태의 지류를, 일본 元祿의 때 妙立·光謙(靈空)등의 安樂律院系의 학장들이 순수한 천태교의의 재인식을 요구해서, 중국천태의 연구에 힘을 기울인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⁶³⁾

7) 妙立⁶⁴⁾(묘류, 寛永14~元祿3, 1637~1690)의 諱는, 慈山이고 字는 妙立이며, 호는 唯忍子로서 1653년 雷峰을 은사로 출가하여 선종에 귀의했다. 그후 천태삼대부(天台三大部)를 읽고 천태종으로 바꾸어, 1673년 비밀관정(秘密灌頂), 범망경의 십중금계(十重禁戒)를 받았다. 남산율(南山律)의 정통을 연구하고, 지례(知禮)의 법류를 받아 대승원계(大乘圓戒)로 사분율(四分律)의 구족계의 겸학을 주장하고, 종래의 玄旨歸命壇을 배척하여, 종내(宗內)로 부터 추방되었다. 즉 최초로 사명교학(四明敎學)을 도입하려고 한 것은, 묘류(妙立)였다.

8) 靈空⁶⁵⁾(래이구, 承應元~元文, 1652~1739)의 諱는, 光謙이고, 字는 靈空이다. 江戸前, 中期의 천태종의 승려로서, 1665년에 출가, 1668년 比叡山에 올라, 범망경의 十重禁戒를, 다음해에 四十八輕戒를 妙立에게 받아, 천태교관의 진력에 노력 하였으나, 圓耳·顯導등에 의해 「背祖敗宗의 罪人」이라고 까지 비난 공격을 받았던 것이다.

그뒤 痴空慧澄이 등장 하고 그리고 大寶守脫에 의해 사명교학(四明敎學)이 근세 일본천태의 주류의 관을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妙立·靈空등에 의해 도입된 趙宋天台(四明天台)의 교학은, 慧澄律師에 의해 드디어 자리를 잡게되고, 근세일본천태는 慧澄교학을 가지고 대표 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즉 慧澄교학이 각종의 학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높이 평가 되고, 천태종 이외의 사람들에게 까지도, 이 慧澄교학을 필요로 했던 이유중의 하나는, 한마디로 말해 중국천태의 흐름을 이해하는 학문적인 객관성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현재에 있어서도, 범화삼대부를 연구 할 경우, 순수한 중국불교의 입장을 취하기위해서는 역시 慧澄의 三大部『講義』나, 守脫의 『講述』을 의지하여 연구하고 있는실정으로, 중국천태를 알지 못하고서는, 중국및 일본 불교사상의 본질을 바르게 파악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와같이 근세의 사명교학의 부흥은, 구래의 일본 천태교학을 바꾸어, 천태교학

그 자체에, 각종의 신뢰와 관심을 높였던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를 그후의 천태학이, 구래의 천태교학과 어떠한 방법으로 일치조화애의 노력을 했는가, 에 대한 문제는 오늘날 문헌학적, 고증학적인 근대불교학의 연구에 의해 또한 새롭게 부각되어 발전해 갈 것이다.

江戸期(근세)의 일반 불교 교학의 연구는, 여러가지의 외적조건에 의해 좋은 성과는 없었지만(漢譯위주의불교이었기때문에), 중기이후, 말기를 걸쳐 明治에 이르러서, 적극적인 불교 교학의 연구가 시작 되고, 신불교 운동과 더불어 자유자재로 연구,검토하는 풍조는, 교단용 학문으로서의 종학(宗學)으로, 또는 자유스러운 과학적 고찰을 가하는 근대 불교학으로서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이다.⁶⁶⁾ 그러나 한역경전 중심인 천태교학은 이러한 새로운 물결에 의해 (성립사적인 해명에 의하여 뿌리부터 흔들리는 사상의 문제가 대두) 일본불교의 근거로서 오랜 전통에도 불구하고 잠시동안의 침체기를 맞이 한것이다. 그러나 원전해명(범문경전)의 연구와 함께 한역경전의 가치를 재평가 받게 되면서⁶⁷⁾ 천태의 관문(觀門) 즉 실천수행을 동반하는 천태지관의 연구가 다시 부활되어, 최근 천태관문의 방향으로 연구가 진전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돈황에서 발견된 문헌의 사본 연구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9) 慧澄(에초, 安永9~文久2, 1780~1862)의 諱는 痴空(치구)이고, 字는 慧澄이며 호는 愚谷이다. 1789년 比叡山 安樂院에서 覺忍에게 受戒하고, 大雲의 法嗣가 되다. 92년 海忍에게 八齊戒를 받고, 98년 胎藏界灌頂, 1801년 금강계관정(金剛界灌頂)을 받다. 1809년 仁海에게 師事해서 形同沙彌, 18년 傳法灌頂을 받아, 30년 紀伊粉河寺 十禪院의 開山이되다. 30세에 적극적인 천태교의(天台敎義)의 유포에 힘썼다. 저술은 『十不二門指要鈔講義』 2권, 『妙宗鈔講翼』 1권, 『觀音玄義講義』 3권, 『法華玄義講義』

66) 千葉乘隆·北西 弘·高木 豊共著『佛敎史概説』日本篇 (pp.145~244)참조.
勝野隆信「叡山の佛敎」(pp.61~88 講座佛敎 5 日本の佛敎 大藏出版 昭和33年 9月初版, 昭和52年 7月 3版發行)

67) 서구의 새로운 학풍으로 말미암아 싼쓰끄리트어, 파리어, 티벳트어등의 경전 연구에 몰두해온 학자들의 연구 성과(한역과원전대조)에 의해 한역경전의 우수함을 재평가 받게 되고 특히 鳩摩羅什 번역의 우수함이 재평가 받게 되었다.

63) 安藤俊雄『天台學』(pp.4~5) 참조.

64) 日本佛敎人名辭典(法藏館, pp.745)

65) 上同 (p.841)

10권 등이 있다.

10) 中川守脫(나가가와 슈다쓰, 1804~1884) 江戸後期, 明治시대의 천태사문종(寺門宗)의 학승으로서諱는 守脫이고, 字는 大寶 호는 淸淨金剛 이다. 16세에 比叡山 横川の 安樂律院의 守良에게 師事, 천태종에서 수련하고, 뒤이어 江戸의 관영사 淨名院에서 痴空의 강석에 참석하고 그뒤 痴空의 학풍으로 부터 나와 산문파(山門派)를 버리고 사문파(寺門派)로 옮겨, 近江 園城寺 日光院의 주지를 맡아 天台三大部등을 강하면서 西本願寺 大教校에도 출강 했다. 저술로서는, 『法華玄義釋籤講述』 15권, 『摩訶止觀輔行講述』 6卷등 다수가 있다.

9. 최근 일본의 중국천태교학연구의 동향

일본천태가 일본불교의 중핵적인 존재로서 각종의 교의 그 자체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부여해 왔다. 즉 일본 천태종의 사상은 중국 천태와는 달리, 원·밀·선·계(圓·密·禪·戒)의 사종합일(四宗合一)의 입장에 선 천태사상으로서, 일반 불교학을 대신하는 성질을 부여받아 학습된 오랜 전통과, 또한 교학의 보편성과 역사성을, 부정할 수 가 없기 때문 이다. 따라서 각종 교파의 교의를 연구하기 위해서도, 천태교학을 무시할수 없으며, 또한 일본천태에 있어서도, 중국 천태사상의 교학이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천태종은 물론이거니와, 禪宗系, 淨土系, 眞言系, 日蓮宗系 통에서도 본격적인 천태교학에 대한 연구가 진전됨에 따라, 많은 천태 교학자 들을 배출 시켰고, 그에 따른 학술연구는 천태교학의 전반적인 교의 연구의 성과를 보게 된다. 그러나 구미(歐米)의 과학적인 연구법이, 도입됨에 따라 현대 문헌학적인 측면에서 천태지주의 저작에 관한 성립사적인 연구 태도로서 천태의 사상을 보다 전체적인 입장에 서서 해명하려고 하는 검토로서 발전 되었다. 또한 불교학이나, 불교사학의 연구가 비약적으로 진보함에 따라서, 종래의 천태교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부당하게 경

시(輕視)되어, 교판에 대한 비판론이 극심하게 되자, 여기에 대한 반론으로서의 비판 즉, 비판을 위한 비판은, 일본 불교학계의 주목을 끌 정도의 대논쟁으로 까지 발전하게 된다. 또한 정밀주도한 원전학적(原典學的)연구에 의한 진작(眞作), 위작(僞作)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사상적인 문제까지 이끌고 간다. 즉 명치 이전 까지의 불교 연구가, 한역 경전에 의해 행하여져 오다가, 서구의 새로운 학문 연구의 도입에 의해, 원전학적 해명의 물결과 함께 원시불교의 연구가 성행하게 되자, 한역 위주의 천태교학 역시 밀어 닥치는 새물결에, 종래의 교학이 재조명 되어지는 시기를 맞이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학문의 논리성과 좁고 깊이 세밀하게 파고드는 일본학자들의 공통된 학문의 태도로서 일관되고, 또한 불교에 있어서의 비판정신은, 불교가 주체적으로 되어, 어떤 도달점에 달했을 때 스스로 하나의 비판론이 태어나기 때문이다.

그후 천태 교학 연구는 다소 침체된 상태를 계속 하지만, 재차 천태의 근본사상의 진의를 밝히려는 자세로서의 학문 연구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즉 문헌학이나 고증학이 마치 바른 불교학의 연구 방법 이라고 생각 되어지는 주류에 반하여, 불교 그 자체의 실천체계의 원리가 되는 그 원천, 본질을 규명 하는 태도로서의, 천태 관문(觀門)의 연구가 성행 된다. 그리고 둔황(敦煌)에서 발굴된 고대 문헌의 사본(寫本) 연구의 진전으로 새로운 발상에서의 연구도 계속 되고 있다.

그러면, 명치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중국 천태교학 연구 부문의 대표적인 인물과 전공분야는 아니지만 천태교학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인물들을 소개한 다음 대표적인 인물의 약력과 저서및 논문을 간단히 소개 하고자 한다.

- | | | | |
|-----------|------------|------------|-----------|
| (1) 福田堯穎 | (2) 上杉文秀 | (3) 境野黃洋 | (4) 島地大等 |
| (5) 佐佐木憲德 | (6) 坂本幸男 | (7) 稻葉圓成 | (8) 佐藤哲英 |
| (9) 多田厚隆 | (10) 山崎 宏 | (11) 横超慧日 | (12) 關口眞大 |
| (13) 安藤俊雄 | (14) 玉城康四郎 | (15) 大久保良順 | (16) 野村躍昌 |
| (17) 石津照璽 | (18) 山内舜雄 | (19) 田村芳朗 | (20) 鹽入良道 |
| (21) 若杉見龍 | (22) 淺井圓道 | (23) 平井俊榮 | (24) 日比宣正 |
| (25) 村中祐生 | (26) 福島光哉 | (27) 新田雅章 | (28) 多田孝正 |

- (29) 池田魯參 (30) 多田孝文 (31) 坂本廣博 (32) 大野榮人
(33) 武 覺超 (34) 管野博史

이 이외에도 많은 학자가 있지만 부록편 자료에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먼저 대표적인 인물의 간단한 소개와, 중요서적 그리고 논문 등을 간단히 소개함으로써, 일본의 중국천태교학연구사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연령순으로 나열했으나 다소 착오가 있다면 바른 가르침을 바란다.)

1) 福田堯穎(후쿠다 교에이, 1867~1954, 大正大學名譽教授)

명치(明治)~소화(昭和)시대의 불교 학자이며, 천태종의 승려로서, 江戸 靑山(東京)출신이다. 1881년 東京 天王寺의 堯存에게 출가하여, 1900년 天台宗 東部 大學 講師, 大正대학 教授를 지나, 32년 동(同) 學長, 42년 同 名譽教授에 역임 되다. 이때 豊山대학, 東京帝國대학, 東洋대학등의 講師를 지냄. 특히 대밀(大密)과 원돈계(圓頓戒)의 연구를 전문으로 했으며, 比叡山 金勝寺, 天王寺의 주지를 지냄. 저서로는 『戒密綱要』, 『傳教大師』, 『天台學概論』등이 있다. 그중에서도 『天台學概論』은 천태교학 연구자를 위한 필독서로써 유명하다.

福田堯穎 『天台學概論』(中山書房佛書林, 昭和 29년 발행, 平成 2년 9刷 발행)

2) 上杉文秀(우에스기 분슈, 1867~1936)

明治·昭和 전기의 불교학자로서, 眞宗大谷派의 승려 이다. 三河 佐佐木(愛知)출신으로, 三河 上宮寺의 家老 小島放牛의 2男으로 태어났다. 1896년 眞宗大學研究科, 1887년 上京해서, 楠潛龍에게 師事, 翌年 石川聖德寺의 上三慧義의 養嗣子가 되다. 眞宗 京都中學, 眞宗대학등의 교수에 역임함. 1924년 大谷派강사, 31년에는 大谷大學 學長으로 취임 했다. 그당시 중국·일본의 천태사 연구를 위해, 比叡山에서 台密三昧流의 傳法 灌頂을 받고, 또한 중국불교를 시찰 했다. 저서로는, 『日本天台史』 2권, 『往生禮讚強要』 등이 있다. 그중에서도 『日本天台史』 2권은, 중국불교를 연구함에 있어 서도, 중요한 자료이다.

上杉文秀 『日本天台史』 2권, (國書刊行會, 昭和 47년)

3) 境野黃洋(사가이노 고요, 1871-1933)

明治~昭和초기의 불교사학자, 眞宗大谷派의 승려로서 위는 哲海, 호는 黃洋이다. 哲學館(동양대학)에 입학하여 井山圓了·村上專精에게 師事. 1899년 同館의 강사. 1918년 東洋大學 學長. 청년기에는 村上들과 잡지 『佛教史林』을 간행하고, 또한 高島米峰들과 佛教清徒同志會를 조직하여 잡지 『新佛教』를 편집. 중국불교사의 연구에 업적을 남겼다. 특히 법화·천태교학 연구분야에서 빼놓 수 없는 인물로서 알려져 있다. 저서는 다음과 같다.

『支那佛教史綱』, 『支那佛教精史』, 『印度佛教史綱』, 『八宗綱要講話』, 『聖德太子の研究』 등이 있으나 그중에서도 천태교학과 직접 관계가 있는 서적으로서는 天台四教儀에 대한 연구가 유명하다.

境野黃洋 『天台四教儀講話』(丙午出版社, 大 13, 國書刊行會 昭和 57년)

境野黃洋 『法華經講義』 (大藏經講座 1, 名著出版 昭和 9年 8月 初版 發行, 昭和 61年 2月 復刻版 第 5刷 發行)

4) 島地大等(시마지 다이도우, 1875~1927)

明治·大正시대의 淨土眞宗 本願寺派의 학승으로서, 新潟 三郷에서 新潟 勝念寺 2男으로 태어 났다. 西本願寺의 大學林에 재학중 父 大圓에게 천태학을 배우고, 1902년 島地默雷의 양자가 되어 岩手 願教寺에 입사 했다. 同年 佛教史 調査를 위해 인도를 향함. 귀국 후에도 比叡山, 高野山에서 연구를 계속. 25년 勸學에 취임 하고, 그후 曹洞宗, 宗教大學, 日蓮宗大學, 天台宗大學등의 강사로서 활약 했다. 天台教學에 정통하고, 그의 학풍은 고전의 전통적 해석을 존중 했다. 저서로는, 『眞宗聖典』, 『佛教大綱』, 『天台教學史』, 『漢和對照妙法蓮華經』 등이 있다. 그중에서도 『天台教學史』는 천태학 계론서로서 필독서이며, 이 책 한권으로서 천태교학의 대강을 파악할 수 있는 명저이다.

島地大等 『天台教學史』, 中山書房, 1933(1978 再版)

5) 佐佐木憲德(사사키 겐토쿠, 1886~1972)

熊本縣 上益城郡 大川村(現嘉島町)의 淨土眞宗 本願寺波 光恩寺주지 佐佐木惠城師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佐賀의 第5佛敎中을 거쳐, 京都의 佛敎大學(龍谷大學)을 명치 44년 졸업. 大正2년 동경으로 진출하여 『佛敎大辭彙』편찬에 7년동안 참가했다. 그후 大正 8년에 高野山大學강사및 조교수로 임명되었지만, 大正 11년 父惠城師의 示寂으로 고향에 돌아가 自坊의 주지가 되다. 昭和9년 4월 龍谷大學敎授에 취임하여 재직 17년에 이른다. 그동안에 眞言宗京都專門學校(種智院大學)에 15년, 大谷大學 2년동안의 강사로서 천태학을 강했다. 또한 昭和9년에는 本願寺波의 學階司敎에, 昭和11년 夏安居에는 부강자(副講者)로서 『山家學生式』을 강하고 昭和20년 安居때는 『大乘本生心地觀經』을 강하다. 다시 昭和21년에는 勸學의 學階를 받고, 昭和25년의 안거때는 본강사로서 『大無量壽經』을 강했다.

昭和25년에는 『天台緣起論展開史』의 학위청구 논문으로 文學博士學位를 받다. 그리고 昭和27년 3월부터 熊本市京町佛嚴寺불교강좌에 매월출강하여 『敎行信證』을 강하기 십수년에 미친다. 일생에 간행된 저작은 25부, 연구 논문은 70여편에 달하며, 昭和47년(1972년)7월16일 84세로 생애를 마쳤다. 佐佐木선생의 불교학 연구는 광범위하지만 그중에서도 중핵을 이루는 것은 천태학의 연구이다. 천태법문은 교관이문(敎觀二門)의 쌍수쌍운(雙修雙運)을 특색으로 했다. 우선 천태지관의 연구로부터 처음으로 그 윤원을 찾아 漢魏六祖時代의 禪觀을 연구해서 『禪觀發達史論』을 출판하여 지금까지의 미개척의 분야에 연구의 업적을 남겼다. 그리고 『天台敎學概說』, 『天台敎學』을 간행하였지만 昭和28년에 출판된 『天台緣起論展開史』는 천태의 법문이라면 實相論이라고하는 종래의 전통적인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천태사상에도 연기론이 존재한다는 것을 논증한 획기적인 논문이었다. 이것을 계기로 일본천태의 분야에도 『往生要集概論』, 『山家學生式新釋』등 대저(大著)를 간행하여 학계에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여 학술상의 논쟁을 전개하기도 했다. 선생의 몰후, 그 학덕을 추모하여 문인이나 신도들 중심으로 顯彰운동이 일어나, 昭和53년에는 京都西大谷의 묘지에 「勸學開明院釋憲德和上」의 비가 세워질만한 대학자였다. (佐藤哲英박사가

『日本天台の諸問題』의 서문에서 佐佐木憲德박사의 약력소개를 쓴것을 참고했음.)

선생의 저서와 논문을 천태와 관계가 있는 부분만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저작목록

『佛典における生命論』	(大正 7年 日東堂)
『三論玄義通論』	(昭和 11年 2月 山崎寶文堂)
『往生要集概論』	(昭和 11年 2月 山崎寶文堂)
『山家學生式新釋』	(昭和13年4月 山崎寶文堂)
『天台敎學概說』第一篇 敎判論	(昭和14年 4月 山崎寶文堂)
『摩訶止觀體系讀本』	(昭和14年 5月 山崎寶文堂)
『法華玄義體系讀本』	(昭和16年 5月 山崎寶文堂)
『天台敎學』	(昭和26年 6月 百華苑)
『天台緣起論開史』	(昭和28年1月 永田文昌堂)
『敎行信證入門』	(昭和40年 5月 永田文昌堂)

논문목록

『山家戒體論』(一)(二) (六條學報·91號·92號 明·42·5, 明·42·2)	
『天台の天親法華論採依準用論ず』	(六條學報)(125號 明45年·3)
『天台大師の般若經觀研究一』	(六條學報 140號) (大·二·六)
『天台大師の般若經觀研究二』	(六條學報 157號) (大·三·二)
『大涅槃經集解の研究上』	(六條學報 190號) (大·六·八·十)
『天台の般若經觀の研究三』	(六條學報 199號) (大·七·四·十)
『支那天台と密敎』	(龍谷學報 310號) (昭·九·十)
『大乘止觀法門の檢尋』	(禪觀發展史論附錄)(昭·十·六)
『四種三昧と事理二觀』	(上同)
『天台智者大師の實踐の性格について』	(支那佛敎史學三卷二)(昭·十四·七)
『正像末の三時に關する法華經の所說と竝に天台諸神の解明に就て』	(龍谷學報 326號) (昭·14·12)
『日本天台の獨自性の一面相』(ことに傳敎大師の敎字を通じて)	(龍谷學報 329號) (昭·15·12)
『蓮華座考』	(顯眞學報 39號) (昭·17·5)
『蓮華座考』	(顯眞學報 40號) (昭·17·6)

- 「法華密教の研究」 (佛教學論纂) (昭·19·5)
 「佛教の懺悔考」 (縣眞學苑論集 49號)(昭·33·4)
 「天台家における即の思想」 (顯眞學園論集51號) 昭·35·11)

6) 坂本幸男(사카모토 유키오, 1899~1973)

明治 32년 9월 岡山縣에서 출생. 大正 13년 東京大學 文學部 印度哲學科 卒業. 昭和 4년 同 大學 大學院 수로. 東京 문리과 대학, 東北大學, 九州大學 강사를 지나 立正大學教授, 法華文化研究所長, 東洋大學講師, 身延山短期大學講師를 역임. 文學博士. 주저로서는 『華嚴經探玄記譯註』 『華嚴學の研究』 『法華經譯註』 編著 『法華經の思想と文化』 등이 있다.

그외에 중요논문은 「緣起の思想」(『佛教の思想 1』 講座佛教 1, 東京 大藏出版 昭和 34년 1월 초판발행, 昭和 57년 5월 改訂 5판 발행)이 있다. 그 목차를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 | |
|---------------|------------|
| 1 緣起思想の發見 | pp.195-206 |
| 2 原始佛教の緣起觀 | pp.207-212 |
| 3 緣起觀の展開 | pp.212-230 |
| 1) 小乘佛教の緣起觀 | pp.212-218 |
| 2) 大乘中觀波の緣起觀 | pp.219-224 |
| 3) 大乘瑜伽行派の緣起觀 | pp.224-228 |
| 4) 大乘地論波の緣起觀 | pp.228-230 |
| 4 天台の緣起觀 | pp.230-237 |
| 5 華嚴の緣起觀 | pp.238-248 |

7) 稻葉圓成(이나바 엔조 1881~1950, 東海同朋大學學長)

중요저서로서 『天台四教儀新釋』(昭和28年11月1日復刊1刷, 平成元年6月25日第7刷)이 있다. 선생의 제자는 安藤俊雄 博士이다.

8) 佐藤哲英(사토 데즈에이, 1902~1969, 龍谷大學名譽教授)

三重縣에서 출생, 淨土眞宗本願寺派. 昭和3년 龍谷大學文學部卒業. 昭和 6년 龍谷大學 연구과를 졸업하고, 昭和10年本願寺宗學院卒業. 龍谷大學 專門部講師, 21년 同大學文學部助教授, 22년 同 教授. 昭和 34년 『天台智

顓の著作に關する研究』로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고, 36년에 『天台大師の研究』로서 공간되었다. 昭和 43년龍谷大學 定年退職. 44년 本願寺派에서 권학 한후, 龍谷大學名譽教授. 박사는 昭和10년부터 43년까지 龍谷大學에 봉직하고, 시종일관 천태사상의 연구에 종사했다.

저서로는 天台大師の研究, 念佛式の研究, 叡山淨土教の研究, 續·天台大師の研究등이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天台大師の研究와 續·天台大師の研究는 中國 天台教學의 연구를 위해 중요한 자료로서, 종래의 교의 연구나 字義 해석과는 달리, 저술의 성립사적인 측면에서 연구 되어 학계의 문제를 불러 일으킨 장본인 이기도 하다. 또한 지의의 전 저술을 대상으로 하여, 지의 親撰, 眞說, 假託을 종합적으로 음미, 검토한 서물이기도 하다. 또한 천태 이전의 南岳慧思에 관한 연구는, 학계의 관심을 모은 중요한 성과로서 알려져 있다.

사토박사는, 세키쿠치(關口眞大)박사가 제시한, 「五時八教는 천태교학이 아니다」라고 하는 문제 제시에 대한 반론의 입장으로, 수년간에 걸친 논쟁으로 일본 학계의 주목이 되었던 인물로도 유명하다. 이 천태교판의 오시팔교의 논쟁은, 종래의 천태교학 입문서로서 일컬어 왔던 高麗諦觀 『天台四教儀』의 페지론까지 진전 되어, 이것은 일본 학계 뿐만 아니라, 일본 천태종내의 역사적인 심각한 사건이었던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佐藤哲英박사의 저서 『續·天台大師の研究』에 당시 논쟁(論爭)이 되었던 원고가 실려 있고, 또한 關口眞大 編著 『天台教學の研究』에도 상세하게 게재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중요한 자료가 된다.

- | | |
|----------------------------------|----------------------|
| 『天台大師の研究』 | (京都, 百華苑, 昭和 36年) |
| 『叡山淨土教の研究』 | (京都, 上同, 54·3) |
| 『續·天台大師の研究』 | (上同, 昭和 56年) |
| 『天台大師の三諦三觀思想』 | (印佛研 1·1, 27·7) |
| 『摩訶止觀の一念三千說に對する疑義』 | (上同 7·1, 33·12) |
| 『天台大師における圓教行位の形成』 | (上同 10·2(20), 37·3) |
| 『天台大師における四種三昧の形成過程』 | (上同 12·2(24), 39·3) |
| 『性惡思想の創唱者は智顓か灌頂か—安藤教授の反論に對する疑問—』 | (印佛研 14·2(28), 41·3) |

- 「南岳慧思の四十二字門について」 (上同 16·2(32), 43·3)
 「關口博士の五時八教廢棄論への疑義」(上同 23·2(46), 50·3)
 「天台五時八教論について—關口博士の疑義二十五個條に對する回答」
 (上同 24·1(47), 50·12)
 「天台大師の教相論について—關口博士の所論に關連して」
 (上同 25·1(49), 51·12)
 「文獻としての天台三大部—關口博士との論争と立場の相違」
 (上同 26·1(51), 52·12)
 「阿含における二諦關係の資料」 (宗學院論集·眞宗本願寺派 10輯, 7·7)
 「天台『觀經疏』の再吟味」 (上同 23, 12·2)
 「天台大師と觀音信仰」 (淺草寺佛教文化講座 第12集, 昭和43·10)
 「大藏經索引の編纂と刊行」 (大正新脩大藏經會員通信第19號(第29卷昆曇部4))
 「三諦三觀思想の起原及び發達」 (日本佛教學會年報第15號, 昭和25·9)
 「天台仁王疏の成立に關する研究」 (日華佛教研究會年報第2年, 昭和12·9)
 「日本佛教の實踐法」 (佛教學研究(龍谷大學)12·13, 昭和31·6)
 「璣珞經の成立に關する研究」 (龍谷大學論集284, 昭和 4·2)
 「上 同(2)」 (上同 285, 4·4)
 「天台維摩疏の研究序說」 (上同 307·308, 8·11)
 「西方懺悔法に關する研究」 (上同 338, 25·3)
 「念佛式の作者について」 (上同 353, 31·11)
 「三論學派における約教二諦說の系譜」(上同 380, 41·3)

9) 多田厚隆(다다 교류, 1902~1993, 大正大學名譽教授)

明治·昭和시대의 천태종 승려로서, 도찌기縣 日光에서 출생하여, 大正 十三年 神奈川縣 奏野市 命德寺 多田孝城의 제자가 되어, 大正 15년 四度 加行, 昭和 2년 比叡山 鷄足院에 入壇 灌頂하고, 昭和 5년 大正大學 佛教學科를 졸업한 후, 昭和 34년 大正大學교수로 역임. 昭和 48년 대정대학 명예교수가 되다. 「摩訶止觀」·「金鐔論」등의 國譯 및 解題脚註, 「雜雜私用抄」·「義釋搜決」의 諸異本對校(天台宗全書)등에 종사했다. 현재 천태학회 회장에 재직 중이다. 천태학에 관한 제논문은 「天台小止觀の偽撰考」·「天台の維摩部について」·「天台の觀境について」등이 있으나 「實相의 哲學」(『講座佛教』第 2卷 佛教의 思想 2. 東京 大藏出版 昭和 33年 3月初版, 昭和 56年 4月 改訂 4版 發行)은天台敎學에 있어서 중요한 논문이기 때문에 간단히 그

목차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 實相ということ-----pp.53-56
實相의 意味—漢譯語의 實相—實相의 性格
- 2 實相論의 起原과 展開-----pp.56-65
釋尊의 立場—空義의 實相—實相論의 開拓者—龍樹實相論의 二方向—
諸法不可得—生きた眞實
- 3 天台實相論의 大成-----pp.66-74
實相論의 大成—不思議—思議と不思議—法華經의 實相—
開會의 思想—菩提心
- 4 實相의 樣態(圓融法界·三觀と三惑)-----pp.74-84
圓融法界—空間的圓融—時間的圓融—迷いと悟り—六即—三種의 まよい
—空觀—假觀—中道觀—釋尊への復歸
- 5 融即互具(一心三觀と一念三千)-----pp.85-88
十法界三諦의 境—具의 思想—一心三觀의 運心
- 6 實相とその體得(一念三千と止觀行)-----pp.89-101
一念三千とは—三種의 世間—三種世間と緣起—十如是—三種의 讀みかた—
現前の一念—止觀の行爲
- 7 むすび-----pp.102

多田厚隆先生頌壽記念『天台敎學の研究』(平成2年3月30日, 東京 山喜房佛書林)에 저서 및 논문이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10) 山崎 宏(야마자키 히로시 1903-1967)

明治 36년 4월 新潟縣 출신으로 昭和 2년 東京高等師範學校 문과 제1부를 졸업. 사범학교 진학은 육영에 일생을 바친 尊父 信吾氏의 강한 신념에 의한 것으로 박사의 형제는 모두 사범학교 출신으로 의무교육에 헌신한 집안이다. 후년 信吾氏는 교육공로자로서 新潟縣으로 부터 표창을 받았다. 박사는 昭和 8년 東京문리과대학 동양사학과를 졸업한 후 곧 모교 조수로 임명되고, 이후 昭和 16년 동경문리과대학 강사. 昭和 23년 동경문리과대학교수를 역임. 昭和 25년 「隋朝の佛教政策の研究」를 가지고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昭和 25년 동경교육대학 교수. 昭和 33년 일본 역사학 협회 위원장으로 임명 되다. 昭和 38년 東京義塾大學 大學院 文學科

講師. 昭和 42년 3월 정년에 의해 동경교육대학(문학부) 교수를 퇴임. 同年 立正大學(文學部) 교수로 임명. 박사의 支那佛敎史의 연구는 박사의 전문의 영역이다. 특히 지나불교의 전개를 시대의 政治·社會·經濟를 관련하여 해명하고 史學界에 있어서 中國 佛敎 研究의 제일인자로서 알려져 있다. 또한 박사의 학식은 中國 뿐만 아니라 印度史를 걸쳐 지리학까지 미치는 광범한 지견의 소유자로서도 유명하다. 특히 博士의 저서 『隋唐佛敎史の研究』는 천태사상의 배경을 연구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이다. 박사의 저서와 논문을 천태교학과 관련되는 부분만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著書

- 『隋の高祖文帝の佛敎治國策』 (昭和 9年 2月 佛敎法政經濟研究所)
 『概説東洋史』 共著 (昭和 13年 4月 同文書院)
 『東洋』 (昭和15年 2月 建文館)
 『東洋史』 (昭和15年 7月 研究社)
 『東洋中世史』(師範大學講座) (昭和16年 6月 建文館)
 『支那中世佛敎の展開』 (昭和17年10月 清水書店)
 『東洋思想の古代日本』(編著) (昭和23年 3月 清水書店)
 『新東洋史』 (昭和24年 5月 三省堂)
 『新東洋史』(上古·中世 有高嚴博士の編著) (昭和24年 9月 日英社)
 『東洋史通説』 (昭和25年 6月 世界社)
 『新綜合世界史』(編著) (昭和25年11月 金星堂)
 『中國の社會と宗教』(東洋史學論集二 編著) (昭和29年 9月 不昧堂)
 『隋唐佛敎史の研究』 (昭和42年 3月 法藏館)

(2) 論文

- 「隋唐時代の佛徒の設「齊會」について」 (昭和6年12月 學藝 四)
 「隋の煬帝の留學僧に對する特殊的敎化施設に就いて」 (昭和9年 9月 歴史教育9-6)
 「東晉時代における北支諸胡族の一面」 (昭和9年11月 史潮4-3)
 「支那における佛徒の對論に就いて」 (昭和10年6月 佛敎1-2)
 「布施思想について」 (昭和11年 4月 佛敎2-3)
 「唐代における僧尼所隸の問題」 (昭和14年4月 支那佛敎史學3-1)
 이 이외에도 수십편의 논문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생략 하기로 한다.

『山崎先生 退官記念 東洋史學論集』(東京 大安 昭和 42年 12月)을 참조.

11) 横超慧日(오초 에니치 1906~, 大谷大學名譽敎授)

明治 39年 愛知縣生으로 東京大學 文學部 印度哲學科 卒. 주저로서는 『法華經研究』, 『法華經序說』. 編著로서는 『北魏佛敎の研究』, 『法華思想』 등이 있다. 특히 北魏佛敎의 연구는 「南岳慧思」의 연구와 「天台智顗」연구의 시대적 배경을 연구함에 있어서 반드시 읽어 두어야 할 서적이다. 그리고 오초 에니치박사는 中國 佛敎史 研究의 대성자인 常盤大正博士의 제자이며, 논문은 다소 있으나 그중에서도 중요논문만 소개를하고 나머지는 부록 연구자료편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논문

- 「多寶塔思想の起源」 (印佛研 第2卷 1號(3), 昭和28·9)
 「無量義經にちて」 (上 同 2 2 (4), 29·3)
 「速疾成佛の思想」 (上 同 3 1 (5), 29·9)
 「中國佛敎初期の禪觀」 (上 同 4 1 (7), 31·1)
 「釋道安の翻譯論」 (上 同 5 2 (10), 32·3)
 「新出資料·四論玄義の初章中假義」(上 同 7 1 (13), 33·12)
 「敎と宗について」 (上 同 9 2 (18), 36·3)
 「鳩摩羅什の法身說」 (上 同 10 1 (19), 37·1)
 「法華經と佛傳一特に說詩論を中心として」 (上 同 11 1 (21), 38·1)
 「北魏佛敎の基本的課題」 (上 同 14 2 (28), 41·3)
 「明末佛敎と基督教との相互批判」(大谷學報 29卷 2號, 昭和24年 10月)
 「上 同 (下)」(上 同 29 3·4, 25 5)
 「天台智顗の法華三昧」 (上 同 35 3, 30 12)
 「鳩摩羅什の翻譯」 (上 同 37 4, 33 3)
 「佛敎と女性」 (上 同 44 3, 40 3)
 「親鸞と天台學一三願轉入と五時敎判との關係について」 (上 同 46 4, 42 2)
 「涅槃經の說時について」 (上 同 51 1, 46 7)
 「竺道生撰〔法華經疏〕の研究」 (大谷大學研究年報 5, 27·12)
 「大乘大義章における法身說」 (上 同 17, 40·6)

- 「五障説と女人成佛」 (教化研究 第70・71號, 昭和48・10)
 「北支那における佛跡探求」 (現代佛教 第120, 昭和 9・12)
 「釋經史考」 (支那佛教史學 1・1, 昭和12・ 4)
 「支那淨土教における三乘觀」 (上 同 3・4, 14・12)
 「戒壇について(上)」 (上 同 5・1, 16・ 6)
 「上 同 (中)」 (上 同 5・2, 16・ 8)
 「布施浩岳著[涅槃宗の研究]を読む」 (上 同 7・2, 18・ 8)
 「圓頓戒に就きて」 (宗教研究 新第 6卷 第 3號)
 「橋川正氏の綜合日本佛教史」 (上 同 10 3)
 「支那佛教における國民思想」 (上 同 通年118號, 18・12)
 「一乘と三乘」 (聖德太子研究第14號, 昭和55・12)
 「新出版藏經を見て」 (東方學報(京都) 第5冊續編, 昭和10・7)
 「淨土教における聲聞思想の發展」 (上 同 10・ 2 , 14・12)
 「支那佛教における大乘思想の興起」 (上 同 14・ 2 , 18・ 7)
 「天台智顗の證悟の背景について」 (東洋學術研究 第14卷第1號, 昭和50年 1月)
 「法華思想と現代」 (上 同 15 5 , 51・ 9)
 「佛教における宗教的自覺」 (日本佛教論叢(東京) 第 1輯, 昭和19年 7月)
 「經典解釋における玄談と科文」 (ピタカ第8年6號, 昭和15・ 8)
 「中國佛教への道しるべ(2)」 (佛教學セミナ 第 2號, 昭和40・10)
 「柳田聖山・初期禪宗史書の研究」 (上 同 7 , 43・ 5)
 「常盤大正先生—中國佛教史研究の大成者」 (佛教學セミナ 第 8號, 昭和43・10)
 「劉宋慧觀の法華經觀」 (上 同 13 , 46・ 5)
 「中國佛教研究法私見」 (上 同 19 , 49・ 5)
 「成佛の道と業—般若經と涅槃經を中心に—」 (上 同 20 , 49・10)
 「佛教學徒の反省」 (上 同 24 , 51・10)
 「惠谷隆戒氏著[圓頓戒概論]」 (佛教研究 第 1卷 第 3號, 昭和12・ 9)
 「法華經學における佛身無常説」 (上 同 3 5 , 14・10)
 「支那天台研究の現状」 (上 同 5 5・6 , 16・12)
 「法華經をめぐる佛性論争」 (佛教思想史(平樂寺書店) 第4號, 昭和56年12月)
 「インド佛教の傳來」 (『中國の佛教』講座佛教4, 昭和56年 4月改訂4版, 大藏出版)

「中國における法華經註釋書の研究」(坂本幸男編『法華經の中國的展開』1975・8・
1 平樂寺書店)

「中國南北朝時代の佛教學風」(日本佛教學會年報第17號, 昭和27年 6月)

12) 關口眞大(세키구치 신타이 1907~1986, 大正大學名譽教授·天台宗勸
學大僧正)

明治40年3月15日 토치기縣에서 출생하여, 1931년 大正大學文學部를
卒業, 大正大學助教授를 거쳐, 昭和21年교수에 취임, 東京大學講師, 文學
博士, 關口眞大先生の 학위논문은「天台止觀の成立と達磨禪」이지만, 다시
『達磨の研究』『天台止觀の研究』(岩波書店)로, 그리고 『禪宗思想史』(山喜房
佛書林)로서 발표, 또한 『摩訶止觀—禪の思想原理』上下(岩波文庫)로 간행
되었다. 선생의 필생의 연구과제라고 한다면, 불교의 수도실천의 해명에
있었다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다만 실천도의 연구뿐만이 아닌, 불교의 근
본이념에 통하는 대 문제이었다. 선생은 학술연구의 간행이외에도 수필·
개몽서등도 많으며, 방송을 통해서도 활약은 보살도의 실천자로서 알려져
있다. 성격은, 표면은 아주 부드러운가 내면은 엄격한 비판정신으로서 지
도했다고 전한다. 인간성으로서는 한번 접해본 사람은 언제나 마음속에
남는 인격의 소유자였다고 하고 있다.

저서

- 『昭和校訂天台四教儀』關口眞大 校訂, (昭和10年 4月發行, 昭和58年4月30版發
行, 山喜房佛書林)
 『天台小止觀の研究』(昭和29年 3月 第一版, 昭和39年11月 第5版發行, 昭和
49年 5月 第七版發行, 東京 山喜房佛書林)
 『天台止觀の研究』(1969年7月 第1刷發行, 1985年9月 第2刷發行, 岩波書店)
 『禪宗思想史』(昭和39年7月 發行, 昭和41年10月 第3版發行, 山喜房佛書林)
 『天台教學の研究』關口 眞大編著(昭和53年10月發行, 大東出版社)
 『佛教の實踐原理』關口 眞大編 (昭和52年12月發行, 山喜房佛書林)
 『摩訶止觀』上・下 關口 眞大校注(1966年11月, 第1刷發行, 1989年12月, 第18刷
發行, 岩波書店)
 「天台宗における達磨禪」 (印佛研 7・2, (14), 34・3)
 「受菩薩戒儀(達磨本)について」 (印佛研 9・2, (18), 36・3)

- 「臨濟禪と曹洞禪」 (上同 14·2, (28), 41·3)
 「公案禪と默照禪」 (上同 16·2, (32), 43·3)
 「宗學の本質」 (上同 17·2, (34), 44·3)
 「五時教判は天台教判に非ず」 (上同 21·1, (41), 47·12)
 「天台教相論」 (上同 22·1, (43), 48·12)
 「韓國佛教の特色」 (上同 23·1, (45), 49·12)
 「天台教相論について一佐藤博士の疑義に對する疑義」
 (印佛研 24·1, (47), 50·12)
 「天台大師教學の綱要」 (上同 25·1, (49), 51·12)
 「頓漸五味論」 (上同 26·1, (51), 52·12)
 「天台大師と摩訶止觀」 (三藏一國譯一切經和漢撰述部月報157, 53·7)
 「達摩禪師觀門(燉煌出土)に於て」(宗教研究146號, 30·12)
 「禪宗における心の問題」 (上同 150, 31·12)
 「牛頭禪の歴史と達磨禪」 (宗教文化(大正大學内), 第14輯, 34·3)
 「淺井圓道著『上古日本天台本門思想史』」
 (鈴木學術財團研究年報10, 49·5)
 「香禪一味」 (淺草寺佛教文化講座第 8輯, 39·6)
 「天台止觀における坐禪」 (大正大學研究紀要42輯, 32·3)
 「三種止觀の成立」 (上同 47, 37·3)
 「五時八教の教判の起元」 (上同 61, 50·11)
 「天台教相に關する論爭の經過と結末」
 (大正大學研究紀要 62輯, 51·11)
 「燉煌出土〔證心論〕は天台大師の撰述たるを論ず」
 (台門學報·東京, 第 2號, 31·11)
 「上 同 (2)」(上同, 3, 32·6)
 「坐禪と二十五方便」 (天台學報 2號, 昭和36· 9)
 「天台小止觀の成立について」 (上同 5, 37·10)
 「五時教判論」 (上同 8, 42·1)
 「化法四教論」 (上同 11, 44·10)
 「五時八教論」 (上同 14, 47·11)
 「四種三昧論」 (上同 15, 48·10)
 「五時八教に代えるべきもの一〔天台四教儀〕に代えるべきもの一」
 (天台學報16號, 昭和49·10)
 「三種教相論」 (上同 18, 51·11)

- 「韓國天台宗の實狀」 (上同 19, 52·11)
 「〔五時八教〕は天台宗を亡ぼす」(上同 20, 53·11)
 「佛教の實踐原理」 (關口眞大編『佛教の實踐原理』, 昭和52·12, 山喜房佛書林)

13) 安藤俊雄(안도 도시오, 1909~1973, 大谷大學)

明治·昭和시대의 학자로서, 愛知縣 渥美郡 田原町 野田字神成에서 출생, 그후 昭和 8년 九州大學 법문학부 철학과를 졸업하고, 昭和11년 京都大學 文學部 大學院을 수료, 昭和 30년 文學博士學位를 취득했다. 昭和 31년 大谷大學 文學部教授, 昭和 45년 大谷大學 學長으로 취임하여, 昭和 48년서거 할때 까지, 오직 中國天台의 근본사상을 해명 하는 것에 일생을 바쳤다. 박사의天台學의 특색은, 昭和 28년의「天台性具思想論」및 昭和 34년의「天台思想史」의 兩著에 잘 나타나 있다.

「天台性具思想論」의 주제는, 唐宋時代에 이르자, 주로 華嚴宗의 性起哲學과 대결하고 있던 性具哲學의 본질을 해명 하는 곳에 있다. 특히天台의 소위 極相違의 측면이 화엄의 유심론적 성격과 심하게 대립하여, 논쟁을 거듭하면서, 圓融三諦의 包越的인 논리를 밝힌 것이다. 계속해서學位論文으로서 발표한「天台思想史」는, 一念三千論을 중심으로, 宋代의 四明知禮이후, 元明에 이룰때까지의天台止觀의 전개를 연구한 것이다. 이 연구 분야는, 일본에 있어서도 오랜동안 미개척의 분야 였지만, 박사의 연구로 인해 복잡한 이 시대의 천태사상이 새롭게 해명 되었던 것이다. 또한 계속해서『性具說の根本精神』을 발표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박사는, 지의의 性具說을 가장 단적으로 표명한 것이, 如來性惡說인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昭和 35년경 부터, 이 如來性惡說의 創始者를 둘러싸고, 龍谷大學의 佐藤哲英博士와 격렬한 논쟁이 계속 되었다. 그 요점을 소개하면,

如來에게도 性으로서 惡을 구축하고 있다는 如來性惡說은, 지의의 講說이라고 전해지고 있는 觀音玄義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상이다. 安藤博士는, 이 性惡法門이야말로天台圓敎의 極意를 구체적으로 佛身論상에서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十界互具등 지의의 性具說로 부터 필연적으로 導出되어 지는 중요한 법문이라고 주장 했다.(「天台性具思想論」)⁶⁸⁾

여기에 대해서, 龍谷大學의 佐藤哲英박사는 精密한 文獻學的 研究를 더 하여, 如來性惡說을 밝히고있는 觀音玄義는 지의의 찬술이 아니고, 高弟 灌頂(562~632)의 찬술이라고 주장 했다.(『續·天台大師の研究』)⁶⁹⁾

이 새로운 학설에 대해서, 安藤俊雄박사는 반론을 (『如來性惡思想の創唱者灌頂說への反論-大谷學報44-1), 다시 佐藤哲英박사가 반론을 가하여 (『性惡思想の創唱者は, 智顗か灌頂か-安藤俊雄教授の反論に對する疑問-』印佛研14-2), 이 양선생의 논쟁은, 당시의 학계에 화제를 불러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금일에도 천태학의 방법론을 둘러싸고 중대한 화제를 남긴 것이다⁷⁰⁾. 이 때부터 安藤선생의 천태연구는, 주로해서 天台止觀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晩年の 연구는 天台淨土敎研究로서 『觀無量壽經疏妙宗鈔概論』이 유명하고, 박사의 연구는 생애를 통해서 중국천태의 근본사상을 해명 함에 있었다. 天台學者인 稻葉圓成教授의 제자이다.

저서와 논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著書

- 『天台性具思想論』 (昭和28年10月, 法藏館)
- 『天台思想史』 (同 34年10月, 同)
- 『慧遠研究』(共編) (同 35年11月, 創文社)
- 『佛敎學序說』(共著) (昭和 36年5月, 平樂寺書店)
- 『佛陀のおしえ』 (昭和38年 2月, 法藏館)
- 『觀無量壽經疏妙宗鈔概論』 (昭和42年 7月, 眞宗大谷派宗務所出版部)
- 『天台學』-根本思想とその展開- (昭和43年4月, 平樂寺書店)
- 『最澄』(日本思想體系 第 5卷)(共著)(昭和49年5月, 岩波書店)

이 저서 가운데서도 『天台性具思想論』, 『天台思想史』, 『天台學』등은 중국 교학연구에 있어서 필독서로 추천하고 싶으며, 특히 『天台學』은 중국 천태교학의 개론서로서, 1968년 발행이후 1982년도 6刷 발행된 책이다. 특히 천태-담연-지례의 사상에 대해서 그 대요를 설하고, 天台學의 敎相

68) 『如來性惡思想の創設者』(大谷學報 44-1, 昭和 39년 10월)
『天台學 -根本思想とその展開』(京都, 平樂寺書店 1968년 6월 발행, 1982년 제 6刷) pp.387~409.

69) 佐藤哲英『續·天台大師の研究』pp.411~435

70) 安藤俊雄著『天台學論集』(昭和50년발행, 平樂寺書店)(p.519~520).

門과 觀心門의 개요를 설한 것으로서, 이 책의 한권으로 중국천태의 대체의 윤곽은 파악할 수 있는 책이다.

(2) 論文

- 『智顗の實相論』 (昭和14年12月, 眞宗學報)
- 『絶待止觀』-智顗の止觀思想- (昭和17年3月, 眞宗學報27)
- 『天台止觀の中心問題』 (昭和29年3月, 印度學佛敎學研究2-2)
- 『慧思の法華思想』 (昭和30年11月, 山口博士還曆記念論叢)
- 『天台止觀の中心問題』 (昭和31年1月, 同朋學報2)
- 『性具說の根本精神』 (昭和31年6月, 東海佛敎2)
- 『一念三千說の形成』 (昭和31年12月, 大谷學報36-3)
- 『天台初期の禪法』 (同 32年3月, 同 36-4)
- 『天台四種三昧について』-(一行三昧と隨意三昧)
(昭和33年6月, 大谷學報38-1)
- 『天台大師の淨土敎』-晩年の苦悶- (同 33年9月, 同 38-2)
- 『圓頓止觀の研究』(十乘觀法の修行規程について)
(昭和34年1月, 大谷大學研究年譜24)
- 『天台止觀の成立過程』 (昭和37年10月, 塚本博士還曆記念論文集)
- 『天台法界觀の系譜』 (昭和40年5月, 佛敎學セミナ1)
- 『天台佛身觀の主體的性格』 (同 44年3月, 大谷學報48-4)
- 『法華經と天台敎學』 (昭和44年5月, 横越慧日編『北魏佛敎の研究』)

이상의 논문으로 보아 박사의 천태교학은, 천태의 관심문(실천)즉 지관에 관한 논문이 대부분을 차지 하고있다.

14) 玉城康四郎(다마키 고우시로 1915~, 東京大學名譽敎授)

박사는, 熊本市 迎町 출신으로, 昭和 15년 東京 帝國 大學 文學部 印度哲學 梵文學科를 졸업 하고, 동대학원을 입학하여 昭和 23년에는 熊本 語學 專門學校교수로서 시작된다. 昭和 25년에는 熊本短期大學 助敎授, 昭和 32년 東洋大學敎授, 昭和 34년 東京大學 文學部 助敎授, 『心把捉の展開』로서 文學博士學位를 취득하여, 昭和39년 동 대학교수로서 활약 하다가, 昭和51년에 정년 퇴직 한 후, 東北大學文學部 敎授로 있을 당시 東京大學名譽敎授가 되었다. 博士의 논문은 인도, 중국불교, 그리고 비교사상

관계등 다방면으로 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學位論文으로서『心把捉の展開-天台實相觀-』이다. 그중에서도天台敎學과 관련되는 저술과 논문은 다음과 같다.

著書

- 『心把捉の展開』 (昭和36·3, 山喜房佛書林)
 『中國佛教思想の形成』 (第一卷 昭和46·7, 筑摩書房)
 『永遠の世界觀, 華嚴經』 (昭和40·9, 筑摩書房)
 (李元燮譯『永遠の宇宙觀』1969·11, 玄岩社)
 『近代印度思想の形成』 (昭和40·9, 東京大學出版會)
 『日本佛教思想論』(上) (昭和49·1, 平樂寺書店)

編著

- 『講座東洋思想』 (10卷, 昭和42·2~12, 宇野精一·中村元·玉城編著, 東京大學出版會)
 『道元集』 (昭和44·3, 西尾實·水野彌穗子譯注, 筑摩書房)

論文

- 「根本識に關する若干の問題」 (印佛研 2- 1(3), 28·9)
 「天台實相觀における心の把捉の仕方」 (上 同 2- 2(4), 29·3)
 「湛然における心把捉の客觀性」 (上 同 4-1(7), 31·1)
 「知體の色具問題」 (印佛研 6-1(11), 33·1)
 「業異熟の根本問題」 (上 同 27-2(54), 54·3)
 「ブッダにおける冥想の原點」 (上 同 28-1(55), 54·12)
 「シェリングの惡と大乘思想における無明との對比」 (宗教研究 142, 昭和 29·12)
 「勝又俊敎著·佛教における心識說の研究」 (上 同 36-1(172), 37·9)
 「田村芳朗著·鎌倉新佛教思想の研究」 (上 同 39-2(185), 40·7)
 「即色義の批判」 (上 同 42-3(198), 44·3)
 「佛教の眞理」 (上 同 45-3(210), 47·3)
 「念佛の意味」 (上 同 49-3(226), 51·3)
 「般若波羅蜜多の種種相」 (上 同 50-2(230), 51·12)

- 「古田紹欽著『佛教と文學』」 (鈴木學術財團研究年報10, 昭和49·5)
 「山内得立著『ロゴスとレンマ』」 (上 同 11, 50·9)
 「宮本正尊著『明治佛教の思潮』」 (上 同 12-13, 51·10)
 「高峯了州『華嚴論集』」 (上 同 14, 52·10)
 「佛教研究の反省」 (東北印度學宗教學會論集第 5號, 昭和53·12)
 「神秘性に關する新約聖書と原始經典」 (日本佛教學會年報(佛教敎團の諸問題)39號, 昭和49·3)
 「佛教における悟りと救い」 (日本佛教學會年報(悟りと救い—その理念と方法)44號, 昭和54·3)
 「人間とは何か」 (比較思想研究 第 3號, 昭和51·12)
 「佛教における體系と創造」 (佛敎學 세미나 第 8號, 昭和43·10)
 「佛教の無」 (『實存主義』40號, 昭和46·6 理想社)
 「業より見た生死觀」 (『大法輪』35-5, 昭和43·5 大法輪閣)
 「大乘起信論の 根本問題-本論の理解と批判を含めて止觀の實踐におよぶ-」 (『止觀の研究』, 昭和50·11 岩波書店)
 「佛教における佛の根源態」 (『玉城博士記念論集』, 昭和52·11 春秋社)
 「天台敎學における菩薩道觀」 (西義雄編『大乘菩薩道の研究』, 昭和43·3)
 「空思想への反省(上)」 (佛教思想6『空』佛教思想研究會編, 1981·12·20\1989·1·20·4刷·平樂寺書店)
 「上 同 (下)」 (佛教思想7 1982·4·20, 1988·11·20·2刷, 上 同)
 「法華佛教における佛陀論の展開」(渡邊實陽編『法華佛教の佛陀論と衆生論』, 1985·9·12, 平樂寺書店)

15) 大久保 良順(오오쿠보 료준 1915~, 大正大學名譽敎授)
 新奈川縣에서 출생. 昭和13년 大正大學 佛敎學部 天台學科 卒業. 大正大學敎授, 大正大學 學長을 지냄.
 저서와 주논문은 다음과 같다.

- 岩波思想大系『天台本覺論』共著(岩波書店)
 佛典講座 『一乘要決』(平成2年 東京 大藏出版)
 『最證』『日本佛教の宗祖』(東京堂)
 『觀音經入門』(大藏出版)

- 「中古天台口傳法門と淨土教」 (印佛研16-1(31), 42·12)
 「天台口傳法門と密教」 (上 同 17-2(34), 44·3)
 「六祖門下の文句研究と圓鏡について」 (叡山學報第4號(通刊24), 昭和40·3)
 「天台藝術序論」 (山家學報 新第12號, 昭和14·3)
 「日本天台觀心主義教學に關する試論」 (宗教文化 第3輯, 昭和25·7)
 「天台口傳法門の禪宗」 (大正大學研究紀要 59輯, 昭和49·3)
 「特殊法儀の發生とその意義」 (天台 第4號, 昭和56·11)
 「修禪寺決を中心とする二三の問題」 (天台學報 6, 40·7)
 「重受戒灌頂の興起」 (上 同 22, 55·11)
 「唐代における天台の傳承について」 (日本佛教學會年報17號, 27·6)

16) 野村耀昌(노무라 요쇼 1916~)

노무라박사는 大正 5년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 靑島市에서 출생. 그후 귀국하여 昭和 8년 立正中學을 졸업, 昭和 14년 立正大學 文學部 佛敎學科를卒業. 박사의 전공은 西域史및 中國佛敎史로 학계에 많은 논문과 저서를 남기고 있다. 그리고 화가로서의 일면을 가졌으며 毎日書道展審査會員등으로서 독특한 서풍으로도 유명하다. 日蓮宗 僧侶이며 立正大學교수로서 연구와 교육에 일생을 바친 인물이다. 또한 박사는 戰後의 立正大學의 곤란한 시대에 학문의 등을 지킨 인물로서 알려져 있다. 박사의 전문인 中國佛敎史에 관한 연구, 그리고 天台大師에 관한 연구, 鳩摩羅什에 관한 연구, 漢譯法華經이나 正法華經등 많은 공적을 남겼다. 박사의 저작과 논문은 수십편을 헤아리지만 천태교학과 관련된 저작 부분만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野村耀昌博士古稀記念論集 佛敎史佛敎學論集』(春秋社 昭和 62年)을 참고 바람.

著書

- 『法華經史話』(法華新書 2 平樂寺書店 昭和 30年2月)
 『維摩經』(日本圖書館協會推薦圖書) (寶文館 昭和 34年 4月)
 『三國遺事』全 5 卷 譯註(國譯一切經 史傳部 10 所收) (大東出版社 昭和 37年 7月)
 『周武法難の研究』(東出版 昭和 43年 9月)

- 『付法藏因緣傳』全 5卷 譯註(國譯一切經 護教部 4所收)(大東出版社 昭和 45年 11月)
 『海東高僧傳』全11卷 譯註(國譯一切經 護教部 4所收) (大東出版社 昭和 45年 11月)
 『講座 日蓮 1』(春秋社 昭和 47年 11月)
 『中國佛敎史概說』(中國語譯本) (台灣商務印書館 昭和 47年 7月)
 『法華經信仰の諸形態』法華經研究 6 (編著) (平樂寺書店 昭和 51年 3月)
 『大唐西域記』全 12卷譯註(國譯一切經 史傳部 16 上) (大東出版社 昭和 58年 12月)
 『妙法蓮華經の生いたち』(日蓮宗新聞社 昭和 61年 2月)

17) 石津照璽(이시즈 태루지, 1903~1972, 東北大學敎授)

山口縣出身. 大正15年 東京大學 文學部宗教學科卒. 東北大學學長을 거쳐, 文學博士. 천태지주의 관심에 관한 연구로서 『天台實相論の研究』(昭和22·5, 42·4版 弘文堂書房)가 있다. 주요논문으로서 「宗教哲學の問題と方向」·「信の人間學的根底と機制」(日本佛教學會年報 [佛敎における信の問題] 1963·12, 1986·4·第5刷)가 있다.

18) 山内舜雄(야마노우치 순유, 1920~, 駒澤大學敎授)

- 『禪と天台止觀』(坐禪儀と『天台小止觀』との比較研究)(1986年11月, 大藏出版)
 「新田雅章著『天台實相論の研究』」 (佛敎學論集 12 昭和56·10)
 「經典成立史の立場と天台の敎判」(佐藤泰舜著)をめぐる諸問題-關口眞大博士の「五時敎判論との連關において」(駒澤佛敎紀要 39, 昭和56·3)
 「上 同」(駒澤佛敎紀要 40, 昭和57·3)

19) 田村芳朗(다무라 요시로, 1921~1989)

昭和時代의 불교학자로서, 1949년 東京大學印度哲學梵文學科. 1954년 同大學院. 1965년 東洋大學敎授, 72년 東京大學敎授, 82년 立正大學敎授가되어 日蓮사상의 해명, 그리고 法華經연구및, 특히 日本天台本覺思想에 업적을 남겼다.

저서로서는 『鎌倉新佛敎思想の研究』 『法華經』(中公新書196) 『天台本覺論』(日本思想大系, 共編) 『田村芳朗敎授論集』2卷등이 있다.

천태와 관계된 논문은 다음과 같다.

「法華經における菩薩精神」

(西義雄編『大乘菩薩道の研究』, 1968.3.20, 京都 平樂寺書店)

「法雲の法華義記の研究」

(坂本幸男編『法華經の中國的展開』, 1975. 8.1. 第2刷 京都 平樂寺書店)

「本覺思想における實踐の原理」

(關口眞大編『佛教の實踐原理』, 昭和 52.12.2, 東京 山喜房佛書林)

「善惡一如」(佛教思想 2『惡』佛教思想研究會編, 京都 平樂寺書店, 1917.11.)

「法華信仰と因果」(佛教思想 3『因果』佛教思想研究會編, 京都 平樂寺書店)

「菩薩と苦」(佛教思想 5『苦』佛教思想研究會編, 1980.)

「日本思想における空」(佛教思想 6『空』(上).7(下), 佛教思想研究會編)

(上 1981.12.20, 下 1982.4.20, 京都 平樂寺書店)

「日本天台の時間論」

(渡邊實陽編『法華佛教の佛陀論と衆生論』, 1985.9.12, 京都 平樂寺書店)

20) 鹽入良道(시오이리 료도 1922~1990) 大正大學教授

大正·昭和시대의 학자로서, 長野縣 國分寺住職, 鹽入舜道の 장남으로 출생하여, 昭和 8년 池田長田을 師로 國分寺에서 受戒 得度하고, 그후 昭和 17년 東京帝國大學 文學部 印度哲學 梵文學科에 入學하여 23년 졸업한 후, 同 대학원에 입학. 그리고 大正大學강사, 大正大學 조교수를 지나, 37년에는 日本 印度學 佛教學會賞을受賞. 46년에 大正大學 교수로, 51년 東京大學에서 학위 청구논문 『中國佛教における懺悔』로서 문학박사학위를 취득 했다. 平成 2년 3월, 大正大學에서 추도회가 있기 까지 많은 저술과 논문을 남겼다.

論文

「三諦思想の基調としての假」(昭和32年 3月, 印度學佛教學研究, 5-2)

「懺法の成立と智顗の立場」(上 同, 7-2)

「四種三昧に扱われた智顗の懺法」

(昭和35年 3月, 上 同, 8-2)

「化法四教における行爲の問題」

(昭和37年10月, 『天台學報』第3號)

「中國佛教儀禮における懺法の受容過程」

(昭和38年 3月, 印度佛教學研究, 6-2)

「天台義における四諦について」

(昭和39年 3月, 上 同, 7)

「中國佛教における禮懺と佛名經典」

(昭和39年 3月, 『佛教思想論集』結城教授頌壽記念, 大藏出版社)

「中國佛教における佛名經典の性格とその源流」

(昭和41年, 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紀要, 42冊)

「天台思想の發展」

(昭和42年 8月, 講座『東洋思想』6, 佛教思想 2)

「空の中國的理解と天台空間」(昭和43年3月, 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紀要, 46冊)

「中國佛教の禮懺儀について」(昭和43年8月, 大正新脩大藏經會員通信第54號)

「天台行位說形成に關する諸問題」1.

(大正大學研究紀要, 第54輯)

「天台の 思想」

(昭和48年 8月 天台密教, 〈思想と文化〉)

「初期天台山の教團の性格」(日本佛教學會年譜, 第40號)

「法華懺法と止觀」(昭和50年11月, 關口眞大編『止觀の研究』, 岩波書店)

「大正新脩大藏經索引 第26卷, 續諸宗部」(昭和51年, 大藏出版)

「禪と止觀」(昭和57年 5月, 『大學時報』31卷164號)

「天台智顗の法華經觀」(講座大乘佛教『法華經』春秋社)

「中國初期佛教における禮懺」(那須政隆博士 米壽記念『佛教思想論集』, 昭和59·8)

「新羅元曉大師撰『宗要』の特質」(昭和59年11月, 『天台學報』第26號)

「漢譯阿含經典における懺法の展開」(昭和60年3月, 『大正大學大學院論集』第7號)

「天台智顗禪師における佛身論の形成」

(多田厚隆先生頌壽記念『天台教學の記念』, 山喜房佛書林)

『中國佛教における懺悔』(昭和51年3月, 學位取得論文)

21) 若杉見龍(와카스기 겐류 1925~1991, 身延山短大教授)

일연종(日蓮宗) 승려로서 중국천태학 전공

「仁王護國般若經疏について」(印佛研22-1(43), 昭和48·12)

「天台智顗の佛性說」(上 同 28-1(55), 54·12)

「智顗と吉藏一五百由旬の解釋をめぐる」

(上 同 29-2(58), 56·3)

「觀音玄義の研究」

(棲神 32, 昭和33·3)

- 「被接について」 (棲神 50, 53·3)
 「法華玄義成立についての一考察」 (上同 53, 56·3)
 「感應道交の世界—日蓮聖人の身廷生活」(日本佛教學會編〈悟りと救い—その理念と方法—〉, 1979·8, 1989·9 第3刷)
 「『三觀義』『四觀義』における實相論」 (多田厚隆先生頌壽記念『天台教學の研究』, 平成 2年·3月30日)

22) 淺井圓道(아사이 엔도 1927~, 立正大學教授)

長崎縣 출신으로 昭和24년 東京大學 文學部 印度哲學科를 졸업하고,學位 請求 論文『上古日本天台本門思想史』로서 文學博士학위를 취득. 특히 아사이엔도박사는 필자의 천태교학 지도교수로서 『法華文句』의 연구를 십년에 걸쳐 끝내고, 현재 대학원 강의로서 『法華玄義』를 妙樂의 釋籤, 法華經, 法華玄義(國譯一切經), 天台四教儀등을 대조하면서 보고있다. 현재 東京에서 법화삼대부를 읽고있는 학교는 거의 드물기 때문에, 대학원 강의 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다.

저서와 논문은 다음과 같다.

- 『上古日本天台本門思想史』
 (昭和48年 8月, 平成6年 第2 刷, 京都 平樂寺書店)
 『傳教大師』 (法華新書 9 昭和33年 7月)
 『本覺思想の源流と展開』
 (編著『法華經研究』6, 1991·10·, 京都 平樂寺書店)
 『天台本覺論』 (日本思想大系)
 「日蓮成佛門に關する法華思想史」
 (印度學佛教學研究 第5卷 第1號, 昭和32·1)
 「日蓮聖人の五義判の成立について」(上 同 13-1, 40·1)
 「上古日本天台における本覺法門展開上の限界」(上 同 16-1, 42·12)
 「無作三身考」 (印度學佛教學研究 第18卷第1號, 昭和44·12)
 「日蓮の日本天台史觀」 (上 同 20-2, 47·3)
 「日蓮聖人の佛信論の特徴」(上 同 28-2, 55·3)
 「ケルン氏の法華經觀(その1)」 (大崎學報 101 昭和29·7)
 「忠尋の止觀超克思想」 (上 同 103 30·6)
 「法體勝劣論の考察」 (上 同 111 35·2)

- 「法體勝劣論の考察(再)」 (上 同 115 37·12)
 「五義判の形成過程の考察—五義の發表まで—」
 (上 同 118 39·10)
 「方便品壽量品送狀について」 (上 同 121 41·7)
 「曼荼羅私見」 (現代宗教研究 4號 昭和45·3)
 「渡邊實陽『日蓮宗信行論の研究』」
 (鈴木學術財團研究年譜 14 昭和 52·10)
 「日蓮聖人の教學形成と法然教學との關連」
 (棲神 52號, 昭和55年 3月)
 「日蓮撰述書の解題」 (大正新脩大藏經會員通信, 31號 第84卷·續諸宗部15/悉曇部全)
 「日蓮の依憑天台とその超克」(大正大學研究紀要 第61輯, 昭和50年11月)
 「日蓮聖人の傳教大師觀」(日本佛教學會年譜 第22號, 昭和32年 3月)
 「日蓮聖人における人間觀—末法思想と一念三千—」
 (日本佛教學會年譜 33號, 昭和43年 3月)
 「日蓮の弘法大師觀」 (日本佛教學會年譜 41號, 昭和51年 3月)
 「宗祖における造語の妙とその意味」
 (日蓮教學研究所紀要第 3號, 昭和51年 3月)
 「日本天台における止觀超克思潮の展開」
 (關口眞大編『佛教の實踐原理』東京 山喜房佛書林, 昭和52·12·2·)
 「傳教大師と法華思想の關連」
 (坂本幸男編『法華經の思想と文化』京都 平樂寺書店 1965·3·20·第1刷, 1981·8·1·第5刷)
 「智旭の法華經會義等の研究」
 (坂本幸男編『法華經の中國的展開』京都 平樂寺書店, 1975·8·1·第2刷)
 「日本における法華經の受容と展開」
 (塚本啓祥編『法華經の文化と基盤』京都 平樂寺書店, 1982· 2·20·)
 「日蓮から見た正と邪」(日本佛教學會編『佛教における正と邪』京都 平樂寺書店, 1983·11·20·)
 「日本天台の佛性論」 (渡邊實陽編『法華佛教の佛陀論と衆生論』, 1985·9·12, 京都, 平樂寺書店)

23) 平井俊榮(히라이 순에이 1930~, 駒澤大學教授)

博士는 昭和5年岩手縣에서 출생하여, 昭和33年(1958年)駒澤大學佛教學部를 졸업. 昭和49年『吉藏を中心とする三論學派の研究』(中國般若思想史研究-吉藏と三論學派-)라고하는 제목으로 昭和49年6月東京大學에 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여 문학박사학위를 취득. 駒澤大學學長을 거쳐 三論학자로서 알려져 있다. 昭和55年 文部省科學研究補助金에 의하여『吉藏と智顗-天台比較思想論の研究-』라는 제목으로 연구를 추진하여 현존하는 지의와 吉藏이 공통으로하는 經典註疏相互의 依用關係는〈吉藏으로부터 지의로〉라는 參照依用の 흔적이 현저하게 보이고 역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판명한 것이다. 즉 지의撰이라고 전해져온 현존하는 註疏가 많지만, 지의의 저술이라고 할수없는 것은 물론 그 강술을 문인이 필록한것 이라고 하는것도 의심되며, 오히려 灌頂이외의 문인에 의해서 吉藏疏의 성립이후에, 이것을 참조하고 의용(依用)하여 쓴것 이라고 증명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天台종의 근본성전이라고 할수있는 법화문구(法華文句)는 吉藏의 法華註疏인『法華玄論』내지『法華義疏』를 전면적으로 의거(依據)하고, 이것을 참조또는 근본으로하여 쓴 흔적이 역연한것을 들어서 天台이후의 성립이라고 학계에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天台교의의 많은 經典註疏가 후대의 天台학도의 손에 의해 쓰여진 것을 밝히고 있다.(『法華文句の成立に關する研究』昭和 60年 2月 28日, 春秋社) 天台지의의 저작에 관한 문헌비판 연구는, 佐藤哲英博士의『天台大師の研究』가 經典註疏라는 좁은범위, 그리고 호교적(護敎的, 교의를 두둔하는)인 입장을 벗어나지 못한 지극히 불충분한 형태에서 출발한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본연구(法華文句の成立に關する研究)야말로 吉藏疏와 상세한 본문의 비교대조를 통해서 문제점을 논증한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平井博士의『法華文句の成立に關する研究』에서 灌頂이 전면적으로 吉藏(吉藏)의 저작을 좌우에 놓고 修治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지만, 법화문구의 성립문제에 있어서 平井博士의 연구로서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천대지의의 모든저술을 종합적으로 연구한것은 佐藤哲英博士의『天台大師の研究』이다. 다만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 점은 제저술을 고증(考

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모든 저술을 결론으로 이끌지 못한점이라 할수있으나, 佐藤哲英博士자신이 남아있는 연구과제로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천대지의의 제문헌에 관한 연구로서 그 업적은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平井박사의 저술과 논문은 다음과 같다.

『アジア佛教史日本篇』(1972·共著)

『俱舍論索引1』(1973·共著)

『中國般若思想史研究』(1976·3·31, 東京 春秋社) 昭和49年6月東京大學의 학위청구논문)

『法華文句の成立に關する研究』 (昭和60年2月28日, 東京 春秋社)

『法華玄論の註釋的研究』 (昭和62年2月28日, 東京 春秋社)

『變易生死の觀念の成立と展開』(印度學佛教學研究第11卷第 2號(22), 昭和38·3)

『二諦說より見たる吉藏の思想形成』 (上同 12-2 (24), 39·3)

『嘉祥大師吉藏基礎的研究—著述の前後關係をめぐって—』

(上同 14-2 (28), 41·3)

『吉藏における二智の構造』 (上同 15-2 (30), 42·3)

『止觀寺僧詮とその門流』 (上同 16-2 (32), 43·3)

『三論略章について』 (上同 17-2 (34), 44·3)

『中國佛教における不空の概念』 (上同 18-2 (36), 45·3)

『念佛と懺悔—法然淨土教を中心として』(上同 19-2 (38), 46·3)

『中論疏記引用の中論註釋書』 (上同 21-2 (42), 48·3)

『三經義疏と吉藏疏』 (上同 27-2 (54), 54·3)

『中國三論宗の歴史的 성격—特に中國佛教における宗派の成立をめぐって—』

(駒澤大學佛教學部研究紀要 24號 昭和41·3)

『中國三論宗の歴史的 성격』 (上同 25, 42·3)

『吉藏『二諦章』の思想と構造』(上同 26, 43·3)

『〈無住〉の概念の形式と展開』(上同 34, 51·3)

『『大乘三論大義抄』の著者玄奘について』(上同 36, 53·3)

『中觀論疏における涅槃經の引用』(駒澤大學佛教學部論集 2, 46·12)

『吉藏と北土三論師』 (上同 4, 48·12)

『吉藏と智顗—五百由旬の解釋をめぐる若杉說への反論』

(上同 12, 56·10)

「神會語錄と本有今無偈論」

(三康文化研究所年報·三藏, 國譯一切經和漢撰述部月報, 162

諸宗部 第7卷 昭和53年9月)

「初期禪宗思想の形成と三論宗」(宗學研究(曹洞宗) 第5號 昭和38年 4月)

「一行三昧と空觀思想」(曹洞宗研究員·研究生研究紀要 第3號 昭和46年10月)

「中觀論疏と嘉祥大師」

(大正新脩大藏經會員通信 第44號 第42卷·論疏部三, 40年 9月)

「三論學派の源流系譜—嘉祥における關河子說をめぐって」(東方學28輯 39·9)

「吉藏と智顗—經典註疏をめぐる諸問題—」(東洋學報 20卷·1號, 昭和56·4)

「吉藏の經典觀と引用論據」(東洋文化研究所紀要 第65冊 昭和50年 2月)

「吉藏著大般涅槃經疏逸文の研究(上)」(南都佛教 27號, 46·12)

「吉藏著大般涅槃經疏逸文の研究(下)」(南都佛教 29號, 47·12)

「中國佛教者の國家意識と涅槃經」(日本佛教學會年報學會年報 37號, 47年 3月)

「吉藏の佛身論—三身說を中心に—」

(佛教學(大正大學佛教學研究室)第6號, 53·10)

「橫超慧日編·北魏佛教の研究」(佛教學セミナ13號, 46·5)

「三論思想における空觀(上)」

(佛教思想 6(佛教思想研究會編), 1981·12·20·1989·1·20·4刷)

「三論思想における空觀(下)」

(佛教思想 7(佛教思想研究會編), 1982·4·20·1988·11·20·2刷)

「三論宗と成實宗」(平川彰編『佛教研究入門』1984·6·1, 東京大藏出版社)

24) 日比宣正(히비 노부마사, 1932~, 立正大學教授)

横浜市出身. 昭和28년 立正大學 佛教學部 佛教學科 卒業. 昭和30년 同大學 修士課程 修了. 昭和39년 同 박사과정 수료. 文學博士.

히비 노부마사 박사는 입정대학 대학원에서 다년간 支那 천태교학을 전공했다.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唐代天台學序說』은 일찍이 초조 지의와 제6조 담연의 사상적 상위(相違)에 착목하여, 이것을 명확하게 구별하려고 노력했다. 그 전제로서 금일까지, 사람들의 손이 미치지 않은, 담연의 저작 성립 과정에 관한 연구로서, 새로운 분야로 부터 규명을 시작 한 것이다. 본서는 담연의 사상을 연구 하기 위한 천태사상사(天台思想史)상의 위치, 그리고 지나불교사(支那佛教史)상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

적인 서책이며, 또한 당대(唐代) 불교사상사의 연구를 일보 전진 시키는데 기여한 학적 가치를 평가 받을 만한 저작으로 알려져 있다.

『唐代天台學序說』

(昭和41年 10月 第1刷, 昭和 50年 5月 第3刷, 山喜房佛書林)

「摩訶止觀における止觀の五種」(印度學佛敎學研究 7卷 1號(13), 昭和33·12)

「荊溪の敎學について」(上 同 9-1 (17), 36·1)

「荊溪湛然の三縮說」(上 同 10-1(19), 37·1)

「摩訶止觀輔行の成立過程について」(上 同 13-1(25), 40·1)

「湛然敎學における證觀の影響—止觀大意の製作年代を中心にして」

(上 同 14-1 (27), 40·12)

「理事兩重總別說の形成過程」(上 同 17-1 (33), 43·12)

「漢光類聚鈔製作年代考」(大崎學報 103號, 昭和30·6)

「法華玄義の三縮說について」(上 同 107, 32·12)

「天台の緣起思想について」(上 同 111, 35·12)

「荊溪湛然の事蹟に就いて」(上 同 117, 38·12)

「別理隨緣說の 形成過程」(上 同 120, 40·10)

「性惡思想における罪と懺悔」(上 同 121, 41·7)

「趙宋天台における兩重能所觀の形成」

(上 同 125·126, 46·7)

「性惡說と倫理」(日本佛敎學會年報 第26號, 昭和 36·3)

「中國における法華經註釋」(金倉圓照編『法華經の成立と展開』1970·3·20 平樂寺書店)

「法華五百問論の研究」(坂本幸男編『法華經の中國的展開』1975·8·1, 第2刷, 平樂寺書店)

「中國天台における成佛への過程」(渡邊寶陽編『法華佛敎の佛陀論と衆生論』1985·9·12, 平樂寺書店)

25) 村中祐生(무라나가 유쇼, 1932~, 大正大學教授)

群馬縣 출신으로 1979년 대정대학 문학부 불교학과를 졸업.

무라나가 교수는 오랜동안 陳·隋代의天台, 三論등의 교학연구에 종사한 교수이다. 저서로서는 『現代中國佛敎見聞』과 『天台觀門の基調』(昭和 61年9月 發行, 山喜房佛書林)등이 있다. 연구논문은 다음과 같다.

- 「嘉祥大師の於・教二諦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 8卷 1號 (15), 昭和35年 1月)
- 「隋末唐初の三論・天台兩門流」(上 同 10-2(20), 37-3)
- 「淨名玄論について」 (上 同 13-2(26), 40-3)
- 「大乘玄論について」 (上 同 14-2(28), 41-3)
- 「吉藏著作の編年の考察」 (上 同 16-2(32), 43-3)
- 「天台教義における四門」 (上 同 17-1(33), 43-12)
- 「天台教學における身と心」 (上 同 18-2(36), 45-3)
- 「天台初期の行法の集成について」
 (上 同 23-2(46), 50-3)
- 「摩訶止觀講說の背景」 (上 同 27-2(54), 54-3)
- 「禪觀における鏡と影」 (宗教研究 54卷 第3輯 (246號), 昭和 56年 2月)
- 「嘉祥大師吉藏の三諦說」 (宗教文化 第15輯, 昭和36年 6月)
- 「禪觀の初期的證相—禪波羅蜜功德について」(大正大學研究紀要 61輯, 昭和11月)
- 「章安尊者の長安留錫について」 (天台學報 第3號, 昭和36年10月)
- 「章安尊者と嘉祥大師」 (上同 7, 41-1)
- 「三界火宅について」 (上同 9, 43-10)
- 「因緣所生の心」 (上同 11, 45-10)
- 「天台觀門における身觀の考察」 (上同 12, 45-10)
- 「天台觀門における四禪の一考察」 (上同 14, 47-11)
- 「法華諸疏における要語の解釋」 (上同 16, 49-10)
- 「傳述一心戒文の撰修について」 (上同 18, 51-11)
- 「衆生法について—法界の所在と構造」 (天台學報 第20號, 昭和53年11月)
- 「中國天台における祖承說について」 (上同 21, 54-11)
- 「天台宗と法眼宗」 (上同 22, 55-11)
- 「嘉祥大師二藏義の成立考」 (南都佛教 22, 44-1)
- 「天台止觀における罪福相」(日本佛教學會年報 第41號, 昭和 51-3)
- 「現代の宗教事情と天台教觀思想の課題」
 (鹽入良道先生追悼論文集『天台思想と東アジア文化の
 研究』平成3年12月16日 山喜房佛書林)

26) 福島光哉(후구시마 고사이. 1932~)大谷大學教授

昭和30년 京都大學 哲學科 卒業. 昭和 37년 大谷大 文學部 佛教學 修士課程 修了. 교수는 安藤俊雄박사의 제자이다.

- 「智顗の初期禪學に關する研究」 (印佛研 12-2(24), 昭和39-3)
- 「南岳慧思の禪觀」 (上同 14-1(27), 40-12)
- 「天台における感應の論理」 (上同 18-2(36), 45-3)
- 「[天台大師の研究]書評」 (大谷學報14-3, 37-1)
- 「次第禪門の内方便」 (上同 44-3, 39-2)
- 「智顗の感應論とその思想的背景」 (上同 49-4, 45-3)
- 「天台の神通義」 (上同 52-4, 48-2)
- 「智顗の神通と說法」 (上同 54-4, 50-2)
- 「天台智顗における大乘戒の組織と止觀」(上同 60-2, 55-9)
- 「妙法としての圓融三諦とその思想的背景—法華玄義研究序說—」
 (大谷大學研究年報28, 51-2)
- 「四明知禮の淨土教」(大谷大學研究紀要第3號, 昭和51-1, 〈淨土の諸問題〉)
- 「淨影寺慧遠の止觀思想」 (東方學 第36輯, 昭和43-9)
- 「梁代二諦思想の特質—僧肇の二諦說との關連」
 (佛教學セミナ 第2號, 昭和40-10)
- 「禪文化研究紀要(創刊號)」 (上同 10, 44-10)
- 「法華玄善の教相論」 (上同 15, 47-5)
- 「天台止觀と業相」 (上同 19, 49-5)
- 「智顗の權實二智論」 (上同 27, 53-5)
- 「教觀相依に思う」 (上同 31, 55-5)
- 「天台智顗の涅槃經五行の解釋」 (上同 33, 56-5)
- 「新田雅章著・天台實相論の研究」 (上同 34, 56-10)
- 「天台思想における空觀」 (佛教思想 7『空(下)』佛教思想研究會編,
 1982-4, 1988-11第2刷)

27) 新田雅章(닛다 마사아끼 1936~, 福井縣立短期大學教授)

石川縣에서 출생하여, 1959년 學習院大學 文學部 철학과를 졸업, 1966년 東京大學 大學院 인문과학 연구과 박사과정을 수료, 1975년『天台實相論の研究』로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문학박사학위를 취득, 中京大學 教授를 지나 현재 福井縣立 短期大學教授로 있다. 주저와 논문은 다음과 같다.

『天台實相論の研究』 (昭和56-2, 京都·平樂寺書店)

- 『天台哲學入門』 (1973·1·1刷, 1985·7·3刷, 第三文明社)
- 『智顗』田村芳朗·新田雅章 共著 (昭和57年, 東京·大藏出版)
- 『摩訶止觀』 (佛典講座 25, 1989·9·東京 大藏出版)
- 「天台教學理解に關する基礎的手續き—智顗の人間理解を中心として」
(印佛研 11-2(22), 昭和 38·3)
- 「天台の菩提心について」 (印佛研 12-2(24), 昭和 39·3)
- 「天台教學における二十五方便の意味」
(印佛研 15-2(30), 昭和 42·3)
- 「智顗における菩提心の成立根據について—淨影寺慧遠との比較について—」
(印佛研 16-2(32), 昭和 43·3)
- 「智顗における懺悔法構想經緯について」
(印佛研 17-2(34), 昭和 44·3)
- 「前期時代における智顗の實踐觀の推移—客觀的方法から主觀的方法へ—」
(上同 18-2(36), 45·3)
- 「智顗の實相認識の展開理由について—特に前期時代にみられる空の理解をめぐって—」
(上同 19-2(38), 46·3)
- 「慧思における禪定思想の展開」(上同 21-2(42), 48·3)
- 「智顗における〔維摩疏〕撰述の思想的意味」(上同 22-2(44), 49·3)
- 「智顗における止觀構想の成立時期—禪から止觀への展開理由究明のための豫備的考察」
(宗教研究 42-4(199), 昭和44·6)
- 「智顗における禪から止觀への展開の意味」(宗教研究 44-1(204), 45·10)
- 「〔次第禪門〕を中心としてみた智顗の〔法〕認識をめぐる問題」
(東方學 35輯, 昭和 43·1)
- 「前期時代における智顗の實相認識の展開」(東方學 40輯, 昭和45·9)
- 「安藤俊雄·天台學論集—止觀と淨土—」(佛教學セミナ 22號, 昭和 50·10)
- 「摩訶止觀」 (佛教文化·東京·3-2, 昭和47·5)
- 「中國における法華經研究」(講座·大乘佛教 4法華思想, 昭和58·2, 東京·春秋社)
- 「天台宗」 (平川彰編『佛教研究入門』1984·6, 東京·大藏出版社)
- 「天台學派の解脫思想」(佛教思想8『解脫』, 1982·10, 1993·10·第3刷, 平樂寺書店)

28) 多田孝正(다다 코우쇼 1938~, 大正大學教授)

神奈縣川 秦野市 출신. 昭和 36년 大正大學 佛教學科 졸업. 昭和 40년 東京大 修士課程 修了. 文學博士.

천태학에 관한 논문은 다수있으나 주요 저서와 논문은 다음과 같다.

- 『法華玄義』 (佛典講座 26 東京 大藏出版, 昭和 60年 5月 발행)
- 「天台智顗における法」 (南都佛教 35)
- 「次第禪門所出の北國諸禪師の通明觀」 (宗教研究 228)
- 「天台智顗の修の基本概念」 (日本佛教學年報 45)
- 「懺悔に關する中國的考察」 (佛教學 11)
- 「天台佛教の基礎的理解」(多田厚隆先生頌壽記念『天台教學の研究』, 平成 2·3·東京山喜房佛書林)
- 「五台山佛教と例時作法」(鹽入良道先生追悼論文集『天台思想と東アジア文化の研究』, 平成 3·12, 東京 山喜房佛書林)

29) 池田魯參(이케다 로산 1941~, 駒澤大學教授)

昭和 16년 長野縣출생, 昭和 39년 駒澤大學 佛教學部 禪學科를 졸업하고, 昭和 44년 同大學 박사과정을 수료, 현재 駒澤大學 불교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교수의 연구분야는 대개 천태지관(天台止觀)의 방향으로 연구되고 있다. 주요저서는 다음과 같다.

- 『國清百錄の研究』 (昭和57年, 大藏出版)
- 『摩訶止觀研究序說』 (昭和61年3月, 大東出版社)
- 『中國佛教史辭典』 (共著, 昭和56年, 東京堂出版)
- 「天台大師にみられる清規思想」 (印佛研16-1(31), 42·12)
- 「天台四種三昧の宗要」 (上同 17-2(34), 44·3)
- 「荊溪の〔十二門戒儀〕論」 (上同 18-1(35), 44·12)
- 「天台智顗の止觀論」 (上同 19-1(37), 45·12)
- 「天台智顗の時間論」 (上同 20-1(39), 46·12)
- 「天台滅後の天台教團と動向」 (印佛研21-1(41), 47·12)
- 「湛然に成立する五時八教論」 (上同 24-1(47), 50·12)
- 「智旭教學と天台教判」 (上同 25-1(49), 51·12)
- 「四明知禮の皮肉髓得法說」 (上同 26-1(51), 52·12)
- 「圓珍の『法華論記』について」 (上同 27-1(53), 53·12)
- 「圓珍撰に擬する『法華玄義略要』について」(上同 28-1(55), 54·12)
- 「天台智顗の禮法體系」 (上同 29-1(57), 55·12)

- 「金澤文庫の天台典籍」 (金澤文庫研究247, 52·10)
 「法華圓教にみる時間構造」 (駒澤研究紀要 29, 昭和46·3)
 「金剛鉾論の問題」 (同上 32, 49·3)
 「諦觀錄『四教義』序說—成立意義と問題点—」 (同上 33, 50·3)
 「天台學の修證の構造—宗玄義と觀心釋について」 (駒澤研究紀要 35, 52·3)
 「十不二の範疇論(一)『指要鈔』を通路として」 (同上 36, 53·3)
 「上 同 (三)」 (同上 38, 55·3)
 「正法眼藏抄の問題」 (駒澤佛教學論集 創刊號, 昭和46·3)
 「天台智顗の立制法」 (同上 2, 46·12)
 「五時八教論—關口說の問題点—」 (同上 3, 47·12)
 「湛然以後における五時八教論の展開」 (同上 5, 49·12)
 「『教觀綱宗·釋義』の批判論」 (同上 7, 51·10)
 「天台觀心の基本構造」 (同上 8, 52·12)
 「圓珍『法華論記』における天台研究の特質」 (同上 7, 51·10)
 「『天台傳佛心印記』の研究」 (同上 11, 55·11)
 「道元禪師と中國天台」 (宗學研究(曹洞宗)11號, 昭和44·3)
 「道元禪師と天台本覺思想—御抄における天台義批判—」 (同上 12, 45·3)
 「道元禪師の法華學について」 (同上 15, 48·3)
 「天台智顗の護國思想について」 (宗教學論集 上同 9, 54·12)
 「感應道交について」 (宗教研究(日本宗教學會)44-3(206), 46·3)
 「體と宗について」 (同上 45-3(210), 47·3)
 「機について」 (同上 46-3(214), 48·3)
 「天台智顗の宗教と五重玄義」 (同上 50-2(229), 52·9)
 「性具と性起」 (同上 51-3(234), 52·12)
 「天台智顗の護國思想」 (同上 52-3(238), 54·2)
 「智顗教學と老莊思想」 (同上 54-1(244), 55·6)
 「中國天台教學の研究」 (曹洞宗研究員研究生研究紀要 4號, 47·9)
 「中國天台教學の研究」 (同上 5, 48·9)
 「天台學における五時八教論—再び關口說を論駁—」

- (同上 6, 49·8)
 「荊溪湛然の五時八教論」 (同上 7, 50·9)
 「湛然教學における頓漸の觀念」 (南都佛教47號, 昭和56·12)
 「中國天台學の修證論」 (日本佛教學會年報45號, 昭和55·3)
 「十不二門について」 (佛教學研究會年報(駒澤大學)1號, 43·3)
 「『四明尊者教行錄』に題す」 (同上 3, 44·3)
 「天台教學の最近の研究動向と展望」 (同上 12, 53·10)
 「天台止觀と禪—湛然教學の禪宗批判」 (佛教思想史(平樂寺書店)4號, 56·12)
 「南岳慧思傳の研究」 (多田厚隆先生頌壽記念, 平成 2年·3月, 山喜房佛書林)
 「荊溪湛然の佛性說—『金剛鉾』の一斑を窺う」 (鹽入良道先生追悼論文集『天台思想と東アジア文化の研究』, 平成 3年·12月·山喜房佛書林)

30) 多田孝文(다다 코분 1942~, 大正大學講師)

昭和 39年 大正大學佛教學科卒業. 43年 文學部修士課程. 天台宗大聖院.
 주요논문은 부록편에 있기때문에 생략.

31) 坂本廣博(사카모토 코하쿠 1943~, 叡山學院教授)

昭和 41년 岐阜 大林學科 卒業. 昭和 44년 大正大 文學部 佛教學 專攻
 修士課程 修了.

저서와 논문은 부록에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

32) 大野榮人(오노 히데토 1944~, 愛知學院大學文學部教授)

廣島縣 神石郡出生. 1967年駒澤大學 佛教學部 佛教學科 卒業. 1973年
 大谷大學大學院博士課程滿期退學. 中國天台學專攻. 學位請求論文으로서 「天
 台智顗における止觀の成立史的研究」로서 平成3年11월에 제출한것을 『天
 台止觀成立史の研究』로 제목을 바꾸어 平成 6年 7月15日 발행 되었다.
 (京都 法藏館)

그 이외에도 『佛陀の足跡と思想』·『佛教の原典を訪ねて』(共著)(文榮堂書
 店, 1983年), 『『大智度論』和譯』(共著)(1986·1989)등 다수있다.

33) 武 覺超(다케 가쿠초 1948~, 叡山學院教授)

昭和45年 大正大學 佛敎學科 卒業. 昭和47年 大谷大學文學部修士課程.
주 저서는『中國天台史』, 『天台敎學の研究』(昭 63. 10, 京都. 法藏館) 등이 있다.

34) 菅野博史(간노 히로시 1952~, 創價大學文學部助敎授)

福島縣出身. 1976年 東京大學文學部印度哲學印度文學科卒業. 1984年 東京大學博士課程單位取得退學. 1994年 文學博士(東京大學). 東方研究會專任研究員을 거쳐 그의 東方學院, フェリス女學院大學講師, 大倉精神文化研究所, 東洋哲學研究所研究員兼任. 저서는『中國法華思想史の研究』(春秋社), 『法華經—永遠의菩薩道』(大藏出版), 『法華とはなにか—『法華遊意』を読む』(春秋社), 『一念三千とは何か』(第三文明社) 등. 譯書는『新國譯大藏經·長阿含經 2』(大藏出版) 등이 있다.

10. 天台敎學 研究의 課題와 展望⁷¹⁾

10.1. 삼대부(三大部)에 대한 고찰

삼대부는 지의 사상의 핵심을 설하고 있는 주저이기 때문에 古來부터 천태교학 연구의 가장 중요한 문헌으로 되어 왔다. 삼대부에 관해서는 담연에 의한 주석 이래, 천수백년에 걸쳐서 끊임없는 주석이 만들어져 왔다. 그러나 한번 시야를 전(轉)해서 삼대부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성립했는가, 그리고 또한 지의의 많은 저작중에 삼대부가 어떠한 문헌학적인 위치를 가지는가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그다지 활발하게 연구 되지 않았다. 즉 이러한 연구는 천태 사상을 보다 전체적인 입장에 서서 해명하는 입장으로서, 천태의 사상이 형성 되어 가는 경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해 하려고 하는 학문의 태도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삼대부 이전의 저술에 눈을 돌리지 않으면 안된다.

10.2. 삼대부 이전의 저술을 검토하는 자세

지의의 저술에 대한 성립 순서에 관한 연구이다. 즉 저술의 전통적인 취급 방법을 배우면서 한편으로는 그들을 시대적인 관점으로 부터 정리하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 나가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방법중의 하나이다.

10.3. 각 저술의 주제와 중심교설의 연구

저술을 사색발전의 척도에 비추어서 들어가면 삼대부의 강술시에 이르러서 교판의 구상자체, 교설성립에 발전적인 관계가 인정된다. 즉 지의의 사색의 진행과정에 따라서 고찰해 나가는 연구태도를 들 수가 있다.

10.4. 천태지의 사상 내용면의 고찰

① 천태사상의 연구의 과제는 천태사상을 전 불교 사상 상에서 볼때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의 문제이다. 그리고 중국사상 상에서도 어떠한 위치를 점령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② 천태사상은 교상과 관심을 車의 兩輪, 鳥의 兩翼에 비유하여 敎觀二門을 설하는 곳에 특색이 있다. 교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원만하게 성취하기 위한 수승한 교법을 말한다.

그리고 관문이라고 하는것은 수행의 관심문으로 체계화되어, 방법적으로는 「지관」을 닦는것으로서 교시 되어 있다. 여기에서 교상문, 관심문에 관련되는 교법으로서 어떤 가르침이 설시되어 있는가를 알 필요가 있다. 우선 교상문에 관한연구로서는 사교(四敎), 오시오미(五時五味)의 가르침, 일승개회사상(一乘·開會思想), 십여시(十如是)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교

71) 新田雅章 「天台宗」(平川 彰「佛敎研究入門」, pp.225~232까지 정리한 것임)

설을 이해해 가면 천태의 중생관, 경을보는 견해, 그리고 실천론이 성립하는 사상적 배경등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알 수 있다. 그리고 십여시(十如是)는 지의의 실상론의 핵심으로 이끄는 중요한 가르침이다.

다음 관심문은 지관의 법문으로서 체계화 되어 있다. 즉 지의에 있어서 지관의 법문은 圓頓·漸次·不定의 三種止觀이다. 삼중지관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漸次止觀은 『次第禪門』에, 不定止觀은 『六妙法門』에 상설 되어 있다. 다음 圓頓止觀은 『摩訶止觀』의 주제이다. 摩訶止觀은 지의가 최후에 이르러서 지극히 상세하게 설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의 결론적 입장이 보여지고 있다. 이 체계를 표시하는 교설은 四種三昧, 二十五方便, 十觀, 十境등이다. 이러한 가르침을 이해해 가면,

㉠ 圓頓止觀이 관심을기본으로 하여 성립된다는것.

㉡ 이러한 것을 수행 함에 있어서 순수(順守)해야만 하는 수행 방법이 정해져 있다는것.

㉢ 圓頓止觀의 기본적인 방법이 일심삼관(一心三觀)으로서 정리되어 있다는것, 등을 알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관심의 결과 득지 되어지는 實相의 경계를 나타내는 가르침으로서 십이인연(十二因緣), 사제(四諦), 삼제(三諦), 이제(二諦), 일제(一諦), 무제(無諦) 그리고 일념삼천(一念三千)설 등이 설치되어 있다. 즉 이러한 교설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 다음 천태사상의 중핵을 이루는 것은 삼제삼관(三諦三觀)의 사상이다. 이 삼제삼관사상이 문헌에 처음으로 보이는 곳은 보살영락본업경(『菩薩瓔珞本業經』)이다. 이 영락경은 인도성립의 경전이 아니고, 서력 5세기 후반에 중국에서 성립한 경전 이기때문에, 삼제삼관 사상 또한 중국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영락경의 삼제(三諦)설은 인도에서 발달한 이제(二諦)설을 배경으로 창출되었기 때문에, 삼제론 연구에는 그 전제로서 이제론의 연구를 필요로 한다. 즉 인도불교와 중국불교의 사상적 특색을 이제와 삼제로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용수불교의 중국적 전개는 가상의 삼론교학과 지의의 천태교학에서 찾아볼 수 있다. 때문에 삼론교학과 천태교학을 특색 지우는것은 二諦와 三諦이기 때문에 이제론과 삼제론의 연구는 삼론·천태 양 교학의 특색을 파악하는 첩경이다.

㉤ 다음 중도사상은 전 불교를 관통하는 근본이념이며, 불타석존의 초전법륜 또한 중도의 선언이었다. 이와같이 근본불교에 있어서 중도사상은 원시불교이후 대성불교시대에 들어가면, 용수의 중론 지도론에서 그 사상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즉 구마라집(鳩摩羅什)은 용수·제파의 제논서(諸論書)를 번역하여, 공사상(空思想)의 오의(奧義)를 중국에 전했다. 라집(羅什)에 의해 중국에 소개된 용수의 사상은, 제일 조류는 중론에 있어서 무상개공(無相皆空)의 사상을 받아 드린 삼론학과이고, 제이 조류는 제법실상(諸法實相)의 사상을 계승발전시킨것은 혜사(慧思)나 천태지의(天台智)이다. 이러한 제법실상의 사상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10.5. 천태 이후의 천태교학

㉠ 지의사상의 해석에 관한 문제

지의저술의 핵심을 전하는 삼대부에 표시되는 사상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담연의 해석을 빌려서 이해하는 방법이 일반화 되어 있다. 그의 해석 내지 주석은 요점을 잘 지적하고 있고, 천태교학사상은 그가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두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그의 해석 주석에도 역시 그의 개성이 비치고 있기 때문에 지의와의 거리를 느끼게 하는 것은 틀림 없는 사실이다. 때문에 지의 이후 관정을 지나 담연으로, 그리고 趙宋天台의 학승으로 천태교학이 계승 되어가는 과정에서, 그의 교리교학이 어떻게 변해 갔는가를 주의 깊게 더듬어 나가는것도, 천태학을 연구하기 위한 하나의 연구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담연이나 지례를 참조하면서 지의의 사상을 이해해 나가는 것은 물론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지의 사상의 진실그대로를 정확하게 이해해 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자세를 발전 시켜 나가면 비판적인 눈으로 받아드릴 수 있는 천태교학사가 성립하게 된다. 이러한 면에 있어서도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 이러한 입장에 서서 반성해 볼때, 지의의 사상이 담연이나 지례가

해석한 결과 바르게 반영되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이다. 즉 성구사상(性具思想) 문제가 대두된다. 제법의 실상을 어떻게 관찰 것인가에 대하여 가르치는 지의의 중요한 관법의 가르침 일념삼천(一念三千)설을 둘러싸고, 이 교설은 우리들 범부의 그때그때의 마음에 일체제법=삼천의 제법을 갖추고 있다든가, 그리고 마음에 그치지 않고, 제법의 각각이 상호로 삼천의 제법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 이해, 심 내지 제법에 삼천의 제법을 갖추고 있는 그 자체가 제법의 진실한 모습이며, 그러한 모습을 바르게 체득하는 것이, 실상의 득지(得知)라고 하는 해석이 잘 행하여 지고 있다. 이러한 해석이 일념삼천설의 취의를 바르게 이해한 것일까, 라고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해석이 행하여 진것은 理具(湛然의 說), 그리고 事造三千(知禮의 說)이라고 하는 개념을 창조하고, 지의의 일념삼천을 「具」라고 하는 것에 극단으로 주목해서 해석한, 담연이나 지례에게 지나치게 추종한 결과가 아닌가 라고 하는 감도 있다. 즉 지의의 일념삼천설의 설명부분을 충실하게 더듬어 가면, 지의의 설명에 즉한 이해와 그후의 변용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자세를 취할 수 가 있는 것이다.

10.6. 교판사상(敎判思想)에 대한 연구

① 천태교판이라고 하면 오시팔교를 들 수 있다. 그러나 근년 문제가 지적되어 주목이 되고 있다. 문제를 지적하는 측, 그리고 오시팔교설을 옹호하는 측도 포함하여 신중하고 철저한 검토로서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즉 지의이후 천태교판이 오시팔교로서 정비되어온 과정은, 어떤 방법에 의한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② 또한 지의의 교판 사상이 오시팔교(五時八敎)의 형태로 정비된것이 자연적일까,라고 하는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10.7. 지의사상과 그후의 전개의 상위점을 확인해 나가면서 천태교학의 전체상을 파악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10.8. 천태사상의 윤곽을 파악하게 되면, 나아가서는 천태교학적 배경에 대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보다 넓은 시야에서 천태사상을 파악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가지 더 덧붙일것은, 昭和 52년(1977년도, 10월 4일) 駒澤大學 大學院 佛敎學 研究會, 특별강연에서 駒澤大學 佛敎學 助敎授였던 池田魯參敎授의 「天台敎學の最近の研究動向と展望」⁷²⁾이라고하는 講演의 요지에서 그 목차와 자료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0.9. 천태학의 연구방법

- | | | |
|------|------------------------------|--------------------|
| 森 觀濤 | 「天台宗學の 理念」 | (天台學報 12 號·昭和 51) |
| 關口眞大 | 「天台大師敎學の 綱要」 | (印佛研 25-1, 昭和51) |
| 佐藤哲英 | 「文獻としての天台三大部—關口博士との論爭と立場の相違」 | (印佛研 26-1, 昭和 52年) |
| 福井重雅 | 「天台敎學と英語世界」 | (天台學報 14 号 昭和 46) |

10.10. 천태교단 및 청규(淸規) 또는 전기자료등에 관한 연구.

- | | | |
|------|-------------------------|------------------------|
| 鹽入良道 | 「初期天台山の 敎團的 性格」 | (日佛年報 39 號 昭和 48年) |
| 池田魯參 | 「天台智顗の立制法」 | (駒澤大佛敎學部 論集 2 號 昭和 46) |
| 土橋秀高 | 「中國における戒律の屈折—僧制·淸規を中心に」 | (龍谷大論集 393 號 昭和 46) |
| 鹽入良道 | 「釋道安の僧尼規範と悔過法」 | (大正大大學院研究論集 1 號 昭和 52) |
| 池田魯參 | 「智顗滅後の天台敎團と動向」 | (印佛研 21-1, 昭和 47) |
| | 「天台智顗傳と社會背景資料」 | (駒澤佛敎學部紀要 31號 昭和 48年) |
| 鈴木宜邦 | 「敎苑淸規について」 | (印佛研 24-1 昭和 50) |

72) 「天台敎學の最近の研究動向と展望」(佛敎學年報 12 昭和53년10월) 池田魯參

- 京戸慈光 『天台大師の生涯』 (第三文明社 昭和 50)
 レオン・ハーウィッツ 「智顗思想の背景とその生涯」(天台學報 13 昭和 45)
 野村耀昌 「天台大師の出家について—特に法緒・慧曠との邂逅とその周邊の經緯について—」 (法華文化研究 2 昭和 51)
 宮川尙志 「天台大師以前の天台山」(『傳教大師研究』早大出版會 昭和 48)
 堀惠慶編 『天台大師略傳』 (大正 11 昭和 51 復刻 第一書房)

10.11. 천태의 『菩薩戒義疏』를 중심으로한 계학·계론(戒學, 戒論)의 연구

- 土橋秀高 「戒體について」 (印佛研 20-1 昭和 46)
 諏訪義純 「敦煌本『出家人受菩薩戒法卷一序』について」 (愛知學院大禪研究所紀要 1 昭和 46)
 由木義文 「智顗における戒の問題」 (印佛研 22-1 昭和 48)
 多田孝正 「性無作假色と願」 (印佛研 24-2 昭和 51)
 利根川浩行 「章安尊者の戒律觀」 (天台學報 19 昭和 52)
 平川彰 「智顗の戒體論について」 (奥田記念佛教思想論集 昭和 51)

10.12. 『摩訶止觀』을 중심으로 한 실천이론, 수도론의 연구.

- 平了 照 「觀心と心觀」 (天台學報 12号)
 村中祐生 「天台觀門における身觀の一考察」 (天台學報 12号)
 池田魯參 「天台四種三昧の宗要」 (印佛研 17-2)
 新田雅章 「智顗 における禪から止觀への展開の意味」(宗教研究 44-1)
 池田魯參 「天台智顗の止觀論」 (印佛研 19-1)

10.13. 天台教義, 天台思想과 일반으로 일컬어지는 教義內容에 관한 것.

教義思想에 관한 자료는 대부분이 부록 연구자료편에 실려 있기 때문에 이중을 피하여 생략한다.

11. 연구 참고서⁷³⁾

11.1. 천태학입문서

삼대부(三大部)의 연구는 지의사상의 골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불가결한 것이다. 삼대부를 읽기 시작해도 그 내용을 이해하기란 지극히 어렵다. 입문서적인 서적을 골라서 그 개요를 빨리 이해 하는 방법이 있다. 문헌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고려 諦觀의 『天台四教儀』

본서는 이론적으로 봐서 지의의 사상을 바르게 반영하지 못한 「五時八教說」을 중심으로 논술하고 있는 서물이라고 하여, 그 폐기가 주장되고 있는 서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오시팔교설 자체가 문제를 포함하고는 있지만, 지의의 사상을 결코 왜곡되게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지의의 교설을 잘 정리하고 있으며, 강의(講義)나 주석(註釋)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초학자의 입문서로서 잘 사용 되고 있다.

境野黃洋 『天台四教義講話』(丙午出版社, 大13 國書刊行會, 昭和57)

稻葉圓成 『天台四教義新釋』(法藏館, 昭和34)

昭和校訂天台四教儀一卷 (山喜房佛書林, 昭和52)

다만 천태사교의로서 천태사상의 전체를 파악할 수 는 없다. 본격적으로 삼대부의 연구에 들어가기 전에 입문서로서 필요한 서책이라 할 수 있으며, 『國譯一切經』和漢撰述部に 수록 되어 있다.

② 천태사상은 교관이문으로서 성립되기 때문에, 실천에 관해서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실천문에 관해서는 『小止觀』이 있다. 소지관에 관해서는 세키쿠찌(關口)박사의 현대어역 『天台小止觀』(大東出版社, 昭和 53)이 출판되어 있다.

73) 新田雅章 「天台宗」(平川 彰編 「佛教研究入門」 pp.225~235 참고.

소지관은 천태지관의 진수(眞髓)가 표시되어 있는 『摩訶止觀』의 전 단계에 만들어진 저술이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摩訶止觀』과는 조금 다르지만 마하지관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11.2. 천태사상의 윤곽을 파악 하기 위하여 천태삼대부의 연구

① 천태사상의 윤곽을 파악하는 단계로서 『法華文句』 『法華玄義』 『摩訶止觀』의 삼대부가 있다. 삼대부를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담연(湛然)이하 제사(諸師)의 주석(註釋)을 참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학습에는 『佛教大系』 『天台大師全集』(日本佛書刊行會)과 『國譯一切經』(和漢撰述部), 『昭和新纂國譯大藏經』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좋은 자료가 된다.

② 三大部연구에 있어서 입정대학에서는天台學教授 淺井圓道博士가 담당이 되어 삼대부 강독을 행하고 있다. 즉 『法華文句』를 1990년대까지 10년동안에 걸쳐 강독을 끝내고, 1991년부터 『法華玄義』의 강독을 행하고 있다. 필자도 다행히 법화문구(法華文句)강독은 1년 밖에 참가할 수 없었지만, 현재 읽고 있는 법화현의(法華玄義)강독에는 처음부터 참가할 수 있어 1995년 4월부터는 5년째에 접어든다. 구미의 과학적인 연구법이 도입됨에 따라 일본 불교계는 인도철학과 원시불교의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 원전해명학적인 연구가 불교학의 주류가 되어 현재까지의 불교학의 연구 성과는 세계 상위의 위치에 까지 올려 놓았다. 불교학 전공자는 썬스끄리뜨어, 파리어, 티베트어등 불교학의 필수 과목으로 되어 있다. 썬스끄리뜨원전에 의하여, 구마라집번역의 법화경 번역이 재평가를 받아, 현재 불교학의 원전연구는 대개 한역경전을 참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릿쇼대학(立正大學)의 천태학 교과서를 소개하면, 학부에서는, 미토모 켄유(三友健容)教授가 담당하는 천태학개론서로서, 高麗 沙門 諦觀 錄 『天台四教儀』를 사용하고 있다. 대학원에서는, 『法華玄義釋籤傍註』 『天台四教儀』 『國譯一切經』 『妙法蓮華經』 등을 대조하면서 읽고 있다.

① 『法華玄義釋籤傍註』 十卷

法華玄義(天台智者大師說, 章安大師灌頂記)를 본문으로 하고, 釋籤(荊溪大師 湛然 述), 私記(寶地房證眞撰), 講義(慧證癡空著), 講述(大寶守脫撰)의 末釋 각 十卷을 회합(會合)한 것이다. 末釋의 배열은, 釋籤, 私記, 講義, 講述의 차례로서 저작년대의 순서이다. 그리고 釋籤 아래의 주(注)는 진각사분회(眞覺師分會)에 의한 현행유포의 회본(會本)에 의한 것이다.⁷⁴⁾

㉠ 『天台四教儀』(高麗沙門 諦觀錄) 『昭和校訂天台四教儀』一卷 (諦觀 錄 關口眞大校訂, 昭和十年 四月發行, 昭和五十八年 四月 第三十版發行, 山喜房佛書林)

㉡ 『國譯一切經』(妙法蓮華經玄義, 經疏部)

㉢ 『眞訓兩讀妙法蓮華經開結』(大正13年 9月發行, 昭和62年7月 23版, 京都 平樂寺書店)

㉣ 『法華三部經章句索引訓讀』(兜木正亨監修, 1978年8月, 校成出版社)

③ 『摩訶止觀』의 강독은 현재 大正大學, 그리고 東京學士會館에서 平川彰博士가 담당하는 법화삼대부강독회(法華三大部講讀會)에서 행하고 있다.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는 다음과 같다.

『佛教大系』(『天台大師全集』大正 8年4月 初版, 昭和 53年 5月, 日本佛書刊行會)

關口眞大校注 『摩訶止觀』上·中·下(1966年11月 第1刷, 1989年12月 第18刷發行, 岩波書店)

11.3. 담연(湛然)및 조송천태(趙宋天台)의 연구에 있어서는 우선 지의의 사상을 확실히 이해한 연후에,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담연이나 조송천태의 저술을 주의깊게 읽어가는 것이 급선무이다.

12. 맺는 말

이상으로서 중국천태교학사에 대한 대략을 간략하게 살펴 보았다. 그결

74) 『佛書解説大辭典』(第十卷 pp.58~60)

과 明治 이전까지 활발하게 발전해 왔던 천태교학의 연구는, 明治 이후 서구식의 새로운 물결과 함께 새로운 학문방법(원전, 사본연구 및 문헌고증적인 연구방법)이 도입됨에 따라서, 한역(漢譯) 위주의 천태교학 또한 과도기를 맞이하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천태저작에 대한 성립사적인 측면에서의 연구에 의하여 저작에 대한 진찬(眞撰), 위찬(僞撰)의 발생과 함께 天台思想上的 문제마저 대두하게 된다. 또한 거기에서 파생되는 교판사상(敎判思想), 성구사상(性具思想)의 문제까지 이끌고 간다. 그러나 교의 내용에 치중되어 왔던 연구가, 천태교학의 전반적인 입장에 서서 해명하려고 하는 연구의 성과에 의해, 일본천태와 중국천태의 정확한 구별에서 오는 문제점, 그리고 灌頂, 湛然敎學, 趙宋天台, 明末天台까지의 학적 성과를 올려 놓았다.

그러나 천태사상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혜문(慧文), 혜사(慧思)(중국의 남북조시대이기 때문에 자료가 거의 없다)의 연구는 아직도 과제로서 남아 있고, 또한 중국 천태교학의 정통으로서 趙宋天台, 明末天台 또한 연구과제로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의 연구동향은 관문(觀門)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며, 천태대사의 사상이 어떠한 발전에 의하여 천태교학의 일대체계가 달성 되었던 가를 규명하는 것이 큰 과제로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일본의 천태교학 연구학자 34인을 들어, 그들의 연구내용을 통해서, 최근까지의 천태교학연구의 흐름을 대개 파악할 수가 있다.

㉠ 明治·大正·昭和 초기의 선구적 역활의 천태학자들을 든다면,

후쿠다 교에(福田堯穎)·우에스기 분슈(上杉文秀)·사카이노 코요(境野黃洋)·시마지 타이토(島地大等)·사사키 켄토쿠(佐佐木憲德)·사카모토 유키오(坂本幸男)·이나바 엔쥬(稻葉圓成) 등의 학자를 들 수 있다. 즉 중국불교사 속의 천태교학사를 정리하여 후학들의 천태교학 연구에 이바지한 공로자들이다. 지금까지도 천태교학을 연구함에 있어서 천태교학 계론서는 이러한 선학들의 서물을 의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천태교학사의 흐름속에 사사키 켄토쿠(佐佐木憲德)박사는 천태지관의 윤원을 찾아 선관발달사(禪觀發達史)를 연구하여 미개척의 분야에 업적을 남겼으며, 그리고 천태법문

이라고 하면 실상론(實相論)이라는 종래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천태사상과 연기론의 합일(天台緣起論展開史)을 논증하여 천태교학연구의 새로운 문제와 더불어 활력소가 되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천태교학 계론부분)

㉡ 다음은 시마지 다이토(島地大等)·우에스기 분슈(上杉文秀)이후의 사토 테츠에(佐藤哲英) 박사가 종래의 교의연구 그리고 자의해석의 연구와는 달리 지의의 전저술을 대상으로하여, 성립사적인 측면에서 연구하여(親撰·眞說·假托) 천태사상재검토라고 하는 심각한 상태를 자아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당시(性惡思想의 創唱者는 지의인가, 판정인가. 印佛研14-2, 昭和41) 안도우 도시오(安藤俊雄)박사와의 성구사상(性具思想)에 대한 논의이다. 이러한 학계의 논의가 천태지의의 제문헌에 관한 연구로서 발전을 보게 됨을 알 수 있다.(천태지의의 제문헌에 관한부분)

1966년 천태지의와 제육조 담연의 사상적 상위를 구별하기 위한 착목으로서 당대(唐代) 천태교학의 연구로서 湛然의 저작 성립과정에 관한 연구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日比宣正·唐代天台學序說)

㉢ 그리고 천태 관문연구의 진전과함께 천태 교판론의 문제가 대두된다(1975년경). 천태의 오시팔교는 고래(古來) 천태대사 지의의 교판으로서, 불교각종교판의 표본이라고 일컬어져 왔다. 그러나 문헌 고증학적인연구가 진전됨에 따라 천태의 오시팔교(五時八敎)는 당시 대정대학교수 세키구찌 신다이(關口眞大)박사가 오시교판은 천태대사가 세운 교판이 아님을 주장, 즉 천태교학강요라고 하는 것은 천태대사의 진의를 오해(誤解)하는 것이라 하여, 학계에 폐기론을 요청한데서 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문제는 천태교학 입문서인 高麗 諦觀의 『天台四敎儀』 폐지론까지 발전하게 된다.(천태교상에 관한 부분)

㉣ 1985년 히라이 순에이(平井俊榮)博士는 천태지의의 저작인 『法華文句』는 길장(吉藏)의 法華註疏인 『法華玄論』 내지 『法華義疏』를 전면적으로 의거하고 참조 또는 근본으로 하여 쓴 것이라고 하여, 천태 이후의 성

립이라고 주장, 학계에 또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히라 이박사의 연구로서 法華文句의 성립에 관한 것이 전부 해결된 것은 아니다.(지의의 저술에 관한 부분)

㊤ 천태관문의 연구로서는 1961년 다마키 고시로(玉城康四郎)박사의 『心把握の展開』, 1966년 세키쿠찌 신타이(關口眞大)박사의 『天台止觀の研究』를 비롯하여, 그후 1981년 닛다 마사아키(新田雅章)박사의 『天台實相論の研究』, 1986년 坐禪과 天台小止觀의 비유로서 야마우찌 순유(山内舜雄)박사의 『禪と天台止觀』, 그리고 이케다 로산(池田魯參)교수의 『摩訶止觀研究序説』, 무라나카유쇼(村中祐生)교수의 『天台觀門の基調』등 학계의 동향은 관문의 연구성과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덧붙여 최근 본각사상은 불교가 아니다 라고하는 袴谷憲昭著 『本覺思想批判』과 如來藏思想批判의 松本史朗著 『緣起と空』 그리고 伊藤隆壽 著 『中國佛教の批判的研究』, 松本史朗著 『禪思想の批判的研究』라고하는 제목으로 현재 학계의 큰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책을 내놓을 수가 없다.

(1) 袴谷憲昭 (하카마야 노리아키 1943년 12월 25일 北海道根室市出生)

『本覺思想批判』(1989·7·20, 1990·2·20再版, 東京 大藏出版社), 1966년 駒澤大學佛教學部佛教學科卒業, 1969년 東京大學大學院修士課程(印度哲學卒業)修了, 現在 駒澤大學佛教學部教授.

(2) 松本史朗 (마츠모토 시로 1950·東京出生)

『緣起と空』-如來藏思想批判-(1989·7·30, 1993·1·20·3版, 東京 大藏出版), 『禪思想の批判的研究』(1993·大藏出版), 1973, 駒澤大學佛教學部佛教學科卒業, 1976, 東京大學大學院修士課程(印度哲學)修了, 現在 駒澤大學佛教學部助教授.

(3) 伊藤隆壽 著 (이토 다카토시, 1944, 山形縣高昌町 出生)

『中國佛教の批判的研究』(1992·5·30, 東京 大藏出版), 1967, 駒澤大學佛教學部佛教學科卒業, 1969, 駒澤大學大學院修士課程(佛教學)修了, 現在 駒澤大學佛教學部教授

위와 같은 비판론은 일본학계는 물론이거니와, 일본불교가 중국불교를

모계로하여 발전한 불교라는 점에서 볼 때, 일대 획기적인 대사건이며, 충격적인 문제제기인 것이다. 특히 여래장사상(如來藏思想)은 <사이비불교 내지는 불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 여래장사상으로서 일본 불교계의 대학자인 다카사키 지키도(高崎直道)박사는, 「袴谷憲昭씨와 松本史朗씨는 함께 필자의 강의를 들은 사람들로서 뒤통수를 얻어 맞은듯 큰 충격이었다」고 자칭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비판론을 제기하고 있는 입장은 일본에서 선종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曹洞宗의, 고마자와(駒澤)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교수진들로서, 불교연구의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판론을 제기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본불교가 종파중심으로 종조(宗祖)와 그 교의는 비판될수 없다는 어떤 터부적인 카테고리를 송두리채 뒤엎고 종조인 道元을 비판한 사실은 학계에 돌풍을 일으킨 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비판적 연구에 대해서 같은 고마자와대학의 요시즈(吉津宜英)교수의 「中國佛教研究の一動向」이란 제목으로 반론한 논문은 반드시 읽어дол만한 논문이라 생각한다. 위의 비판적 연구에 대한 반론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佛教學(36號)』(佛敎思想學會·東京·山喜房佛書林·平成6年12月)

最近十年の佛敎學……………高崎直道…(1)

—佛敎思想學會十年に因んで—

佛敎とは何か 佛敎いかにあるべきか……………前田惠學…(19)

中國佛敎研究の一動向……………吉津宜英…(39)

—「批判的研究」について—

最澄研究の諸問題……………田村晃祐…(59)

般若心經の研究史……………福井文雅…(79)

—現今の問題點—

일본에 있어서 불교학의 연구성과는 세계의 수준에 위치하고 있다. 때문에 공부해 보겠다는 자신의 의지만 있다면 유명교수들이 남긴 불교학의 입문서 즉, 불교학의 방법론은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다. 유명교수들의 최종강의라든지 아니면 불교학을 공부하기 위한 사람들을 위하여 만든 많은 서책이 나와 있다. 불교학의 연구 방법론을 빨리 몸에 익히는 것이야말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 된다. 필요한 자

료가 있어서 자료를 찾아 보면 불교학의 구석구석까지 연구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음을 놀람과 한편,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했던 말인가 하고 슬픔을 맛보기도 한다. 흔히들 우리들은 일본불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소에 부치고 만다. 일본불교가 학문불교 일뿐 실천면은 볼것이 없다고 할런지 모른다. 그러나 나름대로의 교와 실천을 가지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리고 불교의 교학면에 있어서는 세계의 수준에 있기 때문에, 만일 불교학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전공분야에 있어서 어느선 까지 연구 되어, 연구의 성과는 어디까지 와 있으며, 또한 남아있는 연구과제는 무엇인가를 찾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것을 찾아 본 연후에 하고 싶은 연구분야에 들어 간다면, 시간적인 것은 물론이고, 같은 수준에서의 연구의 진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다. 그러나 다만 주의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불교학자의 대부분이 승려 내지는 어느 한 종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서적이나 논문을 대할때 마다 가끔 느끼는 일이지만, 어딘지 모르게 소속된 종파의식의 경향으로 기울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일본은 종파불교이다. 한국또한 종파가 없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본의 종파와는 그 성격을 달리 한다. 한국불교의 종파라고 한다면, 소의경전과 불교의식 절차에 있어서는 그 근본을 달리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일본불교에 있어서는 소의 경전도 다를뿐 아니라 의식절차 또한 달리 하고 있다. 그리고 宗은 같이할지라도 派의 상위가 있기 때문에 교학의 견해 차이도 없지 않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순수한 객관적인 입장에 서서 불교학문을 대하는 태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처음 천태교학을 시작 하려고 하는 입문자를 위하여 얼마나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으나 시간에 쫓기면서 대략의 정리를 했을 뿐이다. 필자 자신도 천태교학을 공부하는 초보자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미숙한점이 많이 있을 줄로 생각된다.

불교의 교학연구라고 해서 수행이 뒤따르지 않는 것은 아니다. 특히 천태교학의 관심문은 수행의 면을 지관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수행없는 학문 그 자체에도 한계를 느낀다는 점이다. 바른 이해야 말로 수행에서 오는 올바른 지혜에서 생겨나는 것이므로, 교학 그자체도 수행을 수반하고 있다는것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中國 天台 教學史에 있어서

지의 이후의 天台教學 즉 章安灌頂, 荊溪湛然, 趙宋天台의 山家 山外의 論爭 그리고 四明 以後의 天台教學은 또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끝으로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을줄로 생각함과 동시에 지도 편달을 바랄 뿐이다.

이상으로서 최근 학계의 중국불교연구의 동향을 간단히 소개했다.

1. 참 고 문 헌

- 1) 福田堯穎 『天台學概論』 (中山書房佛書林 昭和 29年)
- 2) 島地大等 『天台教學史』 (東京 隆文館 昭和 61年)
- 3) 佐藤哲英 『天台大師の研究』 (京都 百華苑 昭和 36年)
- 4) 同 『續・天台大師の研究』 (上 同 昭和 56年)
- 5) 安藤俊雄 『天台學』 (京都 平樂寺書店 昭和 43年)
- 6) 平川 彰 編 『佛教研究入門』 (東京 大藏出版 1984年 6月)
- 7) 關口眞大 『天台教學の研究』 (東京 大東出版 昭和 50年 10月)
- 8) 講座佛教 5 『日本の佛教』 (東京 大藏出版 昭和 33年 9月)
- 9) 池田魯參 『摩訶止觀研究序說』 (東京 大東出版 昭和 61年 3月)
- 10) 千葉乘隆・北西 弘・高木 豊 共著
『佛教史概説』 日本編 (京都 平樂寺書店 1969年 4月 發行, 1987年 2月 第 14刷)
- 11) 多田孝正 『法華玄義』 佛典講座 26 (東京 大藏出版 昭和 60年 5月)
- 12) 新田雅章 『摩訶止觀』 佛典講座 25 (東京 大藏出版 1989年 9月)
- 13) 『望月佛教大辭典』 『佛書解説大辭典』
- 14) 『日本佛教人名辭典』 (京都 法藏館 1992年 1月)
- 15) 龍谷大學佛教學研究室編 『佛教學關係 雜誌論文分類目錄 4』 (京都 永田文昌堂 昭和 61年 1月)

2. 약호표

약호표에 관해서는 「龍谷大學 佛教學 研究室 編」

『佛教學 關係 雜誌論文 分類目錄 4 —昭和 45年 1月-昭和 56年 12月—

(永田文昌堂 昭和 61年 1月 第 1 刷 發行)의 「약호표」를 의존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3. 附 錄(研究資料編)

天台

1) 通說

- 「天台宗學の理念」 (天台學報 12, 昭和45年10月) 森 觀濤
- 「教育方法體系としての四教・三觀・四悉檀」 (天台學報 13, 昭和46年10月) 藤田 清
- 「中國天台教學の研究」 (曹洞宗研究紀要 4, 昭和47年9月) 池田魯參
- 「中國天台教學の研究」 (曹洞宗研究紀要 5, 昭和48年9月) 池田魯參
- 「隋唐代の天台思想史研究」 (曹洞宗研究紀要 7, 昭和50年8月) 大野榮人
- 「安藤俊雄・天台學論集-止觀と淨土」 (佛教學セミナ 22, 昭和50年10月) 新田雅章
- 「天台學とはなにか」 (天台學報 17, 昭和50年 8月) 關口眞大
- 「天台とその思想」 (佛大講座講義論集 2, 昭和50年11月) 井上光央
- 「天台佛法の醫學觀」 (東洋學術研究 15-2, 昭和51年) 今井英彦
- 「安藤俊雄『天台學論集』」 (鈴木學術年報 12-13, 合 昭和51年10月) 鹽入良道
- 「法華三昧の懺悔-その傳承と變容-」 (善導大師の思想とその影響, 昭和 52年2月) 村中祐生
- 「天台教學の最近の研究動向と展望」 (佛教學年報 12, 昭和53年10月) 池田魯參
- 「放生會について」 (叡山學院紀要 1, 昭和53年10月) 小寺文穎
- 「通教と別教」 (印佛研 27-1, 昭和53年12月) 大島啓禎
- 「性具と性起」 (伊藤・田中・佛教學論集, 昭和54年11月) 木下富夫
- 「五悔について」 (印佛研 28-2, 昭和55年3月) 福原隆善
- 「教觀相依に思う」 (佛教學セミナ 31, 昭和55年5月) 福島光哉
- 「新田雅章著『天台實相論の研究』」 (佛教學セミナ 34, 昭和56年) 福島光哉
- 「新田雅章著『天台實相論の研究』」 (東洋學術研究 20-2, 昭和56年10月) 木村清孝
- 「新田雅章著『天台實相論の研究』」 (駒澤佛教論集 12, 昭和56年10月) 山内舜雄

「新田雅章著『天台實相論の研究』」

(宗教研究 252, 昭和57年6月)

池田魯參

「天台教學における龍樹の影響」

(壬生編・龍樹教學の研究, 昭和58年)

竹田暢典

「南嶽の習禪僧について」 (印佛研 32-1, 昭和58年2月)

仙石景章

「天台と禪の接點」 (宗教研究 26, 昭和59年3月)

大松博典

2) 教門

- 「天台における感應の倫理」 (印佛研 18-2, 昭和45年3月) 福島光哉
- 「天台教學における身と心」 (印佛研 18-2, 昭和45年3月) 村中祐生
- 「台禪兩宗の交渉について」 (印佛研 18-2, 昭和45年3月) 八木信佳
- 「別教について」 (印佛研 19-1, 昭和45年11月) 幣 道紀
- 「感應道交について」 (宗教研究 206, 昭和46年3月) 池田魯參
- 「天台感應思想の成立意義」 (駒澤佛教紀要 29, 昭和46年3月) 池田魯參
- 「法華圓教にみる時間構造」 (駒澤佛教紀要 30, 昭和47年3月) 池田魯參
- 「教相と教判」 (佐藤・佛教思想論叢, 昭和47年10月) 池田魯參
- 「五時八教論」 (天台學報 14, 昭和47年11月) 關口眞大
- 「靈山同聽について」 (天台學報 14, 昭和47年11月) 平 了照
- 「五時八教論-關口說の問題點」 (駒澤佛教論集 3, 昭和47年12月) 池田魯參
- 「五時教判は天台教判に非ず」 (印佛研 21-1, 昭和47年12月) 關口眞大
- 「天台の神通義」 (天台學報 52-4, 昭和48年2月) 福島光哉
- 「諸法實相とその根本的立場」 (宗學研究 15, 昭和48年3月) 古坂龍宏
- 「天台學から圓頓の觀念について」 (印佛研 22-1, 昭和48年12月) 池田魯參
- 「天台教相論」 (印佛研 22-1, 昭和48年12月) 關口眞大
- 「教相と教理」 (智山學報 23・24合, 昭和49年6月) 關口眞大
- 「天台學における五時八教論-再び關口說を論駁す」 (曹洞宗研究紀要 6, 昭和49年8月) 池田魯參
- 「五時八教に代えるべきもの-天台四教儀に代えるべきもの-」 (天台學報 16, 昭和49年10月) 關口眞大

- 「性無作假色について」 (天台學報 16, 昭和49年10月) 利根川 浩行
 「天台における圓・頓・漸の定義と教判」
 (佛教學論集 11, 昭和50年 2月) 三友健容
 「關口博士の五時八教廢棄論への疑義」
 (印佛研 23-2, 昭和50年3月) 佐藤哲英・淺田正博
 「五時八教教判の起元」 (大正大學紀要 61, 昭和50年11月) 關口眞大
 「即事而眞について」 (天台學報 17, 昭和50年11月) 多田孝正
 「天台五時八教論について-關口博士の疑義25カ條に對する回答」
 (印佛研 24-1, 昭和50年12月) 佐藤哲英
 「天台教相論-五時八教を中心として」
 (印佛研 24-1, 昭和50年12月) 林 眞芳
 「天台教相論について-佐藤博士の疑義に對する疑義-」
 (印佛研 24-1, 昭和50年11月) 關口眞大
 「性無作假色と願」 (印佛研 24-2, 昭和51年3月) 多田孝正
 「菩薩戒の一考察」 (駒澤佛教紀要 34, 昭和51年3月) 佐藤達玄
 「實相觀入の論」 (表現學論考 昭和51年5月) 山根 巴
 「五時八教の四教五味」 (奥田・佛教思想論集 昭和51年10月) 關口眞大
 「三種教相論」 (天台學報 18, 昭和51年11月) 關口眞大
 「天台大師の教相論について-關口博士の所論に關連して」
 (印佛研 25-1, 昭和51年12月) 佐藤哲英
 「天台學の修證の構造-宗玄義と觀心釋について」
 (駒澤佛教紀要 35, 昭和52年3月) 池田魯參
 「趣向佛果」 (天台學報 19, 昭和52年11月) 多田孝正
 「性具と性起」 (宗教研究 234, 昭和52年12月) 池田魯參
 「頓漸五味論」 (印佛研 26-1, 昭和52年12月) 關口眞大
 「中國天台における因果の思想」
 (佛教思想 3, 昭和53年 2月) 新田雅章
 「被接について」 (棲神 50, 昭和53年 3月) 若杉見龍
 「經典における悟りと表現-天台の教相判釋によせて-」
 (佛大講座講義論集 7, 昭和53年5月) 野崎至亮
 「相即不二の論理的構造」 (曹洞宗研究紀要 10, 昭和53年 8月) 大野榮人
 「天台における法の理解-三法無差別をめぐる-」
 (佛教學年報 12, 昭和53年10月) 大松博典
 「天台教相論に對する一視點」(天台學報 20, 昭和53年11月) 小松賢壽

- 「五時八教は天台宗を亡ぼす」(天台學報 20, 昭和53年11月) 關口眞大
 「衆生法について-法界の所在と構造」
 (天台學報 20, 昭和53年11月) 村中祐生
 「天台教觀における悟りと救いの構造」
 (日佛年報 44, 昭和54年 3月) 星宮智光
 「五時八教論争の收束-關口眞大編著『天台教學の研究』書評をかねて-」
 (駒澤佛教論集 10, 昭和54年11月) 山内舜雄
 「天台四教判と華嚴五教判-特に行爲説について-」
 (天台學報 21, 昭和54年11月) 秋田光兆
 「五悔の原始型としての三品經-五悔の形成に關する考察(1)」
 (天台學報 21, 昭和54年11月) 鹽入良道
 「天台相即論の特質」 (印佛研 28-2, 昭和55年 3月) 大野榮人
 「天台における『大般涅槃經後分』の註釋について」
 (印佛研 28-2, 昭和55年 3月) 佐佐木 章格
 「諸法實相の時間的側面」 (天台學報 23, 昭和55年11月) 片岡義道
 「六即の成立過程について」(天台學報 23, 昭和55年11月) 加藤 勉
 「三諦圓融の論理」 (天台學報 23, 昭和55年11月) 渡邊明照
 「經典成立史の立場と天台の教判(佐藤泰舜著)をめぐる諸問題-關口眞大博士の五時教判論との關連において-」
 (駒澤佛教紀要 39, 昭和56年3月) 山内舜雄
 「天台における生死論」 (日佛年報 46, 昭和56年3月) 武 覺超
 「中國天台における佛性論の展開」
 (龍大大學院紀要 2, 昭和56年 3月) 薄墨賢祥
 「經典成立史の立場と天台の教判(佐藤泰舜著)をめぐる諸問題-關口眞大博士の五時教判論との關連において-」(承前)
 (駒澤佛教紀要 40, 昭和57年3月) 山内舜雄
 「天台教學と地論攝論宗」 (佛教學(佛教學研究會)13, 昭和57年4月) 池田魯杉
 「地論教學と天台別教」 (田村・佛教教理の研究, 昭和57年 9月) 多田孝正
 「天台學派の解脫思想」 (佛教思想 8, 昭和57年10月) 新田雅章
 「天台教學における龍樹の影響」
 (龍樹教學の研究, 昭和58年 2月) 竹田暢典
- 3) 觀門
 「天台禪門における身觀の一考察」

- (天台學報 12, 昭和45年10月) 村中祐生
 「一行三昧と空觀思想」 (曹洞宗研究紀要 3, 昭和46年10月) 平井俊榮
 「天台觀門における四禪の一考察」
 (天台學報 14, 昭和47年11月) 村中祐生
 「四種三昧論」 (天台學報 15, 昭和48年10月) 關口眞大
 「天台觀門の基調」 (大正大紀要 59, 昭和49年 3月) 村中祐生
 「天台止觀と業相」 (佛教學セミナー-20, 昭和49年10月) 福島光哉
 「右繞三匝事證 その2 一念三千法門と一念三千佛種」
 (佛教學論集 11, 昭和50年 2月) 渡邊信勝
 「天台初期の行法の集成について」
 (印佛研 23-2, 昭和50年3月) 村中祐生
 「中道のさとりと止觀法門の源流」
 (止觀の研究, 昭和50年 3月) 宮本正尊
 「法華懺法と止觀」 (止觀の研究, 昭和50年11月) 鹽入良道
 「漢語としての止觀」 (止觀の研究, 昭和50年11月) 楠山春樹
 「三觀思想の起源及び發達」 (止觀の研究, 昭和50年11月) 佐藤哲英
 「止觀の基礎的諸問題」 (止觀の研究, 昭和50年11月) 關口眞大
 「通相三觀について」 (天台學報 17, 昭和50年11月) 浜田智純
 「天台止觀における罪福相」 (日佛年報 41, 昭和51年 3月) 村中祐生
 「四種三昧における結跏正坐について」
 (曹洞宗研究紀要 8, 昭和51年 9月) 大野榮人
 「十乘觀法の修行規程」 (佛教學年報 10, 昭和51年10月) 鏡島元昭
 「天台の常行三昧に就て」 (奥田・佛教思想論集, 昭和51年10月) 清水谷 恭順
 「四種三昧の典據とその考察(上)-常坐三昧・常行三昧について-」
 (禪研究所紀要 6・7合, 昭和51年12月) 大野榮人
 「二つの三種止觀」 (印佛研 25-1, 昭和51年12月) 野本覺成
 「天台觀心の基本構造」 (駒澤佛教論集 8, 昭和52年10月) 池田魯參
 「爾前の一心三觀について」 (天台學報 19, 昭和52年11月) 浜田智純
 「天台初期の三觀思想」 (天台學報 19, 昭和52年11月) 池田宗讓
 「天台止觀における因緣觀」 (佛教の實踐原理, 昭和52年12月) 村中祐生
 「止觀實踐と念佛」 (佛教の實踐原理, 昭和52年12月) 釋 慧 嶽
 「三觀の實修」 (佛教の實踐原理, 昭和52年12月) 野本覺成
 「三種三觀の成立」 (印佛研 26-2, 昭和53年 3月) 野本覺成
 「十乘觀法と十地について」 (東方學 56, 昭和53年 7月) 多田孝正

- 「十乘觀法と十地」 (天台學報 20, 昭和53年11月) 多田孝正
 「四種三昧の典據とその考察(中)-半行半坐三昧〈方等三昧〉-」
 (禪研究所紀要 8, 昭和54年 3月) 大野榮人
 「『三觀義』所說の法門」 (天台學報 21, 昭和54年11月) 野本覺成
 「十乘觀法成立の-背景」 (天台學報 21, 昭和54年11月) 多田孝正
 「十二因緣觀と三種止觀」 (印佛研 28-2, 昭和55年 3月) 野本覺成
 「四運心について」 (天台學報 22, 昭和55年11月) 多田孝正
 「三觀・三諦說について」(1) (棲神 54, 昭和57年 4月) 若杉見龍
 「天台思想における空觀-圓融三諦としての空を中心に-」
 (佛教思想 7, 昭和57年 4月) 福島光哉
 「天台に於ける四禪」 (印佛研 31-1, 昭和57年12月) 坂本廣博
- 4) 智顗傳
- 「第一回金陵傳導時代における天台大師の講說について -特に『次第禪門』を中心として-」 (佛教學年報 5, 昭和46年 6月) 高橋秀榮
 「智顗の思想の背景とその生涯」
 (天台學報 13, 昭和46年10月) レオン・ハーウ"ッツ
 「天台大師以前の天台山」 (傳教大師研究, 昭和48年 6月) 宮川尚志
 「初期天台山の教團の性格」 (日佛年報 39, 昭和49年 3月) 鹽入良道
 「天台大師の家系と父の官名について」
 (茂田井・日蓮教學の諸問題, 昭和49年12月) 野村耀昌
 「天台大師の少年時代-靈夢と兩親の師」
 (棲神 48, 昭和50年 8月) 野村耀昌
 「天台大師の少年時代について」
 (宗教社會學とその周邊, 昭和50年 9月) 野村耀昌
 「菩薩像-國清百錄の場合-」 (印佛研 24-1, 昭和50年12月) 土橋秀高
 「天台大師出家について -特に法寺・慧光との邂逅とその周邊の経緯について-」
 (法華文化研究 2, 昭和21年 3月) 野村耀昌
 「明靜類聚抄における天台大師傳」
 (金澤文庫研究 252, 昭和53年 8月) 高橋秀榮
 「國清百錄の編纂に係る一考察」
 (印佛研 26-2, 昭和53年 3月) 長谷川 慎一
 「天台大師と慧思禪師との面謁とその背景」

- (法華文化研究 5・6, 合昭和55年 3月) 野村耀昌
「天台大師別傳について」 (天台學報 22, 昭和55年11月) 清田寂雲
「天台入山前後の智顗」 (印佛研 31-2, 昭和58年 3月) 池田魯參
「天台大師傳の研究」 (駒澤佛教紀要 41, 昭和58年 3月) 池田魯參
- 5) 三大部
- 「法華玄義の一側面」 (印佛研 19-2, 昭和46年 3月) 青木孝彰
「摩訶止觀の研究」 (MAHA-MAITRI 2, 昭和46年 3月) 大西一功
「智顗の法華玄義・法華文句の研究」
(法華經の中國的展開, 昭和47年 3月) 佐藤哲英
「摩訶止觀」 (佛教文化 3-2, 昭和47年 3月) 新田雅章
「摩訶止觀における人間存在の論」-分別の境位より自覺の境位へ-
(東京教育大文學部紀要 90, 昭和48年 3月) 川那部保
「妙法としての圓融三諦とその思想的背景-法華玄義研究序説-」
(大谷年報 28, 昭和51年 2月) 福島光哉
「摩訶止觀における發菩提心序論」
(佛教論叢 20, 昭和51年10月) 林 善信
「法華三大部における教判とその影響」
(奥田・佛教思想論集, 昭和51年10月) 林 眞芳
「『摩訶止觀』破法遍の特徴」 (天台學報 18, 昭和51年11月) 野本覺成
「摩訶止觀における四種三昧の一考察」
(印佛研 25-1, 昭和52年 3月) 林 善信
「法華玄義における教相について」
(印佛研 25-2, 昭和52年 3月) 池田宗讓
「天台の教判に扱われた南三北七-『法華玄義』を中心として-」
(大正大紀要 63, 昭和52年 9月) 多田孝文
「智顗の教學について-法華玄義の梗概と法華經研究史におけるその位置-」
(佛教學年報 11, 昭和52年10月) 大松博典
「『摩訶止觀』禪宗境の二重説の十乘觀法」
(天台學報 19, 昭和52年11月) 野本覺成
「『摩訶止觀』の讀み方-『止觀義例』の解釋學を通して-」
(佛教の實踐原理, 昭和52年12月) 池田魯參
「摩訶止觀英譯の初歩」 (佛教の實踐原理, 昭和52年12月) ニール・ドーナ

- 「文獻としての天台三大部-關口博士との論争と立場の相違-」
(印佛研 26-1, 昭和52年12月) 佐藤哲英
「四悉檀義と教相論-天台三大部について-」
(佛教の實踐原理, 昭和52年12月) 川勝 守
「『摩訶止觀』の方便」 (印佛研 26-2, 昭和53年 3月) 小松賢壽
「摩訶止觀における四種三昧の研究(2)」
(佛教論叢 22, 昭和53年10月) 林 善信
「摩訶止觀講説の背景」 (印佛研 27-2, 昭和54年 3月) 村中祐生
「『法華玄義』における三觀の構造」
(大正大大學院論集 3, 昭和54年 3月) 野本覺成
「摩訶止觀引用典據總覽1」 (天台 2, 昭和55年11月) 中國佛教研究會
「法華玄義成立についての一考察」
(棲神 53, 昭和56年 3月) 若杉見龍
「法華玄論における菩薩の歷位成佛」
(印佛研 29-2, 昭和56年 3月) 丸山孝雄
「『法華玄義』における三觀」 (印佛研 29-2, 昭和56年 3月) 野本覺成
「摩訶止觀引用典據總覽(2)」 (天台 3, 昭和56年 8月) 中國佛教研究會
「摩訶止觀の業相觀の意味」 (叡山學院研究紀要 4, 昭和56年10月) 福原亮嚴
「摩訶止觀引用典據總覽3」 (天台 4, 昭和56年11月) 中國佛教研究會
「天台三大部の引用書目について-『摩訶止觀』と『首楞嚴三昧經』-」
(印佛研 30-1, 昭和56年12月) 仙石景章
「『法華玄義』における『涅槃經』の五行説」
(天台學報 24, 昭和57年11月) 木本清史
「智顗『法華文句』における信」
(棲神 55, 昭和58年 3月) 望月海淑
「摩訶止觀における虛實」 (日佛年報 48, 昭和58年 3月) 坂本廣博
「法華玄義の衆生法-特に十界の成立について-」
(天台學報 25, 昭和58年11月) 浜田智純
- 6) 三大部以外の 著書
- 「天台智顗の立制法」 (駒澤佛教論集 2, 昭和46年12月) 池田魯參
「次第禪門に關する一考察」 (天台學報 14, 昭和47年11月) 末廣照純
「天台疏の制旨本について」-ペリオ本「出家人受菩薩戒法卷第一」から

- (印佛研 21, 昭和47年12月) 諏訪義純
「天台戒疏の成立に關する一考察」
(佛教學研究 30, 昭和48年9月) 小寺文穎
「智顗における『維摩疏』撰述の思想的意味」
(印佛研 22-2, 昭和49年 3月) 新田雅章
「天台戒疏の十戒」 (印佛研 23-1, 昭和49年12月) 利根川 浩行
「『次第禪門』所出の慈悲觀」(橋本退官紀念論集, 昭和50年11月) 瀧藤尊教
「天台四悉檀義の一側面 -『次第禪門』における四悉檀義-」
(奥田・佛教思想論集, 昭和51年10月) 川勝 守
「天台維摩疏の三觀について」
(天台學報 18, 昭和51年11月) 浜田智純
「維摩玄疏における『疾』について」
(大正大大學院論集 2, 昭和53年 3月) 浜田智純
「『次第禪門』における 前方便思想の傳承と展開」
(佛教學研究 34, 昭和53年 3月) 淺田正博
「『方等三昧行法』の研究- 智顗禪觀形成の源流究明-」
(印佛研 27-1, 昭和53年12月) 大野榮人
「『大品般若經』『大智度論』より『次第禪門』への實踐體系の展開」
(宗教研究 238, 昭和54年 2月) 大野榮人
「智顗の『釋論疏』逸文について」
(大正大大學院論集 3, 昭和54年 3月) 坂本廣博
「『次第禪門』における禪觀・禪法と觀法」
(曹洞宗研究紀要 11, 昭和54年 8月) 大野榮人
「『維摩經玄疏』をめぐる二・三の問題」
(印佛研 28-1, 昭和54年12月) 大島啓禎
「『六妙法門』に於ける止と觀について」
(佛教學年報 14, 昭和55年 7月) 仙石景章
「『禪門要略』考(上)」 (曹洞宗研究紀要 12, 昭和55年 8月) 大野榮人
「『大本四教義』における三觀」
(天台學報 22, 昭和55年11月) 野本覺成
「維摩玄疏の省略された引用典籍」
(天台學報 23, 昭和55年11月) 浜田智純
「『次第禪門』に引用せられる禪經について」
(印佛研 29-1, 昭和55年12月) 仙石景章

- 「天台禪門要略」の研究」 (愛知學院文學部紀要 10, 昭和56年 3月) 大野榮人
「天台『觀心十二部經義』の研究(上)」
(愛知學院文學部紀要 10, 昭和57年 3月) 大野榮人
「釋禪波羅蜜次第法門に見られる四禪」
(叡山學院研究紀要 5, 昭和57年10月) 坂本廣博
「事と理の構造-『次第禪門』の場合-」
(天台學報 24, 昭和57年11月) 多田孝正
「『法界次第初門』に關する一考察」
(天台學報 25, 昭和58年11月) 加藤 勉
- 7) 學說
- 「智顗の感應論とその思想的背景」
(天台學報 49-4, 昭和45年 3月) 福島光哉
「前期時代における智顗の實踐觀の推移 - 客觀的方法から主觀的方法へ -」
(印佛研 18-2, 昭和45年 3月) 新田雅章
「智顗における法華經解釋の問題點」
(法華經の成立と展開, 昭和45年 3月) 日比宣正
「前期時代における智顗の實相認識の展開」
(東方學 40, 昭和45年 9月) 新田雅章
「智顗における禪から止觀への展開の意味」
(宗教研究 204, 昭和45年10月) 新田雅章
「觀心と心觀」 (天台學報 12, 昭和45年12月) 平 了 照
「天台大師の五重玄義について」
(フィロソフィア 58, 昭和45年12月) 青木孝彰
「天台智顗の止觀論」 (印佛研 19-1, 昭和45年12月) 池田魯參
「治病方としての天台止觀-智顗の醫學思想序說-」
(大谷年報 23, 昭和46年 3月) 安藤俊雄
「智顗の實相認識の展開理由について-特に前期時代にみられる『空』の理解をめ
ぐって-」 (印佛研 19-2, 昭和46年 3月) 新田雅章
「天台智顗の時間論」 (印佛研 20-1, 昭和46年12月) 池田魯參
「天台智顗佛性思想」 (佛教學セミナー 15, 昭和47年 5月) 大野榮人
「智顗における佛陀觀の變遷」
(印佛研 21-1, 昭和47年12月) 由木義文

- 「天台智顗の三因佛性の構造とその現代的課題」
(佛大大學院紀要 3, 昭和48年 3月) 久下 隆
- 「智顗における三觀・三諦説のをめぐる-考察」
(中村・インド思想と佛教, 昭和48年11月) 新田雅章
- 「智顗における戒の問題」 (印佛研 22-1, 昭和48年12月) 由木義文
- 「天台智顗の法華分科」 (佛教學年報 8, 昭和49年 3月) 宇佐美 文英
- 「智顗と普賢觀經」 (印佛研 23-1, 昭和49年12月) 由木義文
- 「天台大師智顗思考について」
(茂田井・日蓮教學の諸問題, 昭和49年12月) 日比宣正
- 「天台智顗 證悟の背景について」
(東洋學術研究 14-1, 昭和50年 1月) 横超慧日
- 「天台性具思想-智顗における人間惡の構造とその超克-」
(講座佛教思想 3, 昭和50年 2月) 新田雅章
- 「智顗の神通と說法」 (大谷學報 54-4, 昭和50年 2月) 福島光哉
- 「天台大師の疑經觀-六朝末期の止觀經典の疑撰-」
(止觀の研究, 昭和50年11月) 牧田諦亮
- 「天台智顗における「法」-衆生法をめぐって-」
(南都佛教 35, 昭和50年11月) 多田孝正
- 「智顗の菩提心について」 (印佛研 24-1, 昭和50年12月) 林 善信
- 「天台智顗の佛信論」 (東方學 51, 昭和51年 1月) 由木義文
- 「天台智顗の三昧思想考」 (日佛年報 41, 昭和51年 3月) 大野榮人
- 「般舟三昧經と十住毘婆沙論-智顗の般舟三昧説への一試攷-」
(日佛年報 41, 昭和51年3月) 小玉大圓
- 「智顗の戒體論について」 (奥田・佛教思想論集, 昭和51年10月) 平川 彰
- 「天台大師三世間觀の基潮」 (天台學報 18, 昭和51年11月) 多田孝正
- 「天台智顗の宗教と五重玄義」
(宗教研究 230, 昭和51年12月) 池田魯參
- 「天台大師教學の綱要」 (印佛研 25-1, 昭和51年12月) 關口眞大
- 「天台智顗の老莊道教批判」 (東方宗教 49, 昭和52年 5月) 山田和夫
- 「不二門を通じて捉えられた「絶對」の構造-智顗の場合を中心として-」
(玉城・佛の研究, 昭和52年11月) 新田雅章
- 「天台大師の佛身觀」 (玉城・佛の研究, 昭和52年11月) 多田孝正
- 「五種三觀について」 (天台學報 19, 昭和52年11月) 多田孝文
- 「智顗の禪定思想の構造と形成」

- (佛教の實踐原理, 昭和52年12月) 新田雅章
- 「智顗 前期時代における觀心-觀心の實踐構造と雙照二諦の立場-」
(大正大大學院論集 2, 昭和53年 3月) 地田宗讓
- 「般舟三昧經と稱名念佛(1)-天台智顗の解釋をめぐって-」
(佛大紀要 62, 昭和53年 3月) 小玉大圓
- 「天台智顗における證悟體驗の意味について」
(印佛研 26-2, 昭和53年 3月) 宮田正純
- 「天台智顗の安心法について」(印佛研 26-2, 昭和53年 3月) 鷲阪宗演
- 「智顗の權實二智論」 (佛教學セミナー-27, 昭和53年 5月) 福島光哉
- 「天台大師の佛土觀」 (天台學報 20, 昭和53年11月) 西郊良光
- 「不可思議觀と十二因緣觀」 (天台學報 20, 昭和53年11月) 野本覺成
- 「天台智顗の護國思想」 (宗教研究 238, 昭和54年 2月) 池田魯參
- 「天台大師智顗の「別教」」 (大正大大學院論集 3, 昭和54年 3月) 小松賢壽
- 「智顗の觀法と華嚴」 (印佛研 27-2, 昭和54年 3月) 多田孝正
- 「天台智顗の佛性説」 (印佛研 28-1, 昭和54年12月) 若杉見龍
- 「天台智顗の念佛三昧」 (森・東洋學論集, 昭和54年12月) 福島光哉
- 「天台智顗の護國思想について」
(宗教學論集 9, 昭和54年12月) 池田魯參
- 「般舟三昧と二種の念佛-天台智顗の解釋をめぐって-」
(森・東洋學論集, 昭和54年12月) 小玉大圓
- 「天台大師智顗の華嚴經觀」 (大正大大學院論集, 4 昭和55年 3月) 秋田光兆
- 「天台智顗の佛性説」 (棲神 52, 昭和55年 3月) 若杉見龍
- 「天台大師智顗の『通教』」 (大正大總合佛教年報 2, 昭和55年 3月) 小松賢壽
- 「天台大師智顗の通教」 (印佛研 28-2, 昭和55年 3月) 小松賢壽
- 「天台智顗の修の基本理念」 (日佛年報 45, 昭和55年 3月) 多田孝正
- 「天台智顗における大乘戒の組織と止觀」
(大谷學報 60-2, 昭和55年 9月) 福島光哉
- 「天台大師の淨土觀と善導」 (天台學報 22, 昭和55年11月) 西郊良光
- 「天台大師智顗の「三藏教」」 (天台學報 22, 昭和55年11月) 小松賢壽
- 「天台智顗の禮法體系」 (印佛研 29-1, 昭和55年12月) 池田魯參
- 「被接説にみられる智顗の法概念」
(大正大大學院論集 5, 昭和56年 2月) 小方文憲
- 「智顗 教學と老莊思想」 (宗教研究 246, 昭和56年 2月) 池田魯參
- 「天台大師智顗の『圓教』」 (印佛研 29-2, 昭和56年 3月) 小松賢壽

- 「天台觀心食法の研究(下)」(禪研究所紀要 10, 昭和56年 3月) 大野榮人
- 「天台智顗の涅槃經五行の解釋」
(佛教學セミナー 33, 昭和56年 5月) 福島光哉
- 「天台大師智顗の菩提心について」
(叡山學院研究紀要 4, 昭和56年10月) 武 覺超
- 「智顗の戒律思想-性罪をめぐる問題について-」
(佐佐木編・戒律思想の研究, 昭和56年10月) 福島光哉
- 「天台智顗における「如來藏」の語の意味」
(印佛研 30-1, 昭和56年12月) 藤井教公
- 「天台智顗の地獄思想について」
(印佛研 30-1, 昭和56年12月) 大野榮人
- 「天台智顗の『首楞嚴三昧經』の受用について」
(佛教學年報 56, 昭和56年2月) 仙石景章
- 「天台智顗の戒律觀の一考察」
(花園大紀要 13, 昭和57年 3月) 鷲阪宗演
- 「天台智顗の地論攝論學について」
(印佛研 30-2, 昭和57年 3月) 池田魯參
- 「田村芳朗・新田雅章著『智顗』」
(駒澤佛教論集 13, 昭和57年10月) 池田魯參
- 「天台大師智顗の本迹論」(天台學報 24, 昭和57年11月) 武 覺超
- 「天台大師撰述における經論の略名」
(天台學報 24, 昭和57年11月) 加 藤 勉
- 「天台大師の三諦三觀教學管見」
(中川・佛教と文化 2, 昭和58年 3月) 伊藤淨嚴
- 「天台智顗の誦經觀」(印佛研 32-1, 昭和58年12月) 大野榮人
- 「三身論に於ける台當の異本について(1)-眞流正傳をを中心として-」
(印佛研 32-1, 昭和58年12月) 林 眞芳
- 「天台智顗の「涅槃」説について」
(印佛研 32-2, 昭和59年 3月) 木本清史
- 「智顗と灌頂-「名別義通」をめぐる-」
(印佛研 32-2, 昭和59年 3月) 若杉見龍

8) 智顗 이후(灌頂・湛然・그외 唐代天台)

「妙經文句私志記に關する一試論」

- (印佛研 20-2, 昭和47年 3月) 多田孝文
- 「法華五百問論の研究」(法華經の中國的展開, 昭和47年 3月) 日比宣正
- 「行滿の「涅槃經疏私記」について」
(天台學報 14, 昭和47年11月) 坂本廣博
- 「唐代における「法華文句」研究の一側面」
(天台學報 14, 昭和47年11月) 多田孝文
- 「智顗滅後の天台教壇と動向」
(印佛研 21-1, 昭和47年12月) 池田魯參
- 「『金剛鉾論』の問題(その1)」(駒澤佛教紀要 32, 昭和49年 3月) 池田魯參
- 「涅槃經玄義文句について-道作を疑う-」
(天台學報 16, 昭和49年10月) 坂本廣博
- 「章安灌頂における大般涅槃釋考」
(印佛研 23-1, 昭和49年12月) 大野榮人
- 「章安灌頂の研究-灌頂傳について-」
(佛教學年報 9, 昭和50年 3月) 佐佐木 章格
- 「灌頂撰『大般涅槃經玄義』について」
(天台學報 17, 昭和50年11月) 藤本賢一
- 「荊溪湛然の五時八教論」(曹洞宗研究紀要 7, 昭和50年 8月) 池田魯參
- 「湛然以後における五時八教論の展開」
(駒澤佛教論集 6, 昭和50年10月) 池田魯參
- 「湛然に成立する五時八教論」
(印佛研 24-1, 昭和50年12月) 池田魯參
- 「灌頂傳についての一考察」(印佛研 25-1, 昭和51年12月) 佐佐木章 格
- 「荊溪湛然の戒律觀」(印佛研 25-1, 昭和51年12月) 李根川 浩行
- 「湛然の加筆・私見について」(佛教學年報 11, 昭和52年10月) 鈴木祐孝
- 「章安灌頂の研究-灌頂にかかわる著作目録について」
(佛教學年報 11, 昭和52年10月) 佐佐木 章格
- 「章安尊者の戒律觀」(天台學報 19, 昭和52年11月) 李根川 浩行
- 「灌頂教學における佛性義」(印佛研 26-1, 昭和52年12月) 多田孝文
- 「唐代天台學における涅槃經研究」
(駒澤佛教論集 9, 昭和53年11月) 鈴木祐孝
- 「唐末・宋天台の系譜」(天台學報 20, 昭和53年11月) 末廣照純
- 「法華玄義釋詁要決」に觀する二・三の問題」
(印佛研 27-1, 昭和53年12月) 坂本廣博

- 「妙經文句私志記にみられる全師」
(印佛研 27-2, 昭和54年 3月) 多田孝文
- 「妙經文句私志記と起信論-六即と本覺・始覺との關連を中心に-」
(叡山學院研究紀要 2, 昭和54年10月) 武 覺超
- 「荊溪大師の淨土觀」 (天台學報 21, 昭和54年11月) 西郊良光
- 「中國天台における祖承說について」
(天台學報 21, 昭和54年11月) 村中祐生
- 「『永嘉集』に見られる天台教學の影響」
(印佛研 28-1, 昭和54年12月) 仙石景章
- 「傳翕と荊溪について」 (印佛研 28-2, 昭和55年 3月) 多田孝正
- 「觀音經疏と章安」 (印佛研 28-2, 昭和55年 3月) 多田孝文
- 「天台宗と法眼宗」 (天台學報 22, 昭和55年11月) 村中祐生
- 「『止觀義例』第七章の研究」 (駒澤佛教紀要 39, 昭和56年 3月) 池田魯參
- 「唐代天台教團の動向」 (大正大總合佛教年報 3, 昭和56年 3月) 長谷川愼一
- 「湛然教學における頓漸の觀念-證觀教學との對論-」
(南都佛教 47, 昭和56年12月) 池田魯參
- 「摩訶止觀における惡觀を中心とした惡の考察及びその現代的意義について-特に湛然の思想を手がかりとして-」
(佛教學年報 56, 昭和56年12月) 石島尙雄
- 「天台止觀と禪-湛然教學の禪宗批判-」
(佛教思想史 4, 昭和56年12月) 池田魯參
- 「『止觀義例隨釋』と禪宗」 (宗學研究 25, 昭和58年 3月) 大松博典
- 「『法華玄義釋詁』における『可』字の用例について」
(天台學報 25, 昭和58年11月) 坂本廣博
- 「三宗觀法-特に託事觀について-」
(印佛研 32-2, 昭和59年 3月) 坂本廣博
- 9) 山家山外の諸師 (趙宋天台)
- 「涅槃經疏三德指歸卷第十五について」
(金澤文庫研究 178, 昭和46年 2月) 日置孝彦
- 「趙宋天台における兩重能所觀の形成」
(大崎學報 125・126合, 昭和46年 7月) 日比宣正
- 「趙宋天台教學序說-知禮傳の研究-」

- (佛教學年報 8, 昭和49年 3月) 鈴木宣邦
- 「四明知禮の修懺法」 (佛教學年報 9, 昭和50年 3月) 鈴木宣邦
- 「知禮における起信論」 (印佛研 23-2, 昭和50年 3月) 鈴木宣邦
- 「天台四教儀(1)」 (東洋思想 1・2合, 昭和50年10月) 阿部泰吉
- 「孤山智圓と明教契嵩-宋代二高僧に見る儒佛二教の位置-」
(大谷學報 55-3, 昭和50年12月) 安藤智信
- 「四明知禮の淨土教」 (谷大眞宗總合研究班紀要 9, 昭和51年1月) 福島光哉
- 「諦觀錄『四教義』序說-成立意義と問題點-」
(駒澤佛教紀要 34, 昭和51年 3月) 池田魯參
- 「奉先源清の止觀思想」 (佛教學セミナー-24, 昭和51年10月) 福島光哉
- 「趙宋天台における山外派の動向」
(大正大大學院論集 1, 昭和52年 3月) 末廣照純
- 「四明知禮の皮肉髓得法說」 (印佛研 26-1, 昭和52年12月) 池田魯參
- 「稱名寺の宋祖天台典籍」 (金澤文庫研究 249・250合, 昭和53年 3月) 高橋秀榮
- 「十佛二の範疇論(1)『指要』を通路として」
(駒澤佛教紀要 36, 昭和53年3月) 池田魯參
- 「四明知禮の受苦薩戒儀」 (印佛研 27-1, 昭和53年12月) 李根川浩行
- 「智圓の宗教」 (宗教研究 238, 昭和54年 2月) 鈴木祐孝
- 「四明知禮と起信論-佛信論を中心に-」
(印佛研 27-2, 昭和54年 3月) 武 覺超
- 「知禮教學における『十義書』成立の意義(1) - 觀心釋の有無をめぐる -」
(印佛研 27-2, 昭和54年 3月) 鈴木宣邦
- 「十佛二の範疇論(2)『指要』を通路として」
(駒澤佛教紀要 37, 昭和54年 3月) 池田魯參
- 「慈雲遵式の教學」 (印佛研 27-2, 昭和54年 3月) 末廣照純
- 「『金剛川顯性錄』について」 (佛教學年報 13, 昭和54年 7月) 鈴木祐孝
- 「天台四教儀(諦觀錄)『五悔』の段の錯簡を糾す」
(叡山學院研究紀要 2, 昭和54年10月) 吉山亮薫
- 「初期趙宋天台の戒學」 (天台學報 21, 昭和54年11月) 李根川 浩行
- 「一念靈知について」 (天台學報 21, 昭和54年11月) 末廣照純
- 「源清の教學について」 (印佛研 28-1, 昭和54年12月) 末廣照純
- 「北峰宗印の思想」 (宗教研究 242, 昭和55年 2月) 大松博典
- 「知禮教學における『十義書』成立の意義(2)-智圓との論争-」
(印佛研 28-2, 昭和55年 3月) 鈴木宣邦

- 「十佛二の範疇論(3)-『指要』を通論として-」
(駒澤佛教紀要 36, 昭和55年 3月) 池田魯參
- 「北峰宗印の研究」 (佛教學年報 14, 昭和55年 3月) 大松博典
- 「四明知禮と起信論-別理隨緣說をめぐって-」
(叡山學院研究紀要 3, 昭和55年10月) 武 覺超
- 「南宋天台研究序說-宗印・法照の場合-」
(駒澤佛教論集 11, 昭和55年11月) 大松博典
- 「趙宋天台における戒體說」 (天台學報 22, 昭和55年11月) 李根川 浩行
- 「『天台傳佛心印記』の研究」 (駒澤佛教論集 11, 昭和55年11月) 池田魯參
- 「南宋天台と禪宗」 (宗學研究 23, 昭和56年 3月) 大松博典
- 「山家山外論爭の發端」 (佛教思想史 4, 昭和56年12月) 鹽入良道
- 「智湧了然と宋の天台」 (印佛研 30-2, 昭和57年3月) 大松博典
- 「知禮の受菩薩戒儀について」
(佛教學年報 16, 昭和58年 1月) 石島尙雄
- 「趙宋天台學の背景-延壽教學の再評價-」
(駒澤佛教論集 14, 昭和58年10月) 池田魯參
- 「宗密の『圓覺經疏』所引の天台止觀について」
(天台學報 25, 昭和58年11月) 兼子鐵秀
- 10) 智旭・그외(明末天台)
- 「智旭の法華經會義等の研究」
(法華經の中國的展開, 昭和47年 3月) 淺井圓道
- 「智旭の佛教觀」 (印佛研 21-2, 昭和48年 3月) 中山正晃
- 「智旭の著作にあらわれた人びとの系譜」
(印佛研 21-2, 昭和48年12月) 釋 聖嚴
- 「智旭の思想と天台學」 (印佛研 23-1, 昭和49年12月) 釋 聖嚴
- 「『教觀綱宗・釋義』の教判論」 (駒澤佛教論集 7, 昭和51年10月) 池田魯參
- 「智旭教學と天台教判」 (印佛研 25-1, 昭和51年12月) 池田魯參
- 「湛然圓證註『涅槃經會疏解』について」
(印佛研 27-1, 昭和53年12月) 佐佐木 章格
- 「智旭撰『重定授菩薩戒法について』」
(天台學報 23, 昭和55年11月) 李根川 浩行

「阿彌陀經要解の業因說」 (叡山學院研究紀要 5, 昭和57年10月) 福原蓮月

11) 龍谷大學 雜誌論文分類目錄 昭和 58年 12月 이후의 자료

昭和 58年 12月 이후의 자료는 분류하지 않고 다만 잡지별로 년대 순에 따라서 나열했다.

(天台學報)

- 「隨自意と覺意三昧」 (第26號, 1984年) 坂本廣博
- 「天台における『俱舍論』研究の系譜」 (上 同) 藤本文雄
- 「『摩訶止觀』における發菩提心」 (上 同) 加藤 勉
- 「覺意三昧における一・二の問題」 (上 同) 坂本廣博
- 「安然尊者と『大乘止觀法門』」 (上 同) 武 覺超
- 「十如是と五何」 (上 同) 浜田智純
- 「唐代天台僧清幹の因明學について」 (上 同) 根無一力
- 「證觀に見られる天台止觀」 (上 同) 秋田光兆
- 「天台大師智顗の別教」 (上 同) 小松賢壽
- 「天台止觀における五陰の意味」 (上 同) 鹽入法道
- 「天台智顗禪師における文字」 (第28號, 1986年) 浜田智純
- 「天台止觀における五門禪」 (上 同) 藤平寛田
- 「『天台法華宗付法緣起』未完成草本考」 (上 同) 古江亮仁
- 「天台智顗禪師における文字」 (上 同) 浜田智純
- 「四種四諦と四教について」 (上 同) 渡邊明照
- 「天台智顗の教觀における『時間』の問題」 (上 同) 鹽入法道
- 「『大乘止觀法門』と『起信論』の比較 -不空如來藏の解釋をめぐって-」
(上 同) 松田未亮
- 「天台止觀における五門禪」 (上 同) 藤平寛田
- 「『三寶繪詞』における天台」 (第29號, 1987年) 渡邊守順
- 「『摩訶止觀』病患境における五行說」 (上 同) 坂本廣博
- 「天台智顗における『三界唯心』」 (上 同) 秋田光兆
- 「時間論的にみた天台教觀の一念について」 (上 同) 鹽入法道
- 「法華玄義の境と智について」 (上 同) 勝野隆廣
- 「天台大師と『金剛般若經』 - 特に四弘誓願との關連について -」
(上 同) 兼子鐵秀

- 『六妙法門』に關する一考察 (上 同) 池田晃隆
 『五停心觀について』 (上 同) 勝野隆廣
 『止觀義例』に關する一考察 - 喩疑顯正例を中心として - (上 同) 佐藤泰雄
 『金剛鐺論』のテキストについて (上 同) 岩城英規
 『拾遺往生傳』における天台 (第30號, 1988年) 渡邊守順
 『廢佛棄釋による天台宗の廢寺數』 (上 同) 野本覺成
 『事と理の構造 - 智顗と湛然の場合 -』 (上 同) 秋田光兆
 『蓮華三喩について(1)』 (第31號, 昭和63年度) 多田孝正
 『輔行』における具の解釋 (上 同) 坂本廣博
 『止觀による知の整合性』 (第32號, 平成元年度) 林 慶仁
 『心・佛・衆生の三法について』 (上 同) 鹽入法道
 『湛然の眞如觀』 (上 同) 秋田光兆
 『天台大師智顗における圓融思想に關する一考察』 (上 同) 寺田眞淨
 『天台宗の回向について』 (上 同) 吉田實盛
 『金剛鐺論の解釋について』 (上 同) 岩城英規
 『三大部要決をめぐる一・二の問題』 (第33號, 平成2年度) 大久保 良峻
 『『雜誌集』における天台』 (第34號, 平成3年度) 渡邊守順
 『天台智顗の白毫觀』 (上 同) 福原隆善
 『天台教觀における菩薩の理念』 (上 同) 鹽入法道
 『天台聲明における呂曲と律曲の比較研究』 (上 同) 天納久和
 『念佛と觀心について - 四念處を手掛りとして -』 (上 同) 小林順彦
 『章安尊者の行迹について』 (上 同) 木村周誠
 (叡山學院研究紀要)
 『『大乘止觀法門』と性惡說』 (第8號, 1985年10月) 武 覺超
 『『摩訶止觀』病患境の五行六氣に就いて』 (第10號, 1987年11月) 坂本廣博
 『天台教學に立脚した親鸞の不二思想』 (上 同) 福原亮殿
 『圓教無作考』 (第12號, 1989年) 坂本廣博

- 『常行三昧と『大智度論』』 (第13號, 1990年) 伊藤進傳
 『天台思想の根底を流れるもの』 (第14號, 1991年) 新田雅章
 『三諦圓融そして三願轉入』 (第15號, 1992年) 守屋 茂
 (印度學佛教學研究)
 『天台三大部の引用經論について - 『止觀』『輔行』と『大智度論』 -』 (印佛研33-1, 昭和59年) 仙石景章
 『三大部要決について』 (上 同) 瀧川善海
 『天台智顗の如來藏思想』 (印佛研33-2, 昭和60年) 藤井敦公
 『宋代天台學における『佛性』』 (上 同) 大松博典
 『天台智者大師說『頓超秘密綱要』偽撰の意義』 (上 同) 野本覺成
 『天台學入門書としての『天台四教儀』と『天台法華宗義集』』 (印佛研34-1, 昭和60年) PAUL SWANSON
 『天台智顗における三惑について』 (上 同) 青木 隆
 『天台止觀における色法について』 (上 同) 鹽入法道
 『『無漏總中三』をめぐる』 (上 同) 坂本廣博
 『趙宋天台と淨土教 - その實踐面について -』 (上 同) 中山正晃
 『天台學系による涅槃經研究』 (印佛研35-1, 昭和61年12月) 鈴木祐孝
 『天台智顗のアビダルマ教學 - 四雲心を中心として -』 (印佛研35-2, 昭和62年 3月) 藤井敦公
 『天台三大部の文獻的位置に關する一考察』 (上 同) 堀内伸二
 『『一乘佛性究竟論』の共同研究』 (上 同) 淺田正博・吉田健一・寺井良宣・間中潤
 『宋代天台學と淨覺仁岳』 (印佛研35-2, 昭和62年 3月) 大松博典
 『化法四教と二藏教判』 (印佛研36-2, 昭和63年 3月) 坂本廣博
 『慧思・智顗における隨自意三昧について』 (上 同) 鹽入法道
 『中國天台における『圓覺經』』 (印佛研37-1, 昭和63年12月) 岩城英規
 『天台と三論の交渉』 - 智顗說・灌頂錄『金光明經文句』と吉藏撰『金光明經疏』との比較を通じて - (印佛研37-2, 平成元年 3月) 藤井敦公
 『天台智顗の誦經觀』 (印佛研37-2, 平成元年 3月) 大野榮人

- 「宋代天台學と首楞嚴經」 (上 同) 大松博典
「天台法華宗より遮那業」 (印佛研38-1, 平成元年12月) 仲尾俊博
「天台智顗の生命觀と臟器移植」 (印佛研38-2, 平成 2年 3月) 大野榮人
「中國天台における「理」」 (印佛研39-1, 平成 2年12月) 岩城英規
「一念三千說の一考察」 (上 同) 大窪康充
「四種四諦における問題點について」 (上 同) 齋藤章光
「智顗における三藏教の斷惑論」 (印佛研40-1, 平成 3年12月) 池田晃隆
「四明知禮と慈雲遵式」 (上 同) 柏倉明裕
「天台智顗の懺法における「奉請三寶」について」 (印佛研40-1, 平成 3年12月) 小林正美
「四明知禮と慈雲遵式」 (上 同) 柏倉明裕
「智旭『周易禪解』について」 (上 同) 岩城英規
「天台大師の即について」 (印佛研41-1, 平成 4年12月) 宮澤勘次
「天台行位說に關する一、二の問題」 (印佛研41-2, 平成 5年 3月) 青木 隆
「摩訶止觀における經典の使用(1)一新「引用學」の試み」 (印佛研41-2, 平成 5年 3月) スワンソン・ポール
「智顗の三諦思想」 (印佛研42-2, 平成 6年 3月) 橘川智昭
「禪と天台止觀」 (駒澤佛教論集 18, 昭和62年10月) 池田魯參
「天台教學と老莊思想」 (上 同 21, 平成 2年10月) 池田魯參
「智顗の二十五三昧について(1)」 (棲神 60, 昭和63年 3月) 若杉見龍
「資料-摩訶止觀圓頓章私記」 (棲神 62, 平成 2年 3月) 秋山智孝
「天台教觀にみる如來・衆生(序說)」 (大正大學紀要 70, 昭和59年) 村中祐生
「法華文句四種釋考」 (上 同 72, 昭和61年) 多田孝文
「天台智顗禪師における懺悔の展開」 (大正大大學院論集 9, 昭和60年 2月)
「大乘止觀法門と天台大師の思想との關連」-圓頓思想について- (大正大學紀要 9, 昭和60年 2月) 松田未亮
「中國南北朝後期における四念處觀法」 (上 同 10, 昭和61年 2月) 鹽入法道
「宗教經驗としての感應道交」-天台教觀にみる如來・衆生の一側面- (大正大大學院論集10, 昭和61年 2月) 村中祐生
「中國佛教における一乘妙法の信受」-特に天台大師の法解釋をめぐって- (大正大大學院論集11, 昭和62年 2月) 林田正見
「『六妙法門』成立の思想的背景について」 (上 同 12, 昭和63年 2月)
「天台行位說戒成に關する一考察」 (上 同 13, 昭和64年 2月) 勝野隆廣
「天台教觀における佛身觀とその特色」

- (日佛年報 50, 昭和59年) 星宮智光
「天台大師の佛陀觀」 (上 同 53, 昭和62年) 多田孝正
「天台智顗の佛陀觀」 (上 同) 大野榮人
「智顗の佛陀觀について」 (上 同) 坂本廣博
「天台學の教觀の體系化について」 (日佛年報 54, 昭和63年) 池田魯參
「天台智顗の生命觀」 (上 同 55, 平成元年) 大野榮人
「天台智顗における國土觀」-一四土說の形成過程- (日佛年報 58, 平成四年) 大野榮人

최근 발간된 천태교학의 저서, 기념논집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多田厚隆先生 頌壽記念, 天台教學の研究』 (山喜房佛書林, 平成 2年 3月)
『鹽入良道先生追悼論文集, 天台思想と東アジア文化の研究』 (山喜房佛書林, 平成 3年 12月)
大野榮人著 『天台止觀成立史の研究』 (京都 法藏館, 平成 6年7月15日)